

안중근 의거 99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동북이 평화와 안중근 의거 제조명”

- ◆ 일시 : 2008년 10월 17일(금)~18(토)
- ◆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11층)
- ◆ 주최 : 안중근·하얼빈학회, 동북아역사재단
- ◆ 후원 : 유한킴벌리

이 발표 논문집은 2008년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초대의 말씀

한국 민족운동사에서 가장 영예스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100주년을 앞두고 안중근 의사의 구국활동을 ‘동북아의 평화선언’이라는 큰 틀에서 재조명하는 국제학술회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중근·하얼빈 학회는 안중근의 의거가 단지 한국인의 항일운동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대 선언이었음에 주목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한, 중, 일 삼국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북아역사재단과 공동으로 한, 중, 일 3국의 역사학자와 물류 네트워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안중근 의거를 거시적,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 하였습니다오니 많이들 오셔서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진지한 토론에 동참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안중근·하얼빈 학회 공동회장 이 태 진·조 동 성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용 덕

동북아 평화와 안중근 의거 재조명

10월 17일

사회 : 도진순(청원대 교수)

▶ 오전일정

개회사 이태진(안중근·하얼빈학회 공동회장)
<개회사 및 축사> 축 사 김우전(전 광복회 회장)
(10:30~11:10) 축 사 김용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기조발표> 안중근의 '하얼빈 대첩'과 평화주의
(11:10~11:50) (이태진 학술대회 준비위원장, 서울대 교수)

▶ 오후일정<역사분야>

(1:30~2:10) 간도지역 독립운동과 안중근이 지도한 의병전선(오영섭, 연세대 연구교수)
(2:10~2:50) 안중근의 국제정세 인식과 동양평화론(서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3:00~3:40) 한국 근현대사 속의 안중근 일가(박태균, 서울대 교수)
(3:40~4:20) 중국인의 안중근 인식과 기념사업(劉秉虎, 中國 大蓮大 교수)
(4:30~5:30) 약정토론 반병률(한국외국어대 교수), 김현철(동북아역사재단)

10월 18일

사회 : 이동기(서울대 경영대 교수)

▶ 오전일정<국제정치분야>

(10:30~11:10)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김만규, 동북아역사재단)
(11:10~11:50) 滿鐵의 하얼빈에 있어서의 조사기관(井村哲郎, 日本 니이가타대 교수)
(12:00~12:30) 약정토론 김정현(동북아역사재단), 김주남(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오후일정<동북아경영분야>

(1:30~2:10) 동북아의 국제물류 네트워크(이호영, 독일함부르크항 한국대표)
(2:10~2:50)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활성화 방안(강성민, 가톨릭대 교수)
(3:00~3:40) 하얼빈과 한국간의 경제협력(김태현, 연세대 경영대 학장)
(3:40~4:20) 하얼빈시의 창조경영(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
(4:30~5:30) 약정토론 최연혜(철도대학 학장), 박남규(서울대 경영대 교수)

<폐회사> 조동성(안중근·하얼빈학회 공동회장)
(5:30~6:00)

목 차

〈기조발표〉 안중근의 ‘하얼빈 대첩’과 평화주의	이태진	1
01. 간도지역 독립운동과 안중근이 지도한 의병전선	오영섭	9
02. 안중근의 국제정세 인식과 동양평화론	서영희	35
03. 한국 근현대사 속의 안중근 일가	박태균	47
04. 중국인의 안중근 인식과 기념사업	유병호	55
05.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	金旻奎	71
06. 滿鐵의 하얼빈에 있어서의 조사기관	井村哲郎	91
07. 동북아의 국제물류 네트워크	이호영	103
08.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강성민	129
09. 하얼빈과 한국간의 경제협력	김태현	151
10. 하얼빈시의 창조경영	조동성	163

· **기조발표**

안중근의 ‘하얼빈 대첩’과 평화주의

이 태 진(서울대 교수) ·

<기조발표>

안중근의 '하얼빈 대첩'과 평화주의

이 태 진(서울대 교수)

<목 차>

I. 머리말

1. 고대 중국의 대외 관계와 대외 인식 문제를 둘러싼 국내 학계의 시각
2. 『漢書』 「地理志」의 구성과 漢代 중국인들의 세계관
3. 魏志 東夷傳의 분석과 시각에 대한 접근

II. 맺음말을 대신하여(餘論)

1. 서 론

1909년 10월 26일(음력 9월 9일) 아침 9시 30분 하얼빈 철도정거장에 일어난 안중근(安重根)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저격사건은 세계를 놀라게 한 대사건이었다. 한국 근대사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코너에 몰려 얻어맞기만 한 복서의 꼴로 남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거나 왜곡된 점이 많다. 그를 테러리스트로 치부하는 인식이 대표적이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테러 활동이 잦아지면서 안중근의 거사나 김구의 항일 활동을 이 범주의 행위로 간주하는 기미가 돌았다.

안중근은 후세에 자신이 한 일이 이런 식으로 간주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듯이 법정에서 자신은 의병조직인 대한의군(大韓義軍)의 참모중장(參謀中將)으로서 적장을 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면밀한 배후 조사 끝에 “사격에 능한 포수”가 잘못된 애국심으로 저지른 무모한 암살“이라는 판결을 내릴 것을 법원에 지시해 안중근의 주장을 물어버렸다. 테러리스트설은 이 사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 피상적 비교로 흘러진 무책임한 언설이지만, 결과적으로 당시의 일본 당국의 고의적 처리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안중근이나 한국 근대사 자체를 크게 훼손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인식이 오늘에서 등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義士’라는 그 호칭 때문일 것이다. 그의 거사에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유교적 전통의 ‘의사’의 면모가 없지 않지만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용어는 무엇보다도 선비 [士] 한 개인의 의거에 대한 것이므로 안중근이 스스로 법정에서 거듭 밝힌 것같이 의병 부대 조직의 지휘관으로 한 행위를 표현하는

4· 동북아 평화와 안중근 의거 재조명

것으로는 부적절하다. 안중근에 대한 호칭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사로 낙착되어 있는 현실은 곧 우리의 안중근에 대한 연구가 부실하거나 안이한 상황이란 것을 의미한다. 이 발표는 이런 뜻에서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을 스스로 밝힌 대로 “대한의군 특과 독립대”가 거둔 하얼빈 대첩으로 인식, 명명할 것을 제안하며, 또 그 작전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등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침략적 동양 평양론에 맞서 진정한 동양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제1차 행동이었다는 것을 덧붙여 이 사건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2. 안중근이 스스로 밝힌 독립 의병전

1909년 10월 26일(음력 9월 9일) 아침 9시 하얼빈 철도정거장에 일본의 거물 노 정객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특별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들어왔다. 러시아군 음악대의 주악이 울리는 가운데 러시아 재정대신이 승차하여 이토와 이십 여 분 면담을 한 후, 두 사람은 함께 하차하였다. 이또는 러시아 의장대를 열병하면서 각국 영사단이 서 있는 쪽으로 갔다. 2~3인과 악수하는 사이에 행렬의 뒤 끝 10여 보 떨어진 지점에서 3발의 총성이 울렸다. 이어 2~3발의 총성이 더 울렸다. 첫 3발이 이토 히로부미의 복부를 명중하여 치명상을 입혔다. 열차 안으로 옮겨진 그는 수행 의사의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30분 뒤 운명하였다. 일본 명치유신의 주역이자 한국을 보호국으로 전락시킨 거물 정치인의 최후였다.

현장에서 “대한국 만세(大韓國 萬歲)”를 세 번 외치고 체포된 사람은 한국인 ‘운칠안’으로 알려졌다. 처음 취조한 러시아군 헌병들이 안응칠(安應七)이란 이름을 서양식으로 ‘응칠안’으로 읽어 보도가 나가고, 일본어로는 ‘운칠안’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후 3일이 지나서야 안응칠로 바로 잡아졌고 본명 안중근이 알려진 것은 일주일이 지난 뒤였다.

안중근의 신병은 사건 당일 하얼빈 러시아 총영사관과 초심 재판소 소관에서 일본 총영사관으로 증거물과 함께 넘겨졌다. 그리고 10월 27일 관동도독부(關東都督府) 법원의 검찰관(溝澹)이 급히 하얼빈으로 가고 한국 통감부 측에서는 한국주차군 사령관 아카시 모도지로(明石原二郎)가 만주로 가서 만주도독부의 관계관과 대책을 협의하였다. 10월 30일 관동부 검찰의 신문이 이루어지고 다음 날 11월 1일에 안중근은 여순(旅順) 감옥으로 옮겨지고 여기서 취조가 계속되었다. 일본 수사관들은 당초 연루자 7명을 검거하였지만 우덕순(禹德淳) 조도선(曹道先) 유동하(劉東夏) 등 3인 만을 안중근과 함께 여순 감옥으로 호송하여 감옥에 수용하였다. 공판은 이듬해 1910년 2월 7일부터 4일간 여순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안중근에 대해서는 극형인 사형이 선고되어 3월 26일 오전 10시에 집행되었다.

안중근은 옥중에서 「안중근자전(安重根自傳)」을 써서 자신이 이 사건을 일으킨 배경과 까닭을 스스로 밝히고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자전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에 관한 기록은 만주일일신문사(滿洲日日新聞社)가 공판정에 속기기

자를 파견하여 재판과정을 “엄밀히 속기”하여 남긴 『안중근사건공판속기록(安重根事件公判速記録)』이 남아 있다. 이 신문사는 당초 속기를 신문에 연재하였다가 “강호(江湖)의 희망”에 따라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이 속기록에는 안중근이 재판정에서 답하거나 진술한 내용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사건에 임한 안중근의 주의, 주장은 위 두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 두 자료는 내용적으로 상치하는 것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안중근 자신의 태도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다른 곡절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던 결과라고 하겠다. 앞으로 여순 재판소의 공판 기록을 찾아 위 『안중근사건공판속기록』을 대조하는 작업은 과제로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두 자료로 사건을 말할 수밖에 없다. 안중근 자신이 의병 조직의 참모중장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이라는 발언과 기술은 두 자료에 모두 나온다. 여기서는 속기록에 네차레나 나오는 재판정에서의 진술을 옮기기로 한다.

첫째, 첫날 공판에서 판관이 서두의 일반 신문을 마친 뒤, 거사를 계획한 시기가 3년 전이 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답하여 안중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3년 전부터의 생각을 실행한 것으로, 그것도 나는 의병의 참모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을 하얼빈에서 해서 이토(伊藤) 공을 죽인 것으로 결코 개인으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결행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의 한 피고인으로 이곳에서 취조를 받는 것은 대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한다.”(속기록 4쪽)

두 번째는 판관이 우덕순(禹連俊) 외에는 相談한 자가 없다고 한 것은 의병 참모중장으로 결행한 것이라는 진술과 모순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나는 전부터 독립군의병의 참모중장으로서 이토 공을 죽인 것이지만 동지와 相謀하여 각각 그 업에 종사하여 독립평화를 위해 동맹하고 있는 것이므로 농부는 농사에 종사하고, 유세하는 자는 유세하는 것처럼 각각 일을 달리하고 있다. 나는 특파 독립대로서 온 것으로 결행에서 만약 시간이 있었다면 상당한 병을 모집하는 일을 했을 것이며 또 나에게 병력이 있었다면 대마해협에라도 가서 행하여 이토 공이 타고 오는 배를 쳐서 침몰시켰을지도 모른다.” (16면)

세 번째는 의견 진술 신청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이 한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큰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 말이다.

“이토 공을 하얼빈에서 살해한 것은 한국독립전쟁의 의병의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싸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이 법정에 나와 있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포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자객으로서 심문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54쪽)

끝으로 사형 판결이 내려진 뒤 주어진 최후 진술에서 자신을 위한 두 사람의 변호사가 한 청통상장정(韓淸通商條約)이 규정한 치외법권의 권리에 따라 무죄가 된다고 한 변론에 대해 자신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즉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은 1899년 제1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가 채택한 ‘육전(陸戰)의 법과 관습에 관한 협약’의 포로에 관한 처벌이지 한국, 청국, 일본 어느 나라의 법도 아니란 뜻으로 밝힌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의병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포로가 되어 여기에 와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는 나를 처벌하는 데는 국제공법, 만국공법에 의해 처벌되기를 희망한다. (92쪽)

안중근은 이상과 같이 네 번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병 조직에 대한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다. 즉 자신이 속한 의병 조직은 大韓義軍이란 것, 팔도 총지휘관은 강원도 태생의 김두성(金斗星), 예하의 지휘관으로는 허위(許, 蔦) 이가영(李家英), 민공호(閔肯鎬), 홍범도(洪範圖), 이범윤(李範允), 이운찬(李運贊), 신돌석 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한의군 자체가 국가적, 정부적 차원의 근거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고종황제가 1907년 7월 이토에 의해 강제로 퇴위 당할 때, “나라가 위급 존망에 처했는데 공수방관(拱手傍觀)하는 것은 국민 된 도리가 아니라”는 조칙을 내렸는데 우리들은 이것이 쫓겨나기를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의병 항쟁에 나선 것이라고 답하였다. 자신이 이토 저격의 계획을 생각한 시점도 바로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3년 전이라고 답하였다.

3. 일본 정부의 안중근 주장 봉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 피격의 소식에 접한 일본 정부는 외무대신 고무라 슈타로(小村 壽太郎)의 훈령으로 정무국장 쿠라치 데쓰요시(倉知鐵吉)가 즉각 여순으로 출장 파견되었다. 그에게 지시된 사항은 관동도독부 및 법원 당국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 (1) 각 피고인의 지위, 경력, 성행(性行), 주거지 및 배회지방, 소속당파, 평소의 정치상의 의견, 소속 종교, 평소 사귀는 인물, 자산상태 특히 생활비 출처, 흥행을 하거나 기도하기에 이른 경로.
- (2) 피고인이 관계한 조직적 단체의 유무, 만약 있다면 그 목적, 조직, 근거지, 수령 및 주요한 다체원, 단체 비용의 출처.
- (3) 피고인에 대한 교사자 유무, 만약 있다면 교사자 및 그 원(原) 교사자에 대해 거론할 만한 사상, 교사 방법 및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평소 관계.

쿠라치는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지에서 일본 헌병 장교 2명을 승려로 가정한 블라디보스토크에 잠입시켰다. 안중근이 진술한 대로 독립의군부의 조직의 일환인 대동공보사(大東共報社)와 그 간부들의 모의 여부에 대한 것이 주요 정탐 사항이었다. 두 장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보고하였다.

1909년 10월 10일 한인 교포 신문 대동공보사 사무실에 7인의 한국인들이 모여 이또 히로부미 총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만주를 방문하는 이또를 총살하면 이 사건을 다루는 공판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 확실하므로, 이때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저지른 죄상들을 폭로하면 국권회복운동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계획이 합의되자 안중근, 우덕순이 실행요원을 자원하였고, 이들에게 2명의 보조요원이 더 할당되었다. 하얼빈 거주 조도선, 러시아어 통역이 가능한 유동하 등이 추가되어 4인조의 특공대가 결성되었다. 두 헌병장교는 이들이 의군부에도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일본 정부는 두 장교의 정탐을 비롯한 제반 첩보를 통해 1909년 11월 중순 경에 이미 한국의 독립의병 조직이 그 배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 이 방침을 통고하였다. 조사 결과대로 발표될 경우, 국제사회에 대해 일본정부가 지게 될 부담이 엄청날 것이며, 그것은 곧 대동공보사 요원들이 바라던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쿠라치를 통해 관동도독부 지방재판소장에게 전달된 최종 지령은 “사건에 배후 관계 없다,” 범행은 안중근 개인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이며, 이는 “극히 중대한 것 이상이므로 징역의 정신으로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사건을 축소 은폐하여 단순 개인 살인 범죄로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안중근의 하얼빈에서의 혁혁한 공로는 이렇게 해서 대한의군부의 참모총장 안중근의 특과부대의 전과가 아니라 안중근 단독의 테로 행위처럼 후세에 잘못 알려질 소지를 안게 되었던 것이다.

메이지 일본정부는 1905년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을 강제하여 한반도를 차지한 다음 1907년에는 이미 남만주 진출을 기하고 있었다. 그 침략적 진군에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기만적 선전전이 큰 몫을 하고 있었다. 대동공보사의 활동에는 이를 저지하려는 목적도 함께 하고 있었다. 위 정탐 보고에 대동공보사 요원들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이또 히로부미 총살계획을 세웠다고 한 부분이 그것이다.

일본정부는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키면서 한국인들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내외에 거짓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고꾸민신봉(國民新聞)』의 창간자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를 시켜 동경에 와 있는 각국 특과원, 그리고 종군 기자들을 상대로 광범한 국제 언론 로비를 펼치게 하여 모든 보도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생산되도록 하였다. 보호조약의 강제 후,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었을 때, 도쿠토미는 한국 언론 통제의 총책이 되어 한국 신문 폐간을 주도하였다. 이런 언론 통제책을 통해 한국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거의 전달되지 않았다. 1907년 4월에 경운궁(慶運宮)의 황제가 6월에 열리는 제

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것도 이 장벽 아닌 장벽을 깨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은 보호조약을 강제한 뒤, 대한제국의 광무제(光武帝)가 1905년 9월 경 이미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로부터 1906년 8월에 개최될 제2차 평화회의 참석 초청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이 초청을 무효로 돌리기 위해 회의 개최 시기를 늦추는 로비를 벌여 회기를 1907년 6월로 연기하는 데 성공하였다. 경운궁의 광무제는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미뤄진 회의에 특사를 보낼 때, 회의장 입장이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다. 특사 3인이 쟁트 페테스부르크에서 러시아 황제의 특별한 지원에 대한 답을 기다리다가 회의 개최 일을 넘긴 사실을 보더라도 황제나 특사들이 일본이 쌓아둔 장벽을 몰랐을 리 없다. 특사들은 회의장 입장이 목적이었다기 보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곳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본의 만행과 불법성을 폭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동공보사 곧 대한의군부가 이또 히로부미 총살 계획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은 곧 2년 전의 헤이그 특사들의 충격을 뒤이어 한 번 더 한국인의 투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국제 언론전에서의 일본과의 대결이란 점에서 “하얼빈 대첩”은 더 부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안중근의 이또 저격과 동양평화론

안중근은 11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26일까지 146일간 여순 감옥에 영어(囹圄)의 몸이 되어 있는 동안 몇 개의 저술을 남겼다. 맨 처음 「이또 히로부미의 죄악」 15개조를 작성하여 11월 6일에 감리(監吏)에게 주었다. 그리고 12월 13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93일 간 「안중근(安重根) 자전(自傳)」(또는 「안웅칠역사」)을 썼다. 전자는 이또 히로부미가 메이지 일본정부의 대표로서 대한황후 폐하를 시살하고, 황제 폐하를 위협하여 주권을 빼앗는 조약을 강제하고 또 황제를 폐위하는 일을 저지르고, 한국의 산업자산과 금융자산을 강제로 빼앗으면서 고의적으로 부채국을 만든 사실, 학교 교육을 방해하고 허다한 의사들을 폭도로 몰아 총살, 교살한 수가 십여만에 이르고, 청년들의 유학을 금지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한국인이 일본의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던가 한국은 태평무사하다고 악선전한 것 등을 들었다.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동양평화가 영원히 파상(破傷)하여 수많은 인종의 장래 멸절을 가져올 것이므로” 그는 총살되어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그의 저격은 이처럼 이또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동양의 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논고(論告)였다. 「자전」은 이를 상설하는 장문의 글(한자로 3만3천 여 자)이었다.

안중근은 옥중에서 자전을 탈고한 후, 마지막으로 「동양평화론」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또 저격 이후 일본의 침략적 동양평화론 대신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함께 하는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법원 당국에 대해 집필 계

획을 알리고 탈고 후에 사형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수락을 받았다고 하지만 서문과 전감(前鑑) 밖에 쓰지 못한 상태에서 사형이 집행되어 미완고로 남았다. 다만 2월 17일(음력?) 히라이시(平石) 법원장과의 3시간의 담화를 통해 남겨진 내용이 있어 그의 구상을 대강 살필 수 있다. 두 가지를 종합하여 파악되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요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그는 이또 히로부미를 포함한 일본인들의 동양평화론은 일본이 주체가 되는 평화론으로 내용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침략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라고 통박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과 장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측과 견해를 같이 하였다. 러시아가 그동안 저지른 "폭행 잔해(殘害)는 서구와 동아에서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악이 차고(盈)과 죄는 넘친다(溢)"고 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일본이 나서 한국을 보호국화 하면서 행할 일이 아니라 한국, 중국과의 공조 협력을 통해서 달성할 일이라고 하였다. 일본은 응당 새로운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채택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1) 여순항을 중국에 돌려줘야 하며, (2) 여순항을 개방항구로 하여 거기에 일, 중, 한 3국 대표로 구성된 '동양평화회의'를 건립하고 은행을 설립하여 3국 통용 화폐를 발행해야 하며, (3) 3국 주요 지방에 '동양평화회의 지부'와 은행지행을 설립하여 산업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4) 그 다음에 인도, 태국, 월남 등의 나라들을 가맹시켜야 한다.

안중근은 세계가 서구 열강과 이를 모방한 일본에 의해 약육강식의 형태로 전개되는 것에 대해 강렬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동양의 나라들이 스스로 체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침략정책을 버려야 마땅하며, 지금까지 침략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한 이또 히로부미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본 것이다. 더욱이 그가 만주에 대한 이권 획득을 목적으로 만주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은 더 좌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끝으로 그는 일본이 바꿀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일본 국가를 대표하는 천황에게 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또 히로부미의 죄악」 15개조의 첫 머리에서 이또 히로부미 등 유신세력이 1867년에 메이지 천황의 아버지를 막부 지지파라고 하여 시살(弑殺)한 대역부도(大逆不道)의 죄를 첫 번째 죄목으로 들었다. 이 판단의 오류 여부 간에 그는 이또 등 일본정부의 수뇌부가 천황을 속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즉 러시아와의 개전 때 천황이 내린 조칙(詔勅)이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보장한다고 천명한 것에 대해 그는 긍정적이었다. 천황의 뜻은 그러한 데 이또 등 대신들이 왜곡하여 한국을 침략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한국의 유교 왕정의 전통에서 볼 때 국왕이 거짓 조칙을 내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 점은 안중근의 일본관의 한계라기 보다 표리가 부동한 일본의 정치적 생리에 허물을 돌려야 할 것이다. 안중근은 일본이 진정하게 국제정의의 편으로 되돌아 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에서 밖에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5. 맺음말

대한의군부 참모 중장 안중근이 거둔 ‘하얼빈 대첩’이 있는 지 99년이 된 시점에서 사건의 기본 성격을 재론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나 사회에 앞서 학계가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다. 위대한 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위대성이 왜곡된 상태에서 사회가 잘못된 칭송을 하도록 버려두는 것은 학계의 도리가 아니다. 학계가 무관심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다. 지금이라도 냉정한 마음으로 자성하면서 사건의 진상에 대한 진정한 연구 작업이 서둘러지기를 촉구해 마지않는다.

안중근의 사상에는 천주교 신자로서 새롭게 가진 국가관도 주목된다. 천주가 만든 세계에 대한 인식은 아마도 그의 평화론의 기저를 이룬 것이 아닌가 싶다. 그는 천주의 세계, 군주의 국가, 가장의 가족 셋을 나란히 놓고 그 속에서 인류가 산다고 보았다. 유교적 세계관과 윤리관이 천주교 신앙과 함께 저어없이 어울려 있는 모습이다. 이런 세계관과 윤리관으로 여순을 국제 평화 자유항의 중심이자 동아시아 단일 금융권 수립을 구상하게 되었다는 것은 천재성을 느낄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그가 단순한 애국 열사란 뜻의 ‘의사’란 칭호는 이에서도 부적하다. 황현(黃玹)이 『매천야록』에서 수많은 의전(義戰)의 소식을 전하면서 안중근에 대해서는 호칭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범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가져다 준 흰 한복을 입고 처형장의 의자에 앉아 담담한 표정을 짓고 그의 모습에서 있는 것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할 사상은 한둘이 아니다. 그는 시대를 뒤덮고 있는 약육강식의 검은 구름을 걷어내는 방책을 스스로 깨쳐 그 실행의 길을 열기까지 하였으므로 천주의 아들, 국가의 신민, 가장의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편안안 모습을 지었던 것은 아닐까. 위대한 군사 지휘관이자 위대한 역사의 교육자, 그에게 부여되어야 할 최소한의 호칭이 아닐까.

〈참고논저〉

金宇鍾 편, 『安重根, 和哈尔滨』, 흑룡강 조선민족 출판사, 2004.

滿洲日日新聞社, 『安重根事件公判速記録』, 1909

崔書勉, 「安重根自傳」 및 解説, 『外交時報』 No.1074, 197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안중근의사자료집』(1.대동위인 안중근전, 2. 안중근선생 공판기), 국학자료원, 1999.

신용하, 「안중근의 사상과 국권회복운동」, 『韓國史學』 2, 1980.

이태진, 「안중근-불의를 쏘 의병장-」 『한국사시민강좌』30, 일조각, 2002

市川正明, 『安重根と日韓關係史』, 原書房

佐木隆三, 『伊藤博文と安重根』, 文藝春秋社, 1992.

齋藤充功, 『伊藤博文を撃った男』, 時事通信社, 1994.

.01

간도지역 독립운동과 안중근이 지도한 의병전선

오 영 섭(연세대 연구교수)

간도지역 독립운동과 안중근이 지도한 의병전선

오 영 섭(연세대 연구교수)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고종세력의 의병추동과
동의회의 결성 |
| II. 간도 망명과 항일 방략의 전환 | V. 국내진공작전의 전개와 실패 |
| III. 연해주에서의 倡義활동과
계몽활동 | IV. 맺음말 |

I. 머리말

개항 후부터 경술국치 이후까지 한국의 근대화운동과 자주화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뉘대로 분투를 거듭하였다. 이들은 평소에 품고 있던 개인적 신념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열혈의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자신들이 속한 신분이나 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학문과 종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의 의롭고 순결한 생애는 자주화와 근대화에 실패하고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근대사를 영광스런 역사로 만들어 주고 있다.

안중근(1879~1910)은 개화기 한국의 시대적 과제인 근대화와 자주화의 실현을 위해 일신을 민족운동의 제단에 바친 인물이다. 여순감옥에서 순국하기 전까지 그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조국의 암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고생을 참아가며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내의 평안-황해도-서울 등지와 국외의 간도-연해주-여순 등지에서 천주교 포교활동, 계몽운동(학교운영·학회활동·국채보상운동·회사운영·언론활동), 항일의병운동과 비밀결사활동, 이토 히로부미 포살의거, 옥중 공판투쟁과 문필활동 등을 통해 자신이 지닌 이상을 실현시키려 하였다. 이로써 안중근은 천주교도, 계몽운동가, 의병운동가, 의열투쟁가, 평화사상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안중근이 벌인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하얼빈 역두에서 한민족의 원흉이자 근대 일본의 원훈인 이토 히로부미를 포살한 것이다. 이 의거는 일제침략에 신음하고 있는 한민족과 중국인들의 항일운동 전개와 민족의식 양양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다른 하나는 여순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이란 미완성의 짧은 논문을 통해 한·중·일 3국의 항구적 평화를 역설한 것이다. 이는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침

략을 비판하고 동양평화의 사상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주장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극동 3국의 평화와 우호 분위기 진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중근은 민족자주와 동양평화를 갈구했던 인물로 위대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안중근은 하얼빈의거 이후 법정공판에서 자신이 대한 의병의 參謀中將의 자격으로 독립전쟁을 일으켰음을 강조하였다.¹⁾ 이는 그가 민족운동의 방략상 의열투쟁에 속하는 하얼빈의거를 의병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우리는 안중근을 항일의병장이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가 연해주 일대에서 전개한 의병운동의 실상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얼빈의거를 구조적·계기적으로 이해하려면 그 의거의 前史에 해당하는 안중근의 의병운동에 대한 이해가 선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여기서는 안중근이 전개한 의병운동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려 한다. 나아가 그의 의병운동이 당시 서울의 민족운동세력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가 하는 점을 곁들여 설명하려 한다.²⁾

II. 간도 망명과 항일 방략의 전환

안중근이 해외로 망명하여 민족운동을 벌이게 되는 직접적 계기는 부친(安泰勳)의 친구 김진사(金達河)의 특별한 권유에 의해서이다. 1907년 봄에 안중근은 평양에서 식산활동과 국제보상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김진사가 안중근을 찾아와 “지금 백두산 뒤에 있는 서북간도와 러시아 영토인 블라디보스톡 등지에 한국인 100여만 명이 살고 있는데, 물산이 풍부하여 과연 한번 활동할 만한 곳이 될 수 있네. 그러니 그대 재주로 그곳에 가면 뒷날 반드시 큰 사업을 이룰 것이네” 라며 해외로 망명하여 민족운동을 벌일 것을 은근히 권하였다. 이에 안중근은 “꼭 가르침대로 수행하겠습니다”고 말하고,³⁾ 얼마 후에 일체의 사업을 접고 가족과 작별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안중근은 해외로 망명을 떠나기 전까지 서울에 머물며 김진사 주변의 인사들과 함께 활동하였다. 이로써 안중근은 러일전쟁 이후부터 추진해왔던 애국계몽운동 외에도 의병운동을 비롯한 새로운 항일노선을 수용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해 일제는 안중근의거 이후에 내사를 통해 해외 망명 직전 안중근의 서울에서의 행적을 대략이나마 밝혀냈다. 그간 안중근 연구가들이 간과한 아래의 중요 사료에는 해외 망명 직전 안중근의 활동상이 잘

1) 『한국독립운동사자료』(이하 『독운자료』로 줄임) 7, 국사편찬위원회, 1968, 313·333·385쪽.

2) 안중근의 의병운동을 다룬 연구로는 신용하, 「안중근의 사상과 의병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5; 조광, 「안중근의 애국계몽운동과 독립전쟁」, 『교회사연구』 9, 1994; 박환,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안중근」,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0, 2000; 신운용, 「안중근의 의병투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4, 2008.

3) 『안중근의사자서전』, 안중근의사숭모회, 1979, 111-112쪽.

나타나 있다.

명치 40년(1907) 3월 北間島에 있는 천주교 主神父 白某에게 의지하려고 신부 洪錫九로부터 서신을 얻고 간도로 가는 도중 경성에 逗留하여 중부 茶洞 金達河의 집에 寄寓하기를 수개월 其間 金宗漢·閔衡植·金世基의 子 某·李鍾乾·柳宗模(충청북도 黃澗사람)·安昌浩(平壤사람) 李東輝·姜泳璣(咸鏡南道 利原사람으로 西北學會支會長) 등과 친교를 맺고 志士로 자임하였는데 그가 간도에 가는 諸費 등은 前記 姜泳璣·金東億(김달하의 子) 閔衡植·李鍾乾 등이 지출하여 동년 6월 경성을 출발하여 김동억과 함께 북간도로 갔다고 한다.⁴⁾

위 사료에 의하면, 안중근은 첫째, 김진사와 만난 직후 북간도행을 결행하기 위해 원산의 브레신부 앞으로 보내는 빌렘신부의 소개장을 얻었으며, 둘째, 서우학회 발기인이며 나중에 서북학회의 총무를 지낸 김달하의 권고에 따라 서울로 올라가 그의 집에서 몇 개월간 머물렀고, 셋째, 한국을 떠나기 전에 김중환·민형식 등 고관들과 안창호·이동휘 등 서우학회(서북학회) 인사들과 친교를 맺고 활동하며 지사로 자임했으며,⁵⁾ 넷째, 목적지인 간도로 가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민영휘의 양자인 閔衡植과 김달하의 아들인 김동억 등으로부터 받았고, 다섯째, 간도로 떠난 때에 김동억과 동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들로 미루어 안중근의 해외 망명은 자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앙의 고관들과 서북학회-신민회계 민족운동자들과 연계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서북학회-신민회 세력은 그들의 이면 지지자들과 함께 신심이 두텁고, 무용이 뛰어나고, 항일성향이 강하고, 해서지방 출신으로 평양에서 활동하는 호협지사 안중근을 특별히 발탁했던 것이다. 그리고 안중근 자신은 민족운동 자금마련을 위해 석탄회사 三合義를 운영했다가 실패한 다음 항구 진로를 고심하고 있던 터였다. 이후 안중근은 연해주에 건너갈 때까지 김동억과 함께 행동을 함께 하였다. 이런 점에서 안중근의 간도행은 그의 애국지사로서의 품모와 서울에서 활동 중이던 우국인사들의 연대활동이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⁶⁾ 그렇기 때문에 일제는 안중근의거 이후에 서울의 서북학회 세력과 연해주의 동의회 세력이 기맥을 통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서북학회 세력에게 엄한 추궁한 가했던 것이다.⁷⁾

그런데 안중근의 해외 망명은 서북학회-신민회 세력의 해외 독립운동기지 개척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을사조약 이후 한국의 민족운동가들은 항일활동

4) 『독운자료』 7, 243-244쪽.

5) 안중근은 1907년 7월 이전에 서우학회에 가입하였다. 「제8회신입회원 입금수납보고」, 『西友』, 1907.7.

6)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선인, 2007, 250쪽.

7) 『要視察韓國人舉動』 3, 기밀 제78호, 「조선인 상황취조…건」(1909.11.25), 국사편찬위원회, 2002, 360쪽; 『齋藤實文書:민족운동1』, 『韓國獨立運動의淵源』, 고려서림, 1990, 362-363쪽.

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토지가 넓고 동포가 몰려있는 백두산-서북간도-연해주에 독립기지를 개척하려 하였다. 1906년 초여름에 신민회 초기세력으로 분류되는 이회영·이동녕·여준 등 이른바 상동파가 이상설과 이동녕을 간도 용정에 보내 독립기지를 개척하게 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⁸⁾ 다만 당시 신민회계 민족운동자들은 해외 근거지 개척운동 이후의 운동노선에 대해 계몽운동과 독립전쟁으로 갈려 이견을 보이고 있었다. 안중근이 서우학회에 가담한 다음 서울에서 서북학회세력과 친교를 맺었을 때 안창호가 “안중근은 우리 당에서 열렬한 사람으로 급진을 주장하며 오늘의 일은 의거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 성패를 물론하고 꼭 위대한 사업이 있을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망망 직전에 안중근은 의열투쟁이나 의병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냈던 것으로 보인다.⁹⁾

1907년 8월 1일¹⁰⁾ 남대문에서 한일병이 충돌하던 날 안중근은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 초량의 객주가에서 1-2일 유숙하고 神戸丸으로 원산으로 떠났다. 이미 그는 서울을 떠나기 직전에 군부 경기국장 이강하 집에서 아우 定根에게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상태였다.¹¹⁾ 원산 시장에서 5-6일간 머무는 동안 안중근은 누차 원산분당의 브레신부(白類斯, Aloysius Bret)를 방문하였다. 그는 시국문제에 대한 언급은 극력 피하고 간도로 건너가겠다는 의사만을 나타냈으나 브레신부는 간도는 아무런 취미가 없는 곳이라고 답하였다.¹²⁾

안중근은 돌아오는 8월 15일 교회기념일을 맞이하여 브레신부에게 성사를 청하였다. 그러나 황해도 의 빌렘신부를 통해 안중근이 반침략 민족운동에 투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브레신부는 “(안중근이) 어떤 정치적 선동에도 가담하지 않겠다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약속하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성사 요청을 거절하였다.¹³⁾ 당시 대부분의 천주교 선

8) 이정규·이관직, 『우당이회영약진』, 을유문화사, 1985, 30-31쪽.

9) 박은식, 『안중근』, 윤병석 편, 『안중근전기전집』, 국가보훈처, 1999, 287쪽. 안중근의 독립방략과 신민회의 독립방략의 관계에 대해, 신용하와 백기인은 “의병을 일으켜 독립전쟁을 주장하는 안중근의 독립전쟁전략은 그 후 신민회의 독립전쟁방략으로 더욱 발전되어 독립운동노선의 중추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안중근의 독립방략이 신민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신용하, 「안중근의 사상과 의병운동」, 157쪽. 백기인, 「안중근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1994, 27-28쪽). 이에 반해 한상권은 “안중근의 실력양성운동에서 무력투쟁으로의 전환은 신민회 인사들과의 교류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고 하여 안중근이 오히려 신민회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주장하고 있다.(한상권, 「안중근의 국권회복운동과 정치사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1, 2003, 57-58쪽). 이에 대해 필자는 안중근이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기지를 개척하려 했던 것은 신민회의 영향에 의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의열투쟁 및 의병운동 등 무장투쟁방략을 수용하는 데에는 신민회의 영향은 물론 을사조약 이전의 활동경험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는 동학도를 진압하고, 포군과 일상생활을 같이하고, 권총을 소지하고 다니며 평소부터 무력행사에 익숙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10) 서울을 떠난 일자에 대해 안중근 자신은 8월 2일, 계봉우는 8월 3일이라고 했으나, 군대해산으로 남대문에서 전투가 벌어진 날은 8월 1일이었다.

11) 『독운자료』 7, 394·404쪽.

12) 『독운자료』 6, 57쪽; 『독운자료』 7, 394쪽.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브레신부는 강력한 정교분리주의와 정치불간섭주의 선교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반해 안중근은 “국가 앞에는 종교도 없다”며 민족문제와 천주교신앙을 일치시켜 민족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삼으려 하였다. 이처럼 선교관과 정치관의 차이로 말미암아 브레신부는 안중근의 간도행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였다.¹⁴⁾ 그러므로 브레신부는 황해도의 빌렘신부에게 안중근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려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¹⁵⁾

안중근은 원산을 출발하여 8월 16일 북간도 용정에 도착하였다. 처음에 그는 간도에서 의병운동보다는 “민지개발을 통한” 계몽적 민족운동을 구상하고 있었다.¹⁶⁾ 그는 9~10월 2달간 龍井·佛洞 등지에 머물며 한인들의 생활상을 두루 시찰하며 국권회복을 권면하였다. 이때 그는 1906년 가을에 서전서숙을 개설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이상설을 만나러 때때로 용정촌을 방문하기도 하였다.¹⁷⁾ 그러나 이상설은 이미 헤이그특사 활동을 위해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났으며 서전서숙은 9월경 재정난으로 자진해서 문을 닫은 상태였다.¹⁸⁾ 이에 안중근은 개신교세가 강한 용정을 떠나 천주교도들의 집성촌인 불동의 남회장택에 주로 머물며 불동의 천주교도들을 인적 지원으로 삼아 민족운동을 추진하려 하였다.¹⁹⁾

불동과 용정에서 2달간 머문 후에 안중근은 간도에서 연해주로 건너가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간도를 떠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첫째, 간도에서 일제의 한인 민족운동자들에게 대한 감시와 탄압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중근은 운신하기가 힘들었다. 당시 일제는 8월 23일 간도침략의 교두보인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를 용정에 설치하여 간도 한인 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와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²⁰⁾ 둘째, 불동의 천주교도들이 천주교 신부의 정치불간섭주의를 추종하여 안중근의 민족운동에 동참 의사를 표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을 정도였다.²¹⁾ 불동의 천주교도들은 브레신부가 관할하는 원산교구의 영향력과 일제의 간도파출소의 감시 하에 살면서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개종한 이들이 많았다.²²⁾ 셋째, 간도 전역의 천주교도들의 숫자는 1912년경에도 1,500인에 불과하였다. 각지에 산재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민족운동을 원활히 수행하기는 어려운 문제였다. 따라서 안중근은

13) 『안중근(도마)의사 추모자료집』, 「조선교구통신문」(1909.11.7),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1990, 174쪽.

14) 윤선자, 「안중근의 애국계몽운동」, 『한국근대사와 종교』, 국학자료원, 2002, 199쪽.

15) 『독운자료』 7, 337쪽.

16) 『독운자료』 7, 404쪽.

17) 『독운자료』 7, 395쪽. 안중근은 이상설을 “기량이 크고 사리에 통하는 대인물”·“동양평화사상을 지닌 인물”이라며 가장 존경하였다. 『독운자료』 7, 408·418쪽.

18) 박주신,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서전서숙의 위상」, 『한국독립운동과 서전서숙』, 보재이상설기념사업회, 2007, 173-180쪽.

19) 『권업신문』, 「만고의사 안중근전④」, 1914년 7월 19일자; 『독운자료』 7, 395쪽.

20) 박주신,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서전서숙의 위상」, 175쪽.

21) 『권업신문』, 「만고의사 안중근전⑩」, 1914년 8월 29일자.

22) 『서울교구년보Ⅱ』, 「1909년도 보고서」, 명동천주교회, 1987, 69쪽.

간도를 떠나 연해주로 건너가 의병운동을 비롯한 새로운 민족운동 방략을 수립하였다.

나는 간도의 동포를 시찰하는 한편, 민지 개발을 꾀할 생각이며 의병을 일으킬 생각은 터럭만큼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지의 형세를 보니 날로 동포는 불행에 빠질 뿐이므로 부득이 의병을 일으켜 천하를 향해 伊藤이 韓民을 압제하는 것을 公表하고 한편으로는 일본 천황에게 伊藤의 정략에 韓民이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알리고 韓民이 일본의 보호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을 호소하려는데 있었다.²³⁾

이들테면 안중근은 처음에 간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계몽운동에 뜻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간도에서의 계몽운동이 여러 이유로 어려움에 부딪치고, 또 한국내의 현실이 나날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의병운동을 결심하게 되었다. 사실 안중근은 러일전쟁 이후에 보안회가 창설되었을 때에 서울로 올라가 보안회 회장 元世性을 방문하여 자신의 수하에 결사대 20명이 있으니 보안회가 장사 30명만 선출하여 도합 50인의 결사대만 있으면 혈전을 벌여 안으로 매국적을 죽이고 밖으로 하야시 곤스케를 도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하고 말았다.²⁴⁾ 그리고 1907년 7월 평양에 잠시 들렀을 때에 학도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기 위해 군기고의 무기를 이용하려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을 정도로 이미 의병운동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²⁵⁾ 따라서 이때 안중근으로서는 계몽운동과 의병운동과 의열투쟁 등 독립운동 방략들을 다각도로 고려하는 가운데 일단은 연해주에서 의병운동에 착수하기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판단된다.

안중근이 연해주에서 전개하려는 의병운동은 강력한 무력으로 일제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구축하고 자주국권을 확립하겠다는 독립전쟁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① 의병운동을 통해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민 탄압을 전세계에 알리고, ② 일본 천황에게 한국민이 이토 히로부미의 대한정략을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민이 일본의 보호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을 알리려 하였다. 이 점에서 안중근의 의병운동 구상에는 처음부터 일본 천황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토 히로부미의 대한정책만을 문제시하는 제한적이며 평화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주목된다.²⁶⁾

23) 『독운자료』 7, 394쪽.

24) 『대한매일신보』, 「안중근내력」, 1909년 12월 3일자; 『권업신문』, 「만고의사 안중근전④」, 1914년 7월 19일자.

25) 『권업신문』, 「만고의사 안중근전⑩」, 1914년 8월 29일자.

26)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의 대한정책만을 비판하고 일본 천황에게 기대를 표명한 점에 대해서는 오영섭, 「안중근의 정치체제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월례발표회 발표문, 2008년 6월, 제3장 참조.

Ⅲ. 연해주에서의 倡義활동과 계몽활동

안중근은 간도를 출발하여 함북 鍾城에 이르러 주막에서 자고 慶原에 이르러 5~6일간의 지낸 다음에 1907년 10월 20일 연해주 남단의 煙秋(현 그라스키노)로 들어갔다.²⁷⁾ 안중근이 도착한 연해주는 을사조약 이후 한국독립운동사에서 호수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 곳이었다. 이후 그는 한인이 운영하는 도주막에서 1~2일 숙박한 다음, 포시에트항에서 러시아 기선을 타고 10월 말경에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갔다. 이어 수청·우노르·소왕령·몬고계·아찌미·시찌미 등 여러 지방을 시찰하였고, 또 대도시 하바로프스크에 이르러 흑룡강을 배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였다. 이렇게 안중근은 4만 리를 돌아다니며 연해주에 현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²⁸⁾

연해주 일원에 대한 시찰성 유람이 끝나자 안중근은 각지를 돌아다니며 의병봉기를 촉구하고 교육발달과 실업진흥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였다. 당시 그는 그러한 연설활동을 “자신의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권유하였다”고 한다.²⁹⁾ 그런데 한말 의병장 중에는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에 무력투쟁의 한계를 절감하고 계몽운동으로 돌아선 이들이 많았다. 또한 고종 즉근의 항일대신이나 別入侍들의 경우 고종의 항일전략에 따라 처음부터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을 동시에 전개한 이들도 있었다.³⁰⁾ 그렇지만 안중근처럼 계몽운동에 종사했던 재야 인사가 다시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을 동시에 수행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연해주에서 안중근이 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을 동시에 벌인 것은 신민회 좌우파의 민족운동 노선이 안중근의 일신에 융화되어 실천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상호 대립적인 운동노선을 동시에 추구함에 따라 안중근은 의병장으로서의 선명성이나 투쟁성의 면에서 다소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

안중근은 간도에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다음 계동청년회에 가입하여 임시사찰로 활동하였다. 일제의 내사에 의하면, 계동청년회는 20세 이상의 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억압을 전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였다. 당시 계동학교 강당에서 열린 청년회 임시총회에서 ‘애골崔’라는 자가 규칙을 어겨가며 질의를 하고 사담을 하였다.³¹⁾ 이에 안중근은 그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귀뺨을 몇 대 맞고 컷병을 얻어 고생하기도 하였다. 이때 안중근은 사회가 운영되려면 여러 사람이 합심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폭행 사건을 대범하게 넘기는 도량을 발휘하였다.³²⁾ 이는 연해주 한인사회에서 안중근이

27) 『권업신문』, 「만고의사 안중근전④」, 1914년 7월 19일자.

28) 『독운자료』 7, 395쪽.

29) 『독운자료』 7, 235·436쪽.

30) 을미 춘천의병장 이소응의 의병운동에 깊이 관계한 주러한국공사 이범진공사의 경우 정미조약 후 연해주 한인들을 상대로 신문간행 지원, 논설 기고 활동, 의병후원 등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31) 안학식, 『의사안중근전기』, 만수사보존회, 1963, 59-60쪽.

40) 『안중근의사자서전』, 115-116쪽.

안착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제 1908년 4월 항일조직인 동의회가 조직되기 전까지 안중근이 전개한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의 구체상을 차례로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안중근이 전개한 의병운동이다. 간도에서 연해주로 건너온 안중근은 연해주 한인사회가 경계할 만한 낯선 인물이었다. 당시 연해주에는 일제 밀정이 횡행하며 유력한 재러한인들의 동태를 일본영사관에 날낫이 보고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은 재러 한인사회에 안착하기 전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을 것이다. 옥중에서 일제 검찰관의 심문에 대해 안중근은 “각지를 돌아다니며 의병을 일으키도록 권유하였으나 감히 의병을 일으킬 자가 없었다. 교육사업, 사업의 발전 등도 촉구하였다. 고로 나를 의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여 자신의 최초의 창의활동에 동참자가 거의 없었음을 토로하였다.³³⁾

창의활동에 돌입한 안중근은 1907년 11월경 연해주지역 의병운동의 거물인 李範允을 찾아갔다. 1902년 고종황제로부터 북간도관리사에 임명된 이범윤은 러일전쟁 때에 휘하의 충의대를 이끌고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이후 그는 자기를 따르는 일부 군사들을 거느리고 연해주로 망명하여 연추의 실력자 崔在亨의 식객으로 머물며 재차 창의를 모색하고 있었다.³⁴⁾ 안중근은 누차 이범윤을 찾아가 창의를 권하였다. 이때마다 이범윤은 창의 자체에는 동감을 표하면서도 재정과 군기를 마련할 길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그의 권유를 거절하였다.³⁵⁾

그런데 일제검찰관의 신문을 받을 때에 안중근은 이범윤이 자신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또 러시아에 대한 이범윤의 태도가 ‘러시아 일진회’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³⁶⁾ 이를 보면 안중근은 이범윤의 충군애국성은 인정하면서도 그의 친러적 외세의존성에 비판적 태도를 견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범윤은 서울과 연해주의 계몽운동자들과 친교를 맺는 안중근의 계몽성향이 미덥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 후인 1808년 봄에 안중근은 이범윤·유인석과 함께 블라디보스톡 일대에서 의병소모 활동을 벌이다가 의병운동에 반대하는 재러 한인사회의 계몽운동자들로부터 폄박을 받기도 하였다.³⁷⁾ 이를 보면 안중근과 이범윤은 1908년 4월 동의회 창립 전에 노선차이를 극복하고 일시 연대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1907년 겨울에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嚴仁燮·金起龍과 결의형제가 되었다. 이때 나이순으로 최재형의 조카인 엄인섭이 큰형, 안중근이 둘째, 평양 출신으로 안중근의 단지동맹원인 김기룡이 셋째가 되었다.³⁸⁾ 안중근은 이들과 함께 두터운 정을 나누면서 의거를 모

33) 『독운자료』 7, 405쪽.

34) 『독운자료』 7, 280-281쪽.

35) 『안중근의사자서전』, 118-119쪽.

36) 『독운자료』 7, 396·405쪽.

37) 조창용, 『海港日記』, 『한국학논총』 15,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92, 15쪽.

38) 『안중근의사자서전』, 119-120쪽; 『독운자료』 7, 267쪽.

의하였다. 또한 이들과 함께 각 지를 돌아다니며 재러한인들에게 본국의 불행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연해주와 한인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의 자서전에는 안중근이 재러한인들에게 한국내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의병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여기서도 안중근은 일제의 한국침략을 규탄하고 창의의 정당성을 천명한 다음, 침략정책의 최종책임자인 일본 천황을 비판하지 않고 이토 히로부미를 비판하였다.

현재 한국의 참상을 그대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일본과 러시아가 開戰할 적에 전쟁 선언하는 글 가운데 “동양평화를 유지하고 한눈독립을 굳건히 한다”고 했으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같이 무거운 의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한국을 침략하여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맺은 다음, 정권을 손아귀에 쥐고서 황제를 폐하고 군대를 해산하고 철도·광산·산림·천택을 빼앗지 않은 것이 없으며, 관청으로 쓰던 집과 민간의 큰 집들을 병참이라는 핑계로 모조리 빼앗아 거하며, 기름진 전답과 오랜 분묘들도 군용지라는 핏말을 쫓고 무덤을 파헤쳐 화가 백골에까지 미쳤으니, 국민된 사람으로 또 자손된 사람으로 어느 누가 분함을 참고 옥됨을 견딜 것입니까. 그래서 2천만 민족이 일제히 분발하여 3천리 강산에 의병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슬픔입니다. 저 강도들이 도리어 우리를 폭도라 일컫고 군사를 풀어 토벌하고 참혹하게 살육하여 두 해 동안에 해를 입은 한국인들이 수십 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강도를 뺏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폭도입니다. 제 나라를 지키고 외적을 막는 사람이 폭도입니다. 이야말로 도둑놈들이 막대기를 들고 나서는 격입니다. 한국에 대한 정략이 이같이 잔혹해진 근본을 논한다면 전혀 그것은 이른바 일본의 대정치가 늙은 도둑 伊藤博文의 폭행인 것입니다. 한국 민족 2천만이 일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하고, 그래서 지금 태평무사하며 평화롭게 날마다 발전하는 것처럼 핑계하고 위로 천황을 속이고 밖으로 열강들의 눈과 귀를 가려 제 마음대로 농간을 부리니 못하는 일이 없으니, 어찌 통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만일 이 도둑놈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한국은 꼭 없어지고야 말 것이며, 동양도 또한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³⁹⁾

나아가 안중근은 한국인들이 의병을 일으켜 애써 싸우기만 하면 세계열강의 공론도 없지 않을 것이며 독립할 수 있는 희망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 일본은 5년 내에 러시아·중국·미국 등 3개국과 전쟁을 벌일 것이므로 이때가 한국에게 독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독립의 기회가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본과 무력항쟁을 전개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안중근의 연설에 감화된 다수의 재러한인들이 혹은 자원하여

39) 『안중근의사자서전』, 123-124쪽.

출전도 하고, 혹은 무기도 제공하고, 혹은 군자금을 내어놓기도 하였다.⁴⁰⁾ 당시 ‘국가사상’이 박약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연해주 한인사회가 안중근에게 제공한 군자금은 4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¹⁾

다음, 안중근이 전개한 계몽운동이다. 안중근은 여러 동지들과 함께 연해주 곳곳을 돌며 교육발전과 산업진흥을 역설하였다. 이는 여러 곳에 학교가 설립되는 성과로 이어졌다.⁴²⁾ 이처럼 안중근이 창의활동과 교육·식산 진흥을 동시에 강조한 것은 장기간 철저히 준비하면 언젠가는 독립을 달성할 것이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그는 국내진공 작전을 앞두고 휘하의 의병들에게 “오늘은 군사들이 병약하고 늙은 사람이라도 좋다. 그 다음 청년들은 사회를 조직하고, 민심을 단합하고, 유년을 교육하여 미리 뒷날을 준비하는 한편, 여러 가지 실업에도 힘쓰며 실력을 양성한 연후에야 대사를 쉽게 이룰 것이다”고 하였다.⁴³⁾ 이는 연해주의병의 항일활동을 밑거름으로 국권을 회복하고 신사회와 신국가의 건설할 신세대가 태동하기를 기원한 말이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그 자리에 모인 병사들은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1908년 3월에 안중근은 연해주 한인사회의 인신통합을 강조하는 논설을 신문에 기고하였다. 당시 연해주 한인사회에는 생계를 위해 두만강을 넘어 정착한 다음 러시아에 편입된 원호인과 민족운동을 위해 연해주로 건너온 이주민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또한 민족운동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민들은 기호·평안·함북 출신 간의 지역감정, 군권주의자와 민권주의자 간의 정채관 차이, 계몽운동자(완진론자)와 의병운동자(급진론자) 간의 운동방략 차이에 따라 상호 대립하고 있었다.⁴⁴⁾ 이런 상황에서 안중근은 연해주 한인사회에 국권회복의 선결과제로서 인심단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함으로써 한민족의 독립운동에 필요한 정신적 통합을 이루려 하였다.

대저 사람이 천지만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삼강오륜을 아는 까닭이다. 그런 고로 사람이 세상에 처함에 제일 먼저 행할 것은 자기가 자기를 단합하는 것이요, 둘째는 자기집을 단합하는 것이요, 셋째는 자기 국가를 단합하는 것이니, 그러한즉 사람마다 마음과 육신이 연합하여야 능히 생활할 것이요. 집으로 말하면 부모 처자가 화합하여야 능히 유지할 것이요. 국가는 국민 상하가 상합하여야 마땅히 보전할지라.

40) 『안중근의사자서전』, 128-129쪽.

40) 『독운자료』 7, 235쪽.

42) 『권업신문』, 「만고의사 안중근전④」, 1914년 7월 19일자.

43) 『안중근의사자서전』, 131-132쪽.

44) 을사조약 후부터 한일병합 직후까지 연해주 한인사회의 민족운동에 나타난 노선차이에 대해서는 반병률, 「노령 연해주 한인사회와 한인민족운동(1905-1911)」, 『한국근현대사연구』 7, 1997, 79-95쪽.

슬프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참혹한 지경에 이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不洽病이 깊
이 든 연고로다. 불합병의 근원은 驕傲病이니 교만은 萬惡의 뿌리라...오늘날 우리
동포가 불합한 탓으로 삼천리강산을 왜놈에게 빼앗기고 이 지경이 되었도다. 오히려
무엇이 부족하며 어떤 동포는 무슨 심정으로 내정을 정탐하여 왜적에게 주며 충의한
동포의 머리를 베어 왜적에게 바치는가...여보 강동 계신 우리 동포 잠을 깨고 정신
차려 본국 소식 들어보오. 당신의 일가가 친척일가가 대한 땅에 다 계시고 당신의 조
상 백골 본국강산에 아니 있소. 나무뿌리 끊어지면 가지를 잃게 되며 조상 친척 욕을
보니 이내 몸이 영화될가 비나이다.

여보시오 우리 동포. 지금 이후 시작하여 不습 두 자 파괴하고 단합 두 자 急成하여
幼稚子姪 교육하고 노인들은 뒷배 보며 청년형제 결사하여 우리 국권 빨리 회복하고
태극기를 높이 단 후에 처자권속 거느리고 독립관에 재회하여 대한제국 만만세를 육
대부주 혼동하게 일심단체 불러보세.⁴⁵⁾

연해주 한인사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공포한 짧은 논설 「괴서」에서 안중근
은 단합의 요건으로서 3가지를 들었다. 그는 각기 일신과 가정과 국가가 제대로 보존되려면,
정신과 육신의 결합, 부모와 처자의 화합, 국민 상하의 결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이렇게 개인·가정·국가의 삼위일체의 단합을 강조한 것은 대한제국이
일제로부터 참혹한 침탈을 받고 국권을 상실한 원인이 다름 아닌 단합력의 부재에 기인한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그는 한국인의 단합심 부재 원인은 驕傲病에 있다고 하면서
교오병을 부르는 교만은 만악의 뿌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가정과 국가의 단
합심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개인의 교만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겸손
한 자세로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고, 책망을 참아내고 잘못된 이를 용서하고, 자기의
공을 타인에게 돌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감화될 것이라는 것이 안
중근의 주장이었다.

IV. 고종세력의 의병추동과 동의회의 결성

한말 20만의 한인들이 살고 있던 연해주는 고종세력이 한국독립운동의 전초기지이자 고
종의 망명지로 삼으려던 곳이다. 국내에서 고종세력(고종과 그 측근들)은 집사나 밀사를 통
해 지방 각 지에 있는 자기들 소유의 향제와 농장에 딸려있는 농민이나 포군을 대거 동원하
고, 친교가 있는 인근의 유력자와 부호들을 상대로 군자금을 얻어냄으로써 쉽게 의병을 일으

45) 『해조신문』, 「괴서」, 1908년 3월 21일자.

킬 수 있었다. 그러나 연해주는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낮은 곳이었다. 따라서 고종 세력은 을사조약의 강제 체결에 분노하는 재러한인의 항일열기를 수렴하기 위해 연해주에 인력과 자금을 집중적으로 보냈다.

을사늑약 이후 연해주의 한인들은 조약체결에 크게 분개하여 창의의 분위기가 일기 시작했다.⁴⁶⁾ 당시 연해주 남단의 연추와 블라디보스톡 북쪽의 수청 지역은 의병운동의 분위기가 강한 곳들이었다. 이들 지역의 항일열기는 1907년 7월 고종퇴위 이후 고종의 대리비밀외교를 수행하는 주러공사 이범진, 간도관리사 이범윤, 연추의 한인지도자 최재형의 연대에 의해 의병운동으로 수렴되었다. 이런 점에서 한말 연해주의병은 국내에서 결성된 대규모 연합의 진과 마찬가지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지키려는 고종세력과 연해주에 도착하여 原戶(元戶)로 불리는 재야세력 간의 연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때 이범진은 러시아 수도 뻬쩨르부르그에 머물며 의병의 전략과 자금을 후원했고, 이범윤과 최재형은 동의회 결성 이전까지 연해주 현지에서 군사를 규합하고 군수금을 모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⁴⁷⁾

친러 성향이 강한 이범진과 이범윤은 고종에게 충성을 바친 인물들로서 1908년 여름 연해주의병의 중핵에 해당한다. 세종대왕의 다섯째아들 광평대군의 후손인 두 사람은 을미의병운동 때부터 이미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였다. 한말 13도 창의대장 이인영⁴⁸⁾에 의하면, “을미년에 이범윤은 유인석과 같이 거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에서 유인석을 응원하며 유인석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였다.⁴⁹⁾ 이를테면, 이범진이 고종의 아관파천에 필요한 사전 정지작업으로서 을미의병운동을 기획·후원하고 있을 때에 이범윤은 서울에서 이범진의 지시에 따라 제천의 유인석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⁵⁰⁾

이범윤은 대한제국기에 간도시찰원(1902.6)·간도관리사겸산포사장(1903.7)으로서 한청 국경문제와 한인보호문제를 처리했다. 그러다가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휘하 포군들로 구성된 창의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가하여 아니시모프장군부대와 함께 함경북도에서 일본군을 물리쳤고, 전쟁 종료 후 잔여군사를 이끌고 연해주로 망명했다. 이후 그는 연해주 한인사회의 유력자인 연추 都憲 최재형의 물적 지원을 받아가며 의병운동을 모색하였다.⁵¹⁾ 그는 연추에 터를 잡고 각지의 동지들과 기맥을 통한 결과 산포수들이 포함된 소규모 의병단체를 거느리게 되었다.⁵²⁾

46) 『한인신보』, 「강동천해」, 1917년 10월 7일.

47) 연추 도헌 최재형이 초기 연해주의병을 후원한 것은 기실 이범윤보다는 그의 협력자인 이범진을 후원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범진의 배후에 있는 고종을 후원한 것이었다. 따라서 연해주의병은 고종세력의 대표자인 고종과 지방세력의 대표자인 최재형의 연합에 의해 결성되었음이 주목된다.

48) 이인영의 의병운동에 대해서는, 오영섭, 「한말 13도창의대장 이인영의 생애와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 2002, 201-236쪽.

49) 『한국독립운동사』 1, 「제이회 이인영문답조서」, 국사편찬위원회, 1965, 732쪽.

50) 이범진·심상훈 등 고종 측근들과 유인석 등 제천의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영섭, 「을미의병운동의 정치·사회적 배경」, 『국사관논총』 36, 1995, 238-251쪽.

51) 정제우, 「연해주 이범윤 의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1997, 2-6쪽.

이범윤은 의병과 군수전을 모을 때에 자신과 고종과의 관련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이범윤은 간도관리사 시절에 고종이 하사한 鎡尺과 馬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의병을 소모하고 격문을 발송할 때에 이것들을 사용했다.⁵³⁾ 아울러 1907년 2월 이전에 그는 중앙으로부터 고종 황제 명의를 밀지를 받았다. 두말 할 것도 없이 그는 밀지가 지닌 고종의 권능을 십분 활용했다. 이범윤은 엄인섭을 비롯한 부하들을 데리고 블라디보스톡에 나타나 자신에게 고종의 밀착이 있음을 자랑하며 일진회원을 공박하는 광고문을 한인 거주지에 내걸고, 일본정부의 조치에 찬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귀천과 노소를 막론하고 심하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⁵⁴⁾

1907년 여름에 이범윤은 서울로 2명의 밀사를 보냈다. 그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항일운동을 주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고종에게 자금지원과 권한위임을 요청하는 서한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 대리인을 파견했던 것이다. 이범윤의 수하들은 서울의 러시아공사관에 나타나 이범윤의 서한을 고종에게 직접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플란손공사를 통해 올려야 하는지를 문의하였다. 그러나 한국황제가 부여하는 권한은 서울주재 러시아총영사가 증명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플란손공사의 만류로 고종에게 서한을 올지는 못하였다.⁵⁵⁾

1907년 봄부터 겨울까지 이범진은 이범윤·엄인섭 등 연해주 의병의 중추인사들과 자주 서한을 주고받으며 국사를 개탄하고 국권회복의 방책을 강구했다. 일본군이 연해주 의병을 진압하면서 노획한 이범진의 서한들은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된 『不逞團關係雜件』에 일어로 번역·수록되어 있다. 이것들을 보면, 이범진은 각각 1907년 4월 28일(아력) 조창호에게, 6월 10일(아력) 엄인섭에게 답신을 보냈다. 이들 서한들은 비밀엄수를 위해 항상 연해주 군무지사 홀우그소장의 손을 경유하여 전달되었다. 여기에서 이범진은 이미 이범윤(‘管理年鑑’)의 서신을 통해 양인의 활약상을 잘 알고 있다며 양인의 구국 활동을 격려하고 계속 동심동력하여 국가의 원수를 갚고 국권을 회복하자고 역설했다.⁵⁶⁾

이범윤이 막하의 엄인섭·안중근 양인에게 보여준 이범진의 친필 편지에는 “연해주 방면에서 동지들을 연락하여 두만강을 넘어서 일거에 함경도를 점령하고 길게 달려서 서울로 들어가 개선가를 부르자. 러시아 관헌들은 항상 우리를 후원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 편지에는 이범진 자신이 총사령관이 되고 이범윤이 부사령관이 되어 국내로 진공할 것을 천명하고 있었다.⁵⁷⁾ 이범진은 또한 1907년 9월 30일자 엄인섭의 편지에 대한 11월

52) 『한인신보』, 「강동원해」, 1917년 10월 7일.

53) 『통감부문서』 5, [노국영토내의 한국인 비도상황 보고 건], 311-312쪽.

54) 『통감부문서』 3, [원간도관리사 이범윤에 관한 건](1907.5.14), 165-167쪽. 엄인섭 명의를 「광고」는 1907년 2월 27일자이다.

55) 『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독립운동』, [이범진 외교자료], 「이범윤에 관한 플란손 한국 주재 총영사의 정보」(1908.5.24), 외교통상부, 2002, 212-213쪽.

56) 『불령단관계잡건』, 재서비리아5, 「배일선인 이위중에 대하여」.

10일(아력)자 답신에서 엄인섭이 서울에 다녀오느라 고생한 점을 위로한 다음, 자신과 아들 이위중은 현재 생사를 가리지 않고 주야로 국사에 매진하고 있는데, 대궐(‘內裏’)에서 내려준 ‘하사금’을 중간에서 사기당했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니, 진위 여부를 상세히 조사하여 비밀리에 위에다 통보하라”고 하였다.⁵⁸⁾

상기 서한들의 내용으로 미루어 1907년경부터 빼빼르부르그의 이범진과 연해주의 이범윤은 연해주의병의 결성을 위해 이면에서 활발히 움직였을 뿐 아니라 1907년 가을에 고종이 거액의 군자금을 연해주지역에 하사했음을 알 수 있다. 고종의 하사금을 중간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가 없지만, 고종이 의병을 후원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고종의 군자금 하사는 곧바로 최재형같은 연주 지역 재야세력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촉매제로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인섭이 고종에게 받은 군자금을 사기당하면서 이범진의 연해주의병 결성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연해주의병의 결성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자 이범진은 직접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그는 1908년 2월경에 아들 이위중과 사돈 놀켄 남작에게 1만 루블을 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이범윤의 의병활동을 후원하게 하였다.⁵⁹⁾ 그런데 이범진이 이위중에게 내려준 1만 루블은 고종의 내탕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을사늑약 후 재정형편이 곤란하여 누차 러시아정부에 생활자금을 간청했던 이범진이 아들에게 내려준 1만 루블이란 거액은 1905년 11월 초에 고종의 친서를 니콜라이황제에게 전달하기 위해 빼빼르부르그에 당도한 외교특사 현상건이 고종의 지급 보장 하에 상하이주재 露淸은행으로부터 빌린 1만 루블이거나,⁶⁰⁾ 1905년 12월 31일 빼빼르부르그에 당도한 고종 측근 이용익이 소지하고 있던 고종의 내탕금의 일부일 것이다.⁶¹⁾ 하여튼 이범진이 연해주에 보낸 1만 루블이란 자금은 연해주의 항일세력들이 의병을 결성하여 국내진공작전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⁶²⁾

이범진의 지원금이 연해주에 전해진 후에 의진결성 노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08년

57) 『불령단관계잡건』, 재서비리아5, 「배일선인 이위중에 대하여」. 당시 안중근은 항상 자신을 ‘황족’이라고 칭하는 이범진이 러시아황제의 힘을 빌어서 한국의 현황제를 폐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이범진을 ‘謀反人’이라고 칭하며 분개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범진이 군자금을 보내어 의병을 돕겠다고 누차 언명함으로써 이범진에 대한 혐의를 풀었다고 한다.

58) 『불령단관계잡건』 재서비리아5, 「배일선인 이위중에 대하여」.

59) 『불령단관계잡건』, 재서비리아5, 「배일선인 이위중에 대하여」; [이범진 외교자료], 서한:내무장관->외무장관 이즈볼수키(1908.7.5), 215-216쪽.

60) [이범진 외교자료], 「과블로프의 비밀전보」(1905.11.7), 197쪽; 同, 서한:외무장관->주청공사 쉬보프(1905.12.29), 198쪽. 고종황제는 1909년 2월 현재 상해 露淸은행에 30만엔을 예치중이었다. 『재러시아 한국관계 문서요약집』, 공문:서울 러시아총영사관->블라디보스톡 러청은행지점장(1909.2.11), 438쪽.

61) 『재러시아 한국관계 문서요약집』, [이용익 저격범 김현토 사건], 238쪽.

62) [이범진 외교자료], 보고서:남우수리 국경행정관 스미르노프->연해주 군총독 플루구(1908.4.3), 207쪽.

2~3월경 이범진의 대리인 이위중, 이범진의 협력자 이범윤, 황실친위대 參領출신의 金仁洙은 계몽세력이 강하여 의병운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블라디보스톡에 나타나 의병소모활동과 軍器마련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었다.⁶³⁾ 또한 3월말에 이범윤은 김인수와 함께 연해주 군총독을 찾아가 “일본인의 압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압수당한 한국 의병의 무기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다.⁶⁴⁾ 그리고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1808년 봄에 안중근은 이범윤·유인석과 함께 블라디보스톡 일대에서 의병소모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1908년 4월경 연추의 최재형집에서 연해주 일대에 산재한 의병운동자들의 회합이 열렸다. 이때 동의회의 조직이 논의되었다. 동의회의 발기인들은 池云京·張鳳漢·全濟益·全濟岳·李範允·李承浩·李君甫·崔才亨·嚴仁燮·安重根·白圭三·姜議官·金吉龍·李璋鍾·趙順瑞·張奉金·白俊成·金致汝 등 18인이었다. 이어 수백 명의 동지들이 참석한 총회에서 총장·부총장·회장·부회장 및 기타의 임원선거를 실시한 결과 총장에 최재형, 부총장에 이위중이 선출되었다.⁶⁵⁾ 부총재 선거에서 53살의 독자 세력을 지닌 이범윤이 연해주에 처음 나타난 23살의 이위중에게 밀린 것은, 강의관⁶⁶⁾처럼 고종세력의 수하로 추정되는 인사들과 안중근처럼 서북학회와 관련된 인사들의 지지를 받는 연추의 지배세력인 최재형계가 이범윤보다는 이범진을 지지한 결과였다.⁶⁷⁾

동의회 임원선출에서 한 표 차이로 부총장에서 밀려난 이범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범윤이 “수 년간 국사를 위해 진력했는데도 명성도 없고 나이도 어린 조카보다 뒤졌다”며 분노를 나타내자 이범윤세력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위중이 급히 단상에서 내려와 이범윤에게 부총재를 사양하여 사태가 진정되었다. 이후 실시된 회장 이하의 선거에서 회장에 이위중, 부회장에 엄인섭, 서기에 백규삼, 평의원에 발기인 전부가 선출되었다. 선거 후에 이범윤 일파는 고종황제의 밀지를 소지한 이범윤을 반대한 9인(안중근·지운경·장봉한·전제익·전제악·백규삼·姜議官·김길룡·엄인섭)을 ‘어명을 어긴 모반인’이라고 몰아붙이는 첩지를 곳곳에 붙였다.⁶⁸⁾ 이는 연해주 의병의 중추세력인 이범진·이범윤 세력이 갈등양상을

63) [이범진 외교자료], 보고서:남우수리 국경행정관 스미르노프->연해주 군총독 플루구(1908.4.3), 207쪽.

64) [이범진 외교자료], 보고서:남우수리 국경행정관 스미르노프->연해주 군총독 플루구(1908.4.3), 208쪽.

65) 『불령단관계잡건』, 재서비리아5, 「배일선인 이위중에 대하여」.

66) 姜議官은 1908년 4월에 참봉 첩지를 가지고 다니며 모금행위를 했던 ‘姜承旨’로 보인다. 그런데 그가 가진 첩지는 고종의 최측근이자 이종사촌인 궁내부대신 沈相薰이 발행한 것이었다. 『희조신문』, 1908년 4월 1일. 그런데 을미의병 때에 서울의 심상훈과 제천의 유인석 사이에 연락을 전담했던 심상훈의 양아들 沈理燮은 1908년 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또 심상훈의 서자 沈璋燮은 을사조약 이전에 러시아에서 주러공사 이범진 밑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했다. 이를 감안할 때 심상훈을 빙자한 ‘姜승지’의 모금행위는 『희조신문』의 보도처럼 단순한 협잡행위만은 아니었음이 주목된다.

67) 서북학회 계열이 이범진·이범윤 등과 “기맥을 통한” 사실에 대해서는, 『요시찰외국인의 거동관계잡록』, 「한국인의 부」 9.

보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주도권 장악에서 비롯된 여러 세력 간의 갈등양상은 이후 연해주에서 벌어진 독립운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범윤계가 동의회를 이탈하는 우여곡절을 거친 다음, 1908년 5월에 최재형의 집에서 동의회가 조직되었다.⁶⁹⁾ 동의회는 이주한인들의 조국정신 배양, 결속 도모, 환난 구제를 표방하며 결성된 단체였다. 그러나 5월 10일자 『해조신문』의 「동의회취지서」에서 동의회는 위로는 국권이 소멸되고 아래로는 민권이 억압당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통탄한 다음, “금일 시대에 교육을 받아 조국정신을 배양하고 지식을 밝히며 실력을 길러 단체를 맺고 일심동맹을 이루는 것이 제일 방침”이라 하였다. 이어 말미에는 “철환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가 독립기를 크게 쓴다”고 하였다. 동시에 동의회는 실질적으로 항일의병을 위한 결사의 성격이 강한 단체였다.⁷⁰⁾

동의회는 이범진·이범윤·이위중 등 서울에서 내려온 고종세력들과 최재형·엄인섭 등 연해주의 재야세력들이 대거 합세하여 조직한 연합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회는 임원직(총재단·회장단)은 고종세력(이범윤·이위중)과 재야세력(최재형·엄인섭)이 절묘하게 양분하여 가졌다. 그러나 재야세력이 최재형의 일족으로 구성되어 결속력이 강했던 반면, 이범진계와 이범윤계로 구성된 고종세력은 의진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양상을 보였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의 서북학회 인사들과 연계한 이범진계가 최재형세력을 지지함에 따라 이범윤세력은 동의회 결성 직후에 동의회를 이탈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성 초기의 동의회는 한말 대규모 연합의진의 경우처럼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의 연합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동의회 내에서 안중근의 위상은 후원자 최재형, 결의형제 엄인섭의 지위와 연동되어 있었다. 안중근은 연해주 각지에서 의병봉기·교육진흥·산업진작·인심단합 등을 역설함으로써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리하여 동의회 발기인 18인의 명단에 오를 정도로 연해주의 무장투쟁론자들로부터 일정한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는 연해주의병의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수청파의 주요 인사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동의회 총재를 선출할 때에 안중근은 엄인섭·김기룡과 함께 최재형을 추대하였고, 다른 발기인들과 함께 동의회 평의원에 임명되었다.⁷¹⁾ 이로 인해 안중근은 최재형세력이 국내진공작전을 결행할 때에 우군장의 중임을 맡아 활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1908년 여름 연해주지역의 의병운동은 고종황제의 항일운동

68) 『불령단관계잡건』, 재서비리아5, 「배일선인 이위중에 대하여」.

69) 동의회 결성에 투여된 군자금은 이위중 1만 루블, 최재형 3천 루블, 蘇城 방면의 기부액 6천 루블, 총기 약 1백정 등이었다.

70) 박민영, 「한말 연해주 의병에 대한 고찰」, 79쪽.

71) 『독운자료』 7, 244쪽.

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당시 고종과 이범진은 주한프랑스공사관이나 상해주재 구미공사관을 통해 비밀 전보와 서한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들이 강구하는 국권수호전략의 궁극목표는 러시아정부를 상대로 한국의 국권을 수호해달라고 하는 대외청원외교를 성사시키거나, 국내 춘천·평양 등의 보장지나 러시아 연해주로 고종의 파천이나 망명을 단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범진은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한 연해주지역의 재야세력으로 하여금 의병을 규합하여 국경으로 진공토록 하였다. 이는 동양의 전통적 병략술인 聲東擊西戰略을 성사시키려는 것이었다. 실제로 1908년 가을에 고종은 육로나 배편으로 연해주로의 망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⁷²⁾ 고종의 망명운동은 이범진의 연해주의병 후원활동과 긴밀한 연관 하에 추진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고종과 이범진 등이 짜놓은 항일구국방략의 구도 속에서 안중근은 의병운동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⁷³⁾

V. 국내진공작전의 전개와 실패

연해주지역의 의병활동은 동의회가 결성된 1908년 4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동의회 창설 당시에 대립을 보였던 최재형계와 이범윤계는 이범윤의 부하들이 동의회 무기고를 습격하여 총기를 탈취해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불화를 접고 협력하게 되었다. 당시 안중근을 비롯한 소성과 인사들이 크게 분노하여 일거에 이범윤파를 제거하려 하여 사태가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재형과 이위중은 이범윤파의 행위가 국사를 위한 지나친 열성에서 나온 것이며, 왜적 앞에서 형제간에 다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무마함으로써 사태가 해결되었다. 이는 연해주의병의 지상과제인 국권회복의 당위성 앞에서 상호간 대결의식을 버리고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계기로 이어졌다.⁷⁴⁾

최재형의 동의회와 이범윤의 창의회를 비롯한 연해주의병은 국내진공작전을 구상하였다. 이들은 국내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의병운동을 원거리에서 호응하기 위해 국내로 진공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연해주의병은 중·러 국경지대의 훈춘과 간도를 거쳐 두만강의 산악지대로 이동하여 국내의병과 합동작전을 펼침으로써 일제를 한반도에서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들은 무산시와 회령시를 차례로 장악하고, 나아가 두만강 상류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⁷⁵⁾ 이미 소규모 한인의병들이 두만강을 건너 일본병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연해주의병은 북간도 일대에서 무기를 활발히 구

72) 박종효 편역,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련 문서 요약집』, 말레비치->외무성 비밀전문 (1908.11.20), 74쪽. 당시 동경주재 러시아공사 말레비치는 고종의 러시아 망명은 러일관계의 긴장을 비롯하여 극동정세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좌절시켜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73)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36-43쪽.

74) 신운용, 「안중근의 의병투쟁과 활동」, 21-22쪽.

75) 『독운자료』 34, 국경수비대원->연해주 군총독(1908.4.5), 12쪽.

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연해주 의병의 국내진공작전은 일본군과 러시아군의 각별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⁷⁶⁾

1908년 5월 동의회가 결성된 시점을 전후하여 안중근은 홍범도의병과 연합작전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1908년 봄에 그는 함경북도에서 거병하여 활동하고 있는 洪範道로부터 회견 요청을 받고 갑산으로 가서 홍범도·차도선 등의 의병장을 찾아보았다.⁷⁷⁾ 그러나 홍범도가 일본군에게 쫓기는 신세라 만나지 못하고 말았다. 6월에 안중근은 홍범도가 회령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홍치범·윤치중·김기열과 함께 홍범도를 방문하여 하룻밤을 유숙하면서 단발자나 일본 양민을 함부로 살해해서는 안된다고 설득하였다. 이때 안중근은 홍범도가 “無學으로 시세에 통하지 못하나 인군에 대한 충성을 가장 깊고 또 청렴하여 양민의 재물을 침탈하지 않는다”고 평하였다.⁷⁸⁾ 이로써 안중근은 ‘時勢에 不通’한 홍범도가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연대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

거의를 준비할 때에 연추 부근에서 안중근은 의병총독 김두성으로부터 노령지역의 의병사령관으로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⁷⁹⁾ 이에 대해 안중근은 “그때 거의를 준비할 때 金斗星과 李範允 등이 모두 함께 의병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은 전일에 이미 總督과 大將으로 피임된 이들이요, 나는 參謀中將의 책으로 피선되어 의병과 군기 등을 비밀히 수송하여 두만강 근처에서 모인 다음 대사를 모의하였다”고 하였다.⁸⁰⁾ 그런데 안중근에게 참모중장이란 직함을 내려준 연해주 의병의 총사령관 김두성에 대해서는 실존인물이라는 설과 유인석일 것이라는 설이 엇갈리고 있다.⁸¹⁾

안중근의 직속상관인 의병총독 김두성은 실존인물일 가능성이 다소 높은 편이다.⁸²⁾ 실존 인물로서 金斗星(1867년생)은 1904년 6월 이승재·오영조·오주혁 등과 함께 한일의정서 배척통문을 각지에 발송했다가 일본측에 체포·투옥되었다. 그는 중추원 의관, 내장시 수문과 및 봉상시의 주사를 역임했다.⁸³⁾ 그리고 그의 항일동지 오주혁은 군대해산 이후 연해주

76) 『독운자료』 34, 「한국과 만주 국경에 대한 보고」(1908.7.15), 26쪽.

77) 『독운자료』 7, 396쪽.

78) 『독운자료』 7, 398·406·434쪽.

79) 『독운자료』 6, 333쪽.

80) 『안중근의사자서전』, 130쪽.

81) 신용하는 실존설을, 조동걸은 유인석설을 주장하였다. 조동걸, 「안중근의사 재판상의 인물 金斗星考」, 『한국 근현대사의 이상과 형상』, 푸른역사, 2001, 123쪽; 신용하, 「안중근의 사상과 의병운동」, 163쪽.

82) 유인석설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는 “김두성이 강원도인이다”는 안중근의 진술과 허위·민공호 등을 거느릴 사람은 고령의 유인석밖에 없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안중근은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을 평하는 자리에서 이상설과 최익현을 극찬했던 반면 유인석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혹평을 가하였다. 또한 그는 계몽성향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에 유인석같은 척사파에 찬동했을 이유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김두성이 유인석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8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4, 「의정서 배척운동자 覈辦件」·「한일의정서 반대운동자 李承宰·吳周赫·吳永祚·金斗星 등의 청취서」, 42-86, 107-112쪽.

에서 민족운동을 활발히 벌이며 거물급 인사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金賢峻(영남·충북)·劉秉淇(호남)·朴忠保(관북)처럼 고종세력의 밀사로서 지방에 내려가 재야의병의 전략·전술을 통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이면에서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⁸⁴⁾ 이때 김두성이 전국 의병을 총괄하는 총독의 자격으로서 안중근에게 ‘참모중장’·‘노령부근 의병사령관’ 등의 직함을 내려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서울의 고종세력으로부터 재야의병을 통괄할 수 있는 밀지나 그에 준하는 신물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미루어 의병운동-의열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안중근은 서울의 서북학회-신민회계 인사들과 고종황제를 비롯한 고종세력으로부터 이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연해주의병의 국내진공작전은 해상과 육상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해로의 경우 약 600명의 의병이 두만강 하구 녹둔에서 중국 선편을 이용해 청진과 성진 사이의 해산으로 상륙하였다.⁸⁵⁾ 육로의 경우 안중근을 비롯한 동의회의병은 지신허를 출발하여 두만강을 건너 洪儀洞과 新阿山 을 거쳐 회령에서 무산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택하였다.⁸⁶⁾ 하여튼 이범윤의 창 의회의병과 최재형-이위종의 동의회의병은 두만강 상류지역으로 진출하여 장기적인 항일전을 수행할 근거지를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의회의병의 국내진공작전은 7월 3일경⁸⁷⁾에 개시되었다. 이때 함북관찰부 경무관 출신인 회령 태생의 전제익이 통솔하는 동의회의병 2~300명은 두만강을 국내로 진격하였다. 이때 안중근은 50명의 의병을 직속군으로 거느리고 있었다. 동의회의병은 목호우(포시에트)에서 야음을 틈타 목선을 타고 밤이 깊어 두만강변에 있는 경흥군 홍의동에 상륙하였다. 당시 의병의 직임은 다음과 같았다.

도영장 : 全濟益

참모장 : 吳乃凡 참모 : 張鳳漢 · 池云京

군 의 : 미궁에서 온 후 일본병에게 체포되어 총살당함

兵器副將 : 金大連 同 副長 : 崔英基

경리부장 : 姜議官 同 副長 : 白圭三

좌영장 : 嚴仁燮

제1중대장 : 김모, 제2중대장 : 李京化, 제3중대장 : 崔化春

우영장 : 安重根

제1중대장 이하 중대장 3인 성명 미상⁸⁸⁾

84)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43-49쪽.

85) 『독운자료』 11, 459쪽.

86) 신운용, 「안중근의 의병투쟁과 활동」, 28쪽.

87) 출동일에 대해 안중근은 음6월5일(양7/3), 계봉우는 6월 4일, 일본측은 6월 6일이라고 하여

88) 『불령단관계잡건』, 재서비리아5, 「배일선인 이위중에 대하여」.

그런데 의병진의 한 축을 맡은 장수로서 안중근의 의진내 위상은 그리 높지 못했던 것 같다. 그에 의하면, ‘연해주 한인들은 기풍이 완고하여 권력자나 재산가, 주먹이 센 사람, 관직이 높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을 쳐주는 경향이 있는데’ 안중근은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았다. 따라서 군사활동 초기에 안중근은 병사들이 자신의 계몽사상이 가미된 창의연설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생각하여 물러나려 하였다.⁸⁹⁾ 그러나 이미 군사활동에 돌입한 터인지라 어찌할 수 없어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이처럼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병사들이 안중근의 발언을 문제시하며 불만을 토로한 것은 안중근의병의 패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7월 7~8일경에 동의회의병은 경흥군 홍의동의 산골짜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새벽녘에 남방으로 오는 일본군 척후병 4명을 기습하여 사살하였다.⁹⁰⁾ 이 홍의동전투는 7월 10일 오내범부대가 치른 신아산전투와 함께 동의회의병이 승첩한 전투였다. 그런데 승첩의 분위기에 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전진을 막으려면 척후병을 공격해야만 한다는 엄인섭의 주장과 4명의 척후병을 죽이는 것은 최대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병의 전진을 막은 것이라는 안중근의 주장이 엇갈려 엄인섭이 공동 군사작전을 철회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떠나 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났다.⁹¹⁾ 이로 인해 전투력이 분산된 동의회의병은 의병진압을 위해 전력을 보강한 일본군을 대적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이때 의병의 기세에 놀란 일제는 7월 10일 70여 명의 증원군을 경성에서 경흥으로 보내 의병을 진압토록 함으로써 동의회의병은 어려운 처지에 봉착하게 되었다.

홍의동전투 이후 안중근은 일본 군인과 상인을 사로잡았다. 그는 이들에게 천황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역적이나 강도처럼 동양을 침략하는 행위를 범하지 말 것을 훈계하고 무기를 주어서 풀어주었다. 그가 이들을 풀어준 것은 만국공법에서 사로잡은 적병을 죽이지 않는다는 구절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안중근 휘하의 장교들은 풀려난 일본인들이 의병의 위치를 일본군에게 알려줄 것이라는 우려에서 불평을 토로하였다. 이에 일부 장교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떠나버렸다.⁹²⁾

일본군의 추격과 장교들의 이탈로 내우외환에 처한 동의회의병은 지형이 익숙한 무산방면으로 퇴각하여 진용을 정비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를 몰아 회령 영산 부근에 이르러 이범윤의 부장 김모부대와 합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전제익과 김모 간에 서로 대장이 되려고 하는 주도권 경쟁으로 인해 합진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어 7월 20일경에 동의회의병은 일본군의 습격을 받고 전투다운 전투도 치르지 못하고 크게 패전하고 말았다.⁹³⁾ 이로써 안중근

89) 『안중근의사자서전』, 131-133쪽.

90) 『독운자료』 11, 450·456쪽.

91) 『독운자료』 7, 435쪽.

92) 『안중근의사자서전』, 133-141쪽.

93) 『독운자료』 7, 435쪽.

의 의병운동은 실질적으로 종식되고 말았다.

IV. 맺음말

안중근은 1908년 7월 군대해산 이후에 해외로 망명하여 간도를 거쳐 연해주에서 항일의 병운동을 벌였다. 그가 전개한 의병운동은 의병지도부의 단결력 박약과 장기 전략 부재, 군사들의 훈련부족과 무기열세, 러시아 지방정부의 비협조 등으로 말미암아 두드러진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그의 의병활동은 이토 히로부미를 포살한 하얼빈의거의 前史에 해당할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다.

첫째, 안중근의 해외 망명과 간도·연해주에서의 계몽운동 참여는 서북학회세력과 일정한 연관이 있었다. 그는 평양으로 자신을 찾아온 서북학회 총무 김달하의 권유에 따라 서울로 올라가 서북학회-신민회계 인사들과 몇 달간 친교를 맺은 후에 김달하의 아들과 함께 해외 망명길에 올랐다. 이는 서북학회-신민회 세력이 해외근거지 개척운동을 추진할 때에 안중근이 중요 인적 자원으로 발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안중근의 해외에서의 민족운동은 서북학회-신민회계와 일정한 연관을 맺고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안중근의 의병운동은 정치적 민족운동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었다. 형태상으로 그것은 연해주에 일어난 무장부대가 두만강을 건너 서울진공작전을 펼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두만강 일대에서 벌어진 재야세력의 단순한 군사활동이 아니라 고종의 국내외로의 파천·망명이나 대외청원운동을 재야에서 후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해주 의병운동의 총괄 기획자인 주러공사 이병진은 고종의 파천이나 망명을 성사시키기 위해 연해주의병으로 하여금 한러국경에서 무력시위를 전개토록 하는 성동격서전략을 구상했던 것이다. 따라서 안중근의 의병운동은 국권 수호를 위해 황제파천운동·대외청원운동·항일의병운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던 고종의 구국방략과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

셋째, 안중근은 연해주에서 서로 대립적인 운동방략인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그러므로 안중근의 연해주 활동을 언급할 때에 의병운동과 의열투쟁만을 강조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한 셈이다. 안중근은 의병운동 중에도 그리고 의병운동이 종식되고 재차 창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안중근은 계몽운동세력과 의병운동세력이 확연히 구분되는 연해주 한인사회에 완전한 정착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을 보내야만 했다. 바로 이 점이 안중근의 의병운동에 나타난 취약점을 설명해주는 단서라고 생각한다.

넷째, 안중근의 의병운동은 독립전쟁을 통해 한반도에서 일제를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독립전쟁론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는 의병투쟁이 단기간에 성공을 거둘 수 없음을 자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계몽운동이 포함된 대일항쟁을 장기간 지속하면 언젠가는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계몽운동자의 입장에서 한말 의병운동의 진로를 제안한

것이다. 더욱이 그는 모병 연설에서 일체의 최종책임자인 천황을 침략성을 규탄하거나 그에게 침략정책의 최종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천황의 하수인인 이토 히로부미의 대한정책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는 안중근의 의병운동에 나타난 사상적 한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안중근에게 참모중장이란 직함을 내려준 김두성이란 인물은 실존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만일 그가 김두성이 아니라면 그 다음으로 유인석이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두성이든 유인석이든 간에 대한의병의 총사령관에 해당하는 총독의 자격으로서 안중근에게 참모중장이란 타이틀을 주려면 아무래도 전국 의병의 총책자임을 허여하는 밀지를 고종세력으로부터 받아야만 하며, 따라서 김두성은 이러한 밀지의 권위에 기대어 안중근에게 참모중장이란 타이틀을 내려준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김두성이란 인물은 연해주 의병을 이면에서 총괄한 의병총독에 해당하는 인물로서 서울에서 내려온 고종세력의 문객이나 밀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여섯째, 안중근은 병사들의 생사가 달린 전투를 치르는 의병장으로서 다소 낭만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안중근은 군사작전이나 포로대우에서 지나치게 종교적이며 평화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그는 군사활동 중에 엄인섭과 의견이 불일치하였고, 생포한 일본군과 상인을 만국공법에 따라 석방하였다. 이로 인해 위치와 전력이 노출된 동의회의병은 일본군의 기습을 받고 궤멸하고 말았다. 이후 그는 군사들로부터 신임을 잃었고, 패전 후에 연해주에서 다시 의병을 추진하려 했으나 호응하는 이가 없었다. 요컨대 안중근은 고결한 정신과 이상에 따라 개인의 생명을 담보로 대의를 성취하는 의열투쟁같은 방면에서는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나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적군과 직접 전투를 벌여야 하는 장군으로서서는 실패한 셈이었다.

02

안중근의 국제정세 인식과 동양평화론

서 영 희(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안중근의 국제정세 인식과 동양평화론

서 영 희(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과
실천방략 |
| 2. 안중근의 국제정세 인식 | 4. 맺음말 |
| 1) 反러의식과 동양주의, 인종주의 | |
| 2) 동아시아 정세 인식과 동양평화론 | |

1. 머리말

지금까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주목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¹⁾ 1979년 <동양평화론>이 일본에서 발견된 이래 미완성본이긴 하지만 안중근의 거사 이유와 거사 이후 전망을 가장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저작으로서 주목받아 왔던 것이다. 기존연구들의 결론은 대체로 일본이 주장해 온 동양평화론, 아시아연대론과는 차별적으로 동아시아 3국이 모두 대등한 독립을 유지한 채 동북아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수평적 연대 구상이었다는 평가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중근의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이 단지 한 이상주의자의 꿈이 아니고 실현

1) 한말 한국인의 국제정세 인식의 틀 및 동양평화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나온 주요연구들을 시기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김신재 「독립신문에 나타난 삼국공영론의 성격」 『경주사학』 9, 1990
 정낙근 「개화 지식인의 대외관의 이론적 기초」 『한국정치학회보』 27집 1호, 1993
 홍순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교회사 연구』 9, 1994
 김호일 「구한말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 『중앙사론』 10, 11습, 1998
 조재곤 「한말 조선 지식인의 동아시아 삼국제휴인식과 논리」 『역사와 현실』 37, 2000
 현광호 「대한제국의 삼국제휴 방안과 그 성격」 『한국 근현대사 연구』 14, 2000
 현광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그 성격」 『아세아연구』 46권 3호, 2003
 김현철, 「개화기 한국인의 대외 인식과 ‘동양평화’ 구상」 『평화연구』 제11권 1호, 2003
 그밖에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대해서는 몇 차례 기념 학술심포지움이 있었다.
 안중근의사기념관, 『안중근 의사와 동양평화 사상』, 순국 제82주기 추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보고서, 1992
 국가보훈처 『21세기와 동양평화론』, 1995년 국외 독립운동관련인사 초청행사 결과보고, 1996
 여순순국기념재단, 『안중근과 동양평화』, 안중근의사순국 87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1996
 안중근의사숭모회, 『안중근의 의열과 동양평화론』, 안중근의사 의거 제89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1998 등

가능한 현실적 실천방략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국제정세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인식을 근거로 도출된 방안이었나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최근 세계는 개별 민족국가 단위를 넘어 지역화, 블록화 경향을 추구하고 있고 동아시아 일각에서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주장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할 때 이미 100년전 동북아의 평화회의체, 경제공동체를 제안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21세기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2. 안중근의 국제정세 인식

1) 반러의식과 동양주의, 인종주의

기본적으로 안중근은 당대 동양의 위기는 서양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지역 침략으로 촉발된 것이며, 제국주의 시대는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난무하는 폭력의 시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동양평화론> 서문에서 ‘세계는 바야흐로 동서로 나뉘어져 있고 인종도 각각 달라 서로 경쟁하면서 전기포, 비행선, 침수정 등 사람을 상해하는 기계들을 발명하고 젊은 청년들을 전쟁터에 몰아넣어 수없이 귀중한 생명들을 희생물로 삼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또한 이러한 침략은 수백년 이래 서양 나라들이 시작한 것으로 동양 민족은 다만 자기 나라만 지켰을 뿐 남을 침략한 적이 없는데, 서양 열강 중에서도 제정 러시아가 가장 심하다고 비판하였다.’²⁾

러시아의 침략행위는 동, 서양 어느 곳이고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삼국간섭 당시에도 프랑스, 독일 양국과 연합하여 요코하마 해상에서 크게 시위하여 요동반도를 돌려주게 하고 배상금을 감액시킨 행위는 천하의 정의가 아니라 동양에 대한 심술이라고 평가절하 하면서, 의화단 사건이래 러시아의 중국 진출, 철도 확장 등도 모두 침략행위로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백인종의 침입에 대해 일본이 동양을 지키기 위해 맞섰기 때문에 한청 양국민이 러일전쟁을 황인종과 백인종의 대결로 보고 일본을 지원했다고 주장하였다.³⁾

이처럼 러일전쟁을 황백인종간의 대결로 보거나 서양 열강 중에서도 특히 반러의식이 두드러진 것은 사실 안중근 뿐 아니라 당시 계몽주의계열의 지식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성향이었다.⁴⁾ 이는 개화기 이래 독립협회, 계몽운동계열로 이어지는 문명개화론자들의 공통된 인식으로서, 안중근 역시 아버지 안태훈 진사가 박영효와 연결되는 개화인맥이고 자신도 서북학회 회원으로서 문명개화론의 큰 흐름에 속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태도

2) 안중근, <동양평화론> 序文

3) 안중근, <동양평화론> 前鑑

4) 김도형 「대한제국기 계몽주의계열 지식층의 삼국제휴론」 『한국근현대사연구』19, 2000

였다고 볼 수 있다. 안중근은 천주교에 입교한지 14년이나 되는 신앙인으로서 기독교 문명국인 서양 열강에 대해 보다 친연성을 가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개인적으로 빌렘 신부와의 관계, 특히 대학 설립을 반대한 뮌텔주교 등 천주교 상층부의 보수적인 태도에 대한 반감 등으로 서양 열강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가중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한말 반러의식의 단초는 청에 의해 1860년대 대원군 시절부터 조선의 위정자와 지식인층에게 불어 넣어진 과도한 공리의식에서 시작되었고, 1880년대 조선책략의 방아론 이후 체계적 보급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일본을 모델로 한 개화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문명개화론에 입각하여 봉건적 짜르체제인 러시아에 대한 멸시와 경계가 가중되었다. 더구나 러시아의 만주침략 이후로는 한국 지식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위기의식과 경계가 더욱 가중되었다.

그런데 과연 이 시기 한반도의 운명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러시아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1898년 이후 러일간의 협상 테이블에 등장한 한만교환론이나 러시아의 외교정책으로서 만주집중책 등을 고려할 때,⁵⁾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해 일본보다 더 직접적인 위협일 수 없고, 이러한 대외인식에 입각하여 고종황제와 그 측근 근왕세력들은 러시아에 대한 보호 요청, 한일국방동맹안 거부를 외교전략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문명개화론의 세례를 받은 계몽주의 계열 지식인들의 반러의식과는 달리 대한제국의 집권세력들은마지막까지 러시아와의 동맹에 의한 일본 침략 견제, 러시아의 주선에 의한 국제열강의 한국문제 개입을 추구하였다. 1907년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이 바로 그 예이며,⁶⁾ 헤이그 특사 이후 구미 열강 순방외교에서 돌아온 이상설을 1909년 안중근이 만나 가장 영향을 받았다는 안중근의 고백으로 볼 때⁷⁾ 안중근의 과도한 반러의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안중근과 의병부대 활동을 같이 한 최재형의 경우, 두 번이나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에 가서 러시아 황제로부터 훈장을 받았고, 주 러시아 공사 이범진의 자금을 받아 의병 전투에 사용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안중근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안중근이 나중에 후회하고 있듯이, 러일전쟁 기간 동안 한창 양국이 일본을 후원하지 않고 일본의 배후에서 전선을 교란했다면 전쟁의 결과는 달라지고 한반도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에서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는 단지 시베리아 철도로 군인들을 진주시켰으나 일본군은 바다 건너고 남의 나라를 지나 4,5천리를 지나왔으니 한국민들이 을미년의 원수를 갚는다는 격문을 띄우고, 청국민 역시 청일전쟁 당시의 복수를 위해 떨쳐 일어났다면 일본군은 남북이 분열되고 사방에서 적을 맞아 사면 포위당할 운명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렇게 되었으면 영국 역시 인도, 홍콩 등지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동원하

5) 대한제국기 러시아와 일본 양국과 한국의 외교관계, 대한제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참조.

6) 서영희, 「고종황제의 외교전략과 제2차 만국평화회의의 특사 파견」 『백년후 만나는 헤이그 특사』(이태진 외) 태학사, 2008

7) 피고인 안중근 신문조서

고, 프랑스는 사이공 등지에 있는 육군, 군함을 지휘해서 모여들게 했을 터, 여기에 미국,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희랍 등의 동양 순양함대가 발해 해상에 모여 합동조약을 맺고 이익 균점을 요구했다면 동양의 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이 지금처럼 러시아를 상대로 당당히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⁸⁾

사실 고종황제는 러일전쟁 기간 중 러시아 황제에게 친서를 보내 모든 內應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한러간 군사동맹을 제안한 적도 있다.⁹⁾ 안중근 역시 만일 한청 양국민이 단결해서 지난날의 원수를 갚고자 전쟁 중인 일본을 배후에서 공격하고 러시아를 도왔다면 일본이 과연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는가 반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청 양국민들이 일본을 도운 것은 일본천황의 宣戰 詔勅에 등장하는 ‘東洋平和’와 ‘韓國獨立’을 액면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즉 고종황제의 외교전략과는 달리 전쟁을 황백 인종간의 대결로 보고 그 해법도 동양의 일치단결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자신을 후원한 한청 양국의 은혜를 저버리고 도리어 동양을 침략하니 이렇거면 차라리 다른 인종에게 망할지언정 차마 같은 인종에게 욕을 당하지 않겠다는 의론이 한청 양국민에게서 용솨음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안중근의 국제정세 인식은 동양주의, 인종주의에 입각해 있었고, 특히 서양열강, 백인종에 대한 반감이 일본에 대한 경계의식을 상쇄할 만큼 확실하였다. 심지어 러일전쟁을 벌인 김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 국력을 기울여 한두달 동안 사력을 다했으면 동으로 블라디보스톡을 함락하고 북으로 하얼빈을 격파할 수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그러한 백년대계를 취하지 않고 구차하게 먼저 강화를 청하여서 화근을 남겨두었느냐고 애석해하기까지 하였다. 또 러일강화 담판도 하필이면 미국에서 열어서 (백)인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주선으로 전승국 일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뿐아니라 아무 근거도 없이 한국문제까지 끼워넣은 공평하지 못한 처사가 초래된 것은 모두 구미열강의 인종주의로 인해서이니, 일본은 같은 인종으로서 이웃나라를 해쳐서 따돌림을 당하는 환란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즉 동양이 서양에 맞서 살 길은 일본이 침략야욕을 버리고 한청일 3국이 동맹하여 동양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¹⁰⁾

이 점 안중근의 인식은 을사조약 이후 계몽주의계열 지식인 일각에서 신채호와 같이 이미 동양주의를 극복하고¹¹⁾ 민족 개체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강조하던 흐름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또한 병합 직전까지도 한국의 개명지식인 상당수가 여전히 일본의 문명개화론에 의거한 보호통치론에 의존하며 기약없는 실력양성만을 전망하고, 순망치한론, 한일제후론, 일본이 맹주가 되는 동양평화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과 비교

8) 안중근, <동양평화론> 前鑑

9) 서영희, 위의 책(2003), 227쪽

10) 안중근, <동양평화론> 前鑑

11) 백동현 「대한제국기 언론에 나타난 동양주의 논리와 그 극복」 『한국사상사학』 17, 2001

한다면¹²⁾ 일본의 침략성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위기의식을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사상적으로 국가주의, 개체주의로 가지 못하고 보편주의적 동양주의와 인종주의에 머물고 있는 것은 천주교의 보편주의의 영향일 수도 있고,¹³⁾ 개화학문 이전에 일반적인 유생처럼 받은 유교교육의 영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¹⁴⁾

2) 동아시아 정세 인식과 동양평화론

러일전쟁 이후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안중근은 일본의 한국침략-을사조약, 고종황제 폐위, 정미조약, 군부와 법부 폐지 등 일련의 강박행위들을 비난하면서 일본의 침략행위가 바로 동양의 평화를 깨트리는 화근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러일전쟁 당시 동양평화와 한국독립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협력했던 한국을 도리어 보호국화하고 압박하는 행위,¹⁵⁾ 특히 이토 통감의 정책이 동양평화를 교란하는 주원인이기 때문에¹⁶⁾ 이토를 처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잘 알려진 바 대로, 1909년 10월 30일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에서 이루어진 검찰관 溝淵孝雄에 의한 최초의 신문에서 안중근은 이토 처단의 원인 15개조를 밝혔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을사조약 이후 한국에 강요된 각종 조약체결의 불법성과 통감부 통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第一. 只今으로부터 十餘年前 伊藤의 指揮로 韓國 王妃를 殺害하였다.
- 第二. 只今으로부터 五年前 伊藤은 兵力으로써 五個條의 條約을 締結하였는데 그것은 모두 韓國에 對하여 非常히 不利益한 條項이다.
- 第三. 只今으로부터 三年前 伊藤이 締結한 十二個條의 條約은 모두 韓國에 對하여 軍事上 대단히 不利益한 事件이다.
- 第四. 伊藤은 기어이 韓國 皇帝의 廢立을 圖謀하였다.
- 第五. 韓國兵隊는 伊藤으로 因하여 解散되었다.
- 第六. 條約 締結에 對하여 韓國民이 憤怒하여 義兵이 일어났는데 이 關係로 伊藤은 韓國의 良民을 多數 殺害하였다.

12) 서영희, 「국민신보를 통해 본 일진회의 합방론과 합방정국의 동향」 『역사와현실』69, 2008

13) 홍순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교회사 연구』9, 1994

14) 안중근은 1909년 10월 30일 하얼빈 일본제국 총영사관에서 검찰관 溝淵孝雄의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한국에서 발행하는 대한매일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미국에서 발행하는 共立新聞, 浦潮에서 발행하는 대동공보 등의 논설, 특히 대한매일신문과 황성신문을 열독했을 뿐아니라(독립운동사자료 6 제1회 피고인 신문조서), 11월 14일 관동도독부 감옥서에서 열린 제2회 訊問에서는 四書五經과 通鑑, 萬國歷史와 朝鮮歷史 등을 공부하였다고 답변하였다(독립운동사자료 6 제2회 피고인 신문조서).

15)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6(안중근편 I) 1910년 2월 7일 제1회 공판시말서

16)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6(안중근편 I) 1910년 2월 8일 제2회 공판시말서

- 第七. 韓國의 政治 其他의 權利를 掠奪하였다.
- 第八. 韓國의 學校에서 使用한 좋은 教科書를 伊藤의 指揮下에 燒却하였다.
- 第九. 韓國 人民에게 新聞의 購讀을 禁하였다.
- 第十. 何等 充當시킬 돈이 없는데도 不拘하고 性質이 좋지 못한 韓國 官吏에게 돈을 주어 韓國民에게 아무 것도 알리지 않고 드디어 第一銀行券을 發行하고 있다.
- 第十一. 韓國民의 負擔으로 돌아갈 國債 二千三百萬圓을 募集하여 이를 韓國民에게 알리지 않고 그 돈은 官吏들 사이에서 마음대로 分配하였다고도 하고 또는 土地를 掠奪하기 爲하여 使用하였다고도 하는데 이것이 韓國에 對하여는 대단히 不利益한 事件이다.
- 第十二. 伊藤은 東洋의 平和를 攪亂하였다. 그 까닭은 卽 露日戰爭 當時부터 東洋平和 維持라고 하면서 韓皇帝를 廢立하고 當初의 宣言과는 모조리 反對의 結果를 보기에 이르러 韓國民 二千萬은 다 憤慨하고 있다.
- 第十三. 韓國이 願하지 않음에도 不拘하고 伊藤은 韓國保護의 이름을 빌어 韓國 政府의 一部人士와 意思를 通하여 韓國에 不利한 施政을 하고 있다.
- 第十四. 距今 四十二年 前 現日本皇帝의 父君인 분을 伊藤이 없애 버린 그 事實은 韓國民이 다 알고 있다.
- 第十五. 伊藤은 韓國民이 憤慨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日本 皇帝나 其他 世界 各國에 對하여 韓國은 無事하다고 하여 속이고 있다.

이러한 안중근의 주장에 대해 溝淵 검찰관은 통감부 통치 이후 한국에는 기차가 개통되고 수도, 위생, 병원의 설치, 식산 공업의 왕성 등 문명개화가 진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¹⁷⁾ 안중근은 모두 일본인을 위한 것일 뿐 한국에 대하여서는 결코 진보가 아니라고 답변함으로써, 통감부가 주장하는 소위 ‘시정개선’ 사업의 침략적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¹⁸⁾

조선이 문명개화에 이르지 못하여 다른 나라에 예측될 경우 일본의 안전과 동양의 평화에 화근이 된다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서도, 통감부 통치는 오히려 한국의 독립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동양의 분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즉 동양평화란 중국, 일본, 한국, 삼, 버마 등 모든 아시아국이 대등한 독립 상태에서 공존하는 것으로 어느 한 나라라도 독립하지 않은 상태로는 동양평화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토의 보호통치에 반발하는 한국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열강도 앞으로 5년내에 장차 신무기를 개발하여 일본과 교전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伊藤이 생존한다면 한국 뿐 아니라 일본도 드디어 멸망할 것이라

17) 안중근과 일본 검찰 등과의 논쟁과정에 대해서는 한상권, 「안중근의 하얼빈거사와 공판투쟁(1)」, 『역사와 현실』 54, 2004 ; 「안중근의 하얼빈거사와 공판투쟁(2)-외무성관리-동감부 파견원의 신문과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투쟁을 중심으로」 『덕성여대논문집』33집 ; 「안중근의 국권회복운동과 정치사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21, 2003 참조.

18) 권태억, 「1904~1940년 일제의 한국 침략 구상과 ‘시정개선’ 한국사론 31, 서울대 국사학과, 1994 ; 「통감부 설치기 일제의 조선 근대화론」, 국사관논총 53, 1994

는 판단 하에, 3년 전부터 이토 처단을 결심했다는 것이다.¹⁹⁾

이토 자신도 1904년 3월 특파대사로 도한하여 고종에게 한일제휴를 강조하면서 동양평화론을 개진한 바 있지만, 그의 동양평화론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한일동맹만이 동양평화와 한국 국권 보전을 기약한다는 주장이었다.²⁰⁾ 안중근은 이토 통감이 입으로는 평화를 위한다고 말하나 실제로는 그에 반하여 통감으로 부임한 이래 한국 인민을 죽이고 황제를 폐위시키는 등 동양평화와 한국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에 한청일 3국이 동맹하여 화합하고 개화 진보한다면 서양이 평화를 가장하여 동양을 엿보고 있는 이 때를²¹⁾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일본이 사용하는 한국 보호국화를 전제로 한 일본 맹주의 아시아 연대론, 동양평화론이 아니라 동양 3국이 평등한 연대로 제휴하는 소위 삼국제휴론의 계보를 잇는 것이다. 동양주의를 고수하면서도 일본의 침략주의적 동양론이 아닌 수평적 연대체제를 구상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그런 면에서 일부 계몽운동계열 지식인이나 일진회 등 합방론자들의 동양평화론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²²⁾

3.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과 실천방략

안중근은 동양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략으로서 동북아 평화회의 건설을 제안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안들을 제시하였다. 1910년 2월 17일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 고등법원장 면담을 신청한 안중근은 일본을 상대로 의병참모중앙으로서 전쟁 행위를 하다가 포로로 잡힌 자신을 국제공범이 아닌 보통 살인범 취급하며 여순 지방법원에서 심리하는 일본의 치졸함에 대해 항의하면서, 동양평화를 위한 자신의 정책을 진술하였다.²³⁾

우선 여순을 일본이 청에 돌려준 뒤, 일본, 청국, 한국 3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균향으로 만들어 세 나라에서 대표를 파견하고 평화회의를 조직하는 것이다. 이를 운영할 재정으로는 3국의 수억 국민에게 회비로 1원씩 모금하는 것이며, 회비로 은행을 설립하고, 공용 화폐를 발행하면 자연히 금융이 원활해 질 것이라는 구상이다. 또한 중요한 곳에 평화회의 지부를 두고 은행 지점을 병설하면 더욱 금융과 재정은 완전해질 것이라 하였다. 21세기에 들어 현

19)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제1회 피고인 신문조서

20) 『이등박문전 下』1944, 639-642쪽

21)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6(안중근편 I) 1910년 2월 9일 제3회 공판시말서

22) 삼국제휴론에 대해서는 현광호「대한제국의 삼국제휴 방안과 그 성격」『한국 근현대사 연구』14, 2000;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그 성격」『아세아연구』46권 3호, 2003 참조.

23) 보훈처, <청취서-안중근 의사 日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장 면담 내용->『21세기와 동양평화론』1996, 51-57쪽,

제 유럽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용통화 개념을 안중근이 이미 제안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다음으로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동양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장이 중요한데, 한청일 3국에서 각각 대표를 파견하되, 세 나라 청년으로 군단을 편성하고 이들은 2개국 이상 언어를 배워 우방 혹은 형제의 관념이 높아지도록 지도하자고 하였다. 동양 3국의 영원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연대가 관건임을 이미 파악한 것이다.

이렇게 동양 3국이 평화체제를 구성하면 일본은 수출 증대로 재정 안정 효과를 볼 것이고, 한국과 청국도 일본의 지도 하에 상공업이 발전하여 인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도 이 평화회의에 가맹을 서두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면 이러한 다국적 평화회의 체제에 대해 서양 세계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한청일 세 나라 황제가 로마교황을 만나 이를 승인받는다면, 나폴레옹 시대까지 서구에서 로마교황의 승인으로 왕위에 올랐듯이 세계가 공인할 것이고, 로마교황을 통해 현존하는 종교 2/3인 천주교도의 신봉을 얻는다면 대단한 힘이 될 것이라는 제안은 천주교도로서 안중근의 세계 인식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평화회의체에 대한 안중근의 구상은 아마도 이상설을 통해 전해들은 헤이그 평화회의의 관련 사실에서 나온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기존의 만국평화회의가 강대국간의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거중 조정에 주력하고 상설 중재재판소를 설치한데 비하면, 안중근이 구상한 동양평화회의는 금융기관과 무장을 갖춘 집행부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서 판이하다. 따라서 안중근의 동양평화회의는 당시까지 있었던 강대국간의 허울 뿐인 회의체가 아닌 전혀 발상을 달리하는 창조적인 공동체 구상으로서 의의가 있다.

사실 안중근은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이 만들어놓은 기존의 만국공법 체제, 즉 국제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험난한 제국주의 시대에 국제조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이 국제협약에 가입해 있고 만국이 감시하고 있으므로, 일본이 한국을 멸망시킨다든가 병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검찰관의 주장에 대해, 안중근은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고자 하는데도 열국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니 제국주의 열강을 신뢰할 수 없고, 이른바 만국공법이나 엄정중립이라는 말도 모두 외교가의 교활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불신하였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의병투쟁 중에 잡힌 일본인 포로를 국제법에 의거하여 풀어주었고, 일본을 향해서도 법정에서 국제공법을 준수하라고 당당히 요구하였다. 강박에 의해 체결된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국제법에 의거하여 조목조목 지적하였을 뿐아니라²⁴⁾ 자신은 개인적으로 이토를 살해한 형사피고인이 아니므로 만국공법과 국제공법에 의해 판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24) 1909년 11월 29일 피고인 신문조서

이에 일본 검찰관도 소송법상 당법원이 정당한 관할권이 있느냐를 고민한 결과, 사건은 청국영토 내이며 피고 등은 러시아 관헌에 의해 체포되고 신문 받았으나, 피고들이 한국 국적이므로 러시아의 재판을 받는 것은 온당치 않고, 한국이 청국과 1899년 9월 1일 체결한 한청통상조약 제5조에 의하여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1905년 11월 17일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 제1조에 의해 “외국에 있어서의 한국 신민은 일본국에서 보호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재하얼빈 일본제국 영사관은 이 건을 관할할 수 있으나, 외무대신이 법률 제52호 제3조에 의해 당법원에 본건의 관할을 이관한다는 명을 받아 관할하게 되었다고 해명하였다. 또한 본건에 적용될 실체법 여하에 대해서는 한국법에 의해야 한다는 의론도 있을 수 있으나 보호조약의 해석상 일본제국 형법 일반을 적용, 즉 안중근이 伊藤을 殺害한 殺人已遂의 罪에 대해 일본제국 刑法 제 199조를 적용하여 사형에 처한다고 판결하였다.²⁵⁾ 이에 안중근은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 敵軍의 포로가 되어 와 있으므로 마땅히 萬國公法에 依해 處斷되어야 한다고²⁶⁾ 다시 한번 주장하였다.

이처럼 안중근이 마지막까지 국제공법 준수를 주장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강대국들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약소국인 한국민으로서의 여전히 도덕과 국제공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안중근이 동아시아 평화와 공영을 위해 제안한 평화회의의 구상도 당시 제국주의 시대에는 공허하게 들렸을지라도 여전히 살아있는 동아시아인의 이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양 3국 체휴에 의한 3국공영론은 1880년대 후반 김옥균이 주창한 三和主義에서 그 일단을 보인 이래, 을미사변 이후 일본으로 망명한 개화정객 안경수에 의해 구체적인 공영론으로 발전하였고,²⁷⁾ 다시 안중근에 의해 여순 평화회의의 구상으로 제시되었으나 3인 모두 불행한 최후를 맞은 탓으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상주의적 ‘꿈’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안중근은 이미 100년전 21세기에나 가능한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상한 사상가이자 그 구체적인 실천방략까지 고민한 실천가이다. 문명개화를 통해 실력을 닦는 것이 한국 독립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 문명개화론자이면서, 동시에 일본의 보호정치가 한국의 문명개화가 아닌 국권침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바로 무장투쟁의 선두에 나선 행동가이다. 제국주의 시대 열강의 이해타산 속에서 만국공법이나 국제법은 한낱 공문구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면서도 자신은 끝까지 포로에 관한 국제공법을 먼저 준수하고 본인도 국제

25)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6(안중근편 I) 1910년 2월 10일 제4회 공판시말서

26)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6(안중근편 I) 1910년 2월 12일 제5회 공판시말서

27) 조재곤 「한말 조선 지식인의 동아시아 삼국체휴인식과 논리」 『역사와 현실』37, 2000

법에 의해 정당하게 재판받기를 당당하게 요구한 이상주의자이다. 의병투쟁이 무력할 때 국제열강에 대한 충격요법으로 한국의 독립의지를 천명하고 일본 침략의 부당성을 고발하기 위해 이토 저격을 감행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개인의 운명보다는 거사의 목적을 세계 여론을 향해 알리는데 주력한 탁월한 전략가였다.

이처럼 안중근은 병합을 1년여 앞둔 당시 한국의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모든 독립운동의 방략들을 실천하였다. 계몽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사회진화론적 사상 틀 내에서 일본의 침략을 좌시하고 일제의 보호통치에 여전히 기대를 걸면서 이토의 병합점진책, 자치육성정책만 믿었던 반면, 안중근은 1907년 이후 정세판단을 달리해 직접 무장투쟁에 나섰으며, 그것도 무력할 때 국제여론의 반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토 암살을 채택한 탁월한 전략가적 면모를 보였다.

안중근은 지극히 현실적인 실천방략을 찾아다닌 전술 전략가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평화를 꿈꾼 이상가로서 한국 민족운동사의 계보에서 매우 독보적인 존재라고 생각된다.

.03

한국 근현대사 속의 안중근 일가

박 태 균(서울대학교) •

한국 근현대사 속의 안중근 일가

박 태 균(서울대학교)

〈목 차〉

- | | |
|----------------------|------------------|
| 1. 들어가면서 | 3. 분단과 통일의 갈림길에서 |
| 2. 일제 강점기 안중근 일가의 명암 | 4. 글을 나가며 |

1. 들어가면서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평탄한 삶을 영위한 집안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전쟁과 정전체제로 이어진 근현대사의 굴곡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질곡을 가져다 주었다. 지금까지도 과거사 청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산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통해 근현대사의 굴곡이 현재 진행형임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현대사를 통해 식민지를 막기 위해,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들의 경우 그 굴곡은 더 심한 것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남한과 북한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많은 이들이 남과 북에서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권력의 핵심으로부터 밀려나기도 했다. 중국에 망명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요인들이나 국내에서 활동했던 사회주의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고문했던 사람이 다시 8.15 이후에도 동일한 사람을 고문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는 에피소드는 현대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때로는 독립운동을 했던 개개인이 이후 추앙을 받은 예도 있지만, 그 가족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가난하게 사는데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에게 협력했던 이들은 잘 살고 있다’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던 것이 이러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안중근은 조선의 식민지화를 막기 위해 활동했던 인사들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점에 누구도 의문부호를 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의 근현대사 속에서의 행로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그의 일가가 근현대사 속에서 살아온 일생을 되짚어 보겠다.¹⁾

1) 본고는 1992년 11월 『월간 말』에 실린 ‘민족운동에 몸바친 비운의 안중근 일가’를 모본으로 하여 집필하였다.

2. 일제 강점기 안중근 일가의 명암

안중근의 가문은 임시정부 주석인 백범 김구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김구는 황해도에서 동학 접주로서 갑오농민전쟁에 참가하였다. 이 때 안중근의 아버지였던 안태훈은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진압군을 이끌었지만 김구의 인물됨을 듣고 농민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집에서 함께 기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한문에 조희가 깊었던 안태훈의 집에 머물면서 김구는 학문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안태훈은 일개 향촌의 생원 진사에 지나지 않았지만, 글을 잘 하는 것으로 소문이나 있는 높은 수준의 선비였다고 한다. 김구는 안태훈의 집에 머물면서 안중근, 안정근, 안공근 등 3명의 형제를 만날 수 있었다.

안중근의 집안은 할아버지가 진해 현감을 지내는 등 전형적인 유교 가문이었지만, 곧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18세기 이래로 한반도의 서북지역에 들어온 가톨릭과 개신교는 일반 민중뿐만 아니라 몰락한 양반 가문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서학으로 알려진 가톨릭과 개신교는 평안도뿐만 아니라 황해도에서도 세가 커져 갔고, 안중근의 집안 역시 가톨릭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1909년 안중근의 의거 이후 일가 중 가장 먼저 독립운동에 뛰어든 사람은 안중근의 사촌이었던 안명근이었다. 안명근은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직후 김구를 찾아가 거사를 제안했다. 안명근이 제안한 것은 부자들을 위협해서 독립운동의 자금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김구는 당시 교육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간도 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권고하면서 안명근의 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안명근은 김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사의 실행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일제의 감시를 받고 있었던 김홍량, 이승훈, 김구, 유동렬, 양기탁, 이동휘 등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붙잡혔다. 신민회 105인 사건은 이 사건과 연이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안명근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명치천황의 사망으로 20년 형으로 감형되었다.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그가 감옥에서 한국 최초의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항상 ‘이 놈들아, 죽일 때에 죽이더라도 애국 의사의 대접을 이렇게 한단 말이냐’고 호통을 쳤다고 기록하였다. 그는 1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감한 후 부친과 아우를 찾아 만주로 가던 중 감옥에서 얻은 지병으로 인해 가족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안명근 사건 이후 안중근의 일가는 대부분 러시아 극동 지역과 간도로 이주하였다. 안중근의 5촌 조카인 안민생에 의하면 가족은 물론 친척 후손들까지 괴롭혀 당시 안씨 성을 가진 사람들의 상당수가 만주, 중국 등으로 피신했으며, 국내에 남아 있더라도 예비검속을 수시로 당했다고 한다. 당시의 일화를 무정부주의자였던 정화암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만주에서 이사를 가는데, 마차에다 이삿짐을 잔뜩 싣고 가는데 마적들이 나타났어요.

총을 마구 쏘면서. 그러니까 같이 가던 청년들 수십명이 전부 땅에 엎드려서 꼼짝 못 해요. 이 때 그(안중근 : 필자주)의 어머니가 척 내려오더니 '이 놈들이, 독립운동한다는 놈들이 이렇게 엎드리기만 하기가? 이렇게 엎드려 있다간 다 죽어'라고 대성일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벌벌 떠는 마부를 제치고 스스로 말고삐를 확 쥐더니 '죽는 한이 있어도 가고 보자'고 소리를 질렀다죠. 에야 소리 지르며 마차를 몰아 결국 무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정화암」 편)

간도에서 간척사업을 벌여 성공하기도 했던 안중근의 친동생 정근과 공근은 평범한 삶에 만족하지 않고 상해로 거주지를 옮겼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이사했지만, 이들은 곧 임시정부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안중근의 동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중국인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아 주로 중국국민당과의 연락을 맡았고 장개석 등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또한 김구와의 인연으로 임정의 연락업무와 재정문제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러시아군 장교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도 했던 안중근의 맏동생인 안정근은 상해로 온 직후 김규식, 여운형과 함께 신한청년당의 이사로 활약하였다. 1920년 5월 임시정부가 무장독립운동 단체들의 단합을 위해 안정근을 공식 특사로 북간도로 파견하기도 했다. 그는 만주에서 가톨릭 신자들로 구성된 무장독립운동 단체인 의민단의 고문을 맡기도 했으며 무장단체들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만주에서의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그는 다시 상해로 돌아와 대한적십자회 총재 대행, 임시의정원 의원, 중한호조사 간부로 활약하였다. 1925년 이후 약 10여년간 뇌병으로 치료를 받던 그는 1935년 이후 안창호의 흥사단 상해 원동위원부 제5반에서 활동하였다. 안정근은 위해위(威海衛)에서 뇌병을 치료받으면서 선박건조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못하다가 지병으로 생애를 마감하였다.

안정근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했던 것은 막내 동생인 안공근이었다. 안중근 거사 시 진남포 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던 안공근은 상해로 이주한 이후 김구의 측근으로 활약하였다. 안공근은 김구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에 협력했던 사람들 및 일본인에 대한 테러사건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무정부주의자들과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1928년 2월 '재중국무정부주의 자연맹'에 유기석, 이정규·을규 형제, 유자명, 정화암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정화암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임정의 행동대로서 1930년에 창설된 '남화한인청년동맹'과 함께 테러활동을 벌였다. 이 단체의 행동대였던 '흑색공포단'과 '맹혈단' 등은 1931년 11월 일본영사관 폭파 미수사건, 1933년 3월 일본인 공사 암살미수사건, 7월 친일파 옥관빈 암살사건, 1935년 2월 조선인민회 부회장 이용로 암살 사건 등을 주도하였다.

안공근은 1930년대 이후 한국독립당에서 조완구와 함께 김구의 측근으로 활약하였다. 그의 임무는 대외 연락 및 재정을 책임지는 것이었다. 김구가 미국에 보내는 편지는 엄항섭과

안중근이 영문으로 대신 써 주었다고 하며, 김구가 장개석을 만날 때에는 안중근이 동석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 국민당에서 나오는 자금을 관리하기도 했다. 그가 안중근의 친동생이라는 후광이 많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가 이렇게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만큼 김구와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그의 명망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문제의 책임자로서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떠돌았다고도 한다. 그는 정화암, 박찬익 등과 의 갈등으로 인해 김구를 몰아내고 자신의 형인 안정근을 임정의 수뇌부에 앉히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안중근은 해방 직후 귀국도 못한 채 중경에서 쓸쓸하게 사망하였다.

안중근의 큰아들 안준생은 뚜렷한 활동을 못하였다. 오히려 일제 말기 일제 총독부에 의해 국내에 들어와 장충단 공원에 있던 박문사(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해 설립된 신사)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과 참배를 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1951년 부산에서 쓸쓸하게 일생을 마쳤다.

3. 분단과 통일의 갈림길에서

해방 이후 안중근 일가의 후손들 사이에서 명망이 확실하게 갈리기 시작한다. 한국군에 관계하였던 안중근 일가의 후손들은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록 권력의 핵심에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안중근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안정근의 활동은 악화된 건강으로 인하여 끝내 꽃피우지 못했지만 그의 장남인 안원생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신한민주당의 상임위원 겸 선전부장으로 김봉로, 신기언 등과 함께 활동하였으며, 1943년에는 임정의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차남인 진생은 선박에 대한 아버지의 못 이룬 꿈을 받들어 이탈리아에 유학하여 1945년 7월 이탈리아 제노아 공과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조선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 인천해군공창장, 조선공사고문, 주 자이레·네덜란드·콜롬비아·미얀마·인도네시아 대사를 역임하였다. 1970년 네덜란드 대사 시절에는 공교롭게도 네덜란드 주재 일본대사인 후지사키 대사가 큰 아버지에 의해서 암살된 이토 히로부미의 외손녀라는 사실이 밝혀져 국제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에 의해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해직당한 안진생은 8년 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다.²⁾

안중근의 5촌 조카인 안춘생은 중국육군중양군관학교 낙양분교 한인반 제1기 졸업생(1935

2) 『시사인』 48호, 2008년 8월12일자, <http://www.sisain.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686>

년 4월)이었다. 그는 중국군 제2사단에서 근무하다가 육군소령으로 광복군에 편입하여 제2지대 제1구대장으로 활동하였다. 해방 직후 이범석의 민족청년단의 훈련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육사 8기로 대한민국의 육군에 들어간 그는 일본군, 만주군 출신들 사이에서 얼마 되지 않는 광복군 출신이었다. 1950년대에는 제8사단장, 제2군 부사령관, 제2관구 사령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육군소장, 국방부 차관보를 거쳐 군복을 벗고 대한중공업공사 상무이사를 역임했다. 그리고 그는 1973년 광복회 회장, 1986년 독립기념관 관장을 역임했다.

이렇게 안원생과 안춘생은 대한민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안경근과 안우생은 이들과 다른 길을 걸었다. 이들은 김구가 남북연석회의에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임정법통론과 반탁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해왔던 김구와 임시정부 세력이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공근의 장남이었던 안경근과 5촌 조카인 안우생의 활동은 김구의 정치적 진로를 바꾸어놓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

안우생은 1942년 9월 임시정부 개편 이후 편집부의 과원으로 활동하다가 8·15 이후 김구의 대외담당비서로 일했다. 1947년 말부터는 남북합작의 불가피성을 느끼고 당시 선일상사라는 대북 무역상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성시백과 만나 전민족적인 정치인의 단합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성시백은 중국공산당원 출신으로 상해와 중경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인사들과도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그는 연석회의 개최를 위해 북쪽의 편지를 남한의 정치인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체포되어 1950년 간첩혐의로 사형되었다. 그의 아들인 성자립이 최근 김일성대학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후 안우생은 조완구, 신기언을, 성시백은 홍명희, 엄항섭 등을 설득하여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연석회의에 참여하도록 중용하는 역할을 했다.

안중근의 사촌동생인 안경근은 남북연석회의 참가를 위한 특사로 북한에 파견되었다. 연석회의가 개최되기 20일 전인 1948년 3월 31일 안경근은 김규식 측의 특사인 권태양과 함께 평양에 도착해 주영하(당시 회담준비위원장, 후에 소련 주재 북한대사)의 안내로 김일성의 자택에서 김일성, 김두봉을 만났다고 한다.

안경근이 북한에 특사로 파견된 것은 그와 북한의 핵심인사였던 최용건 과의 관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경근은 운남군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만주에서 정의부의 군사부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1930년 상해에서 황포군관학교의 구대장으로 활약하였는데, 최용건은 그의 운남군관학교의 1회 후배일 뿐만 아니라 황포군관학교에서도 함께 교관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 동안 안우생은 납북되었고, 국내에 남아 있었던 다른 일가족들은 한국독립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감시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경근과 안중근의 5촌 조카인 안민생은 1950년대 말 ‘민주구국동지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강경파가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었던 1950년대 말의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의 활로를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

민주구국동지회는 이승만 하야 직후 대구시청의 회의실에 모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고, 7·29 총선 이후 시국대책위원회(위원장 안경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1961년 초순에는 ‘경상북도 민족통일연맹’(위원장 안경근, 총무위원회 기획부장 안민생)으로 개칭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안민생은 또한 4.19 시기 교원노조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5.16 쿠데타로 인하여 찬 서리를 맞았다. 안경근과 안민생은 군사 정부에 의해 투옥되었고, 결국 징역 7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서대문 형무소 내의 속칭 ‘빨갱이 수용소’ ‘모스크바’로 불리는 8사 감방에 수용되었다. 안민생은 감옥 생활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기도 했다고 한다.

4. 글을 나가며

필자는 1990년대 초의 어느날 안민생씨를 만나기 위해 대구를 찾았다. 안우생은 1991년 북한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안경근은 감옥 생활 직후 지병을 얻어 곧 사망하였지만, 안민생씨는 대구에서 투병하고 있었다. 그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하다가 만주군에 잡혀 한쪽 다리를 잃었는데,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에는 교통사고로 다른 한쪽 다리마저 절단해야 했으며, 반신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1990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그는 현대사 연구자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의 가족들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어쩌면 더 이상 그는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상처받은 안중근 가문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04

중국인의 안중근 인식과 기념사업

유 병 호(중국 대련대학)

중국인의 안중근 인식과 기념사업

유 병 호(중국 대련대학)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동양평화론』 |
| 2. 하얼빈 거사 | 4. 기념사업 |
| 1) 한국의 國魂 | 1) 하얼빈지역 |
| 2) 원수를 갚아준 영웅 | 2) 대련지역 |
| 3) 亞洲第一義俠 | 5. 맺는 말 |
| 4) 민족혁명의 선각자 | |

1. 머리 말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반, 한국의 반일지사 안중근은 중국 하얼빈역 플랫폼에서 일본의 한국침략 원흉인 이등박문을 총살하는 세상을 진감하는 거사를 거행하였다. 현장에서 러시아군에 체포된 안중근은 일본 하얼빈영사관에 인계되어 여순감옥에 수감되었다가 1910년 2월 14일에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같은 해의 3월 26일 오전 10시에 여순감옥에서 32세의 짧은 생애로 순국하였다.

한국의 대표적 독립운동가로서 안중근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발자취들을 중국 땅에 남겼다. 때문에 안중근을 조명함에 있어서 당연히 현지에서 바라보는 안중근의 형상과 인식, 그리고 기념사업은 세인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고는 안중근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시각과 평가를 관점과 시대에 따라 종합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기념사업상황을 소개하는 것으로 의사의 형상을 재조명하는데 일조하려고 한다.

2. 하얼빈 거사

하얼빈 의거의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신문잡지들은 하얼빈 의거소식을 대서특필하면서 안중근의 애국행동을 찬양하고 이등박문의 침략야심을 폭로하였다. 상해의 『民吁日報』는 사론 5편과 보도 19편을 발표하였고, 『上海時報』는 평론과 보도를 13편 발표하였으며 『上海申

報』는 보도 7편을 발표하였다. 이밖에 天津의 『大公報』도 평론과 보도를 25편 발표하였고 홍콩의 『華文報』도 보도 25편을 발표하였다.³⁾ 이외에도 북경, 광주, 중경, 심양 등 각 지방의 신문들도 연일 사건보도와 더불어 논설과 평론을 발표하여 의거의 진보작용과 역사의의를 긍정하였다.

1) 한국의 國魂

러일전쟁 이후, 즉 “한일합방”이후 중국인들은 군권과 외교권을 박탈당한 한국은 이미 일본에 완전히 병탄되어 망국하였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오늘이 내일의 중국으로 될 수 있다고 보면서 망연자실을 금치 못하였다. 이러한 때에 한국의 열혈청년 안중근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하얼빈에서 일본의 한국침략의 원흉인 이등박문을 사살하였으니 중국인들이 어찌 한국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앞으로 공동항일의 동지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얼빈 의거가 있는 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간행된 한글신문 『大東公報』는 1909년 12월 12일자에 1면과 2면을 완전히 할애하여 중국인들이 안중근의 의거를 찬양하는 논설을 전재하였다. 1면에는 「快哉一擊，高麗尙有人也!」라는 『大同日報』논설을, 제2면에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인이 경영하는 『世界日報』의 논설 「韓人其不亡矣」와 『中西日報』의 논설 「論伊藤之被暗殺」을 번역 게재하였다.⁴⁾ 논설 「快哉一擊，高麗尙有人也!」는 “조선의 국권은 비록 망하였다하나 조선인민의 정신은 오히려 망하였다하지 못할 것이니……이제 또한 동아에서 하늘을 놀래고 땅을 움직이는 일을 연출하여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을 포살하였다.”고 하였고, 논설 「韓人其不亡矣」은 “병력의 한 소리가 국혼(국혼은 나라의 정신이란 말)을 떨치고 적국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고 하면서 한국인의 정신은 살아있고 국혼이 살아있다고 하였다.

靑邱恨人⁵⁾은 「讀安重根感言」에서 “한국은 망하였지만 안중근과 같은 지사들이 아직도 살아 있다. 그들은 조국을 회복할 열의를 품고 귀중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적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였으니 오늘날 조선에 있어서 최종의 승패는 아직 알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이 합병한 것은 한국의 영토일 뿐, 대한 사람의 애국심, 대한 사람의 大韓魂은 일본이 합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조선이 과연 망하였다고 할 수 있으랴!”⁶⁾ 靑邱恨人은 또 「聞哈爾濱砲擊」란 시를 지어 “청천 하늘에 터진 벼락인 양/육대주를 떨친 총소리/영웅은 노하여 괴수를 죽이고/독립을 외쳤노라, 조국은 재생하리.”고 단언하였다.⁷⁾ 王燾

3) 金宇鐘, 崔書勉, 『안중근』, 요녕민족출판사, 1994, p.3.

4) 『大東公報』,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IX, 러시아①, 國家報勳處, pp.331-332.

5) 신규신(1879-1922)이라는 주장도 있음.

6) 백암 박은식 저, 이동원 역, 『불멸의 민족혼 安重根』, 한국일보사, 1994, pp.125-126.

도 「讀安重根先生傳」란 시를 지어 “이 전통 길이길이 키워 간다면 따사로운 봄날이 다시 오리라.”고 확신하였다.

중국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중화주의 사상”으로부터 일대 전환함으로써 3.1운동이후 한국의 민족독립운동에 대한 동정과 지지로 이어져 최종적으로는 1930년대의 중한 공동항일전선을 이룩하는 밑거름으로 되었다.

2) 원수를 갚아준 영웅

안중근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은 또 이등박문에 대한 증오에서 더욱 극대화 되었다.

이등박문은 1895년 갑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20여 년간 애써 경영한 북양해군을 전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관조약」을 통하여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와 대만 그리고 팽호열도 및 부속 도서를 뜯어가고, 군비배상금으로 2억 량을 빼앗아가고, 중경 사시 등지를 통상항구로 개방시켜 내하항선을 개척하였으며 통상항구에 공장을 설치하고 일본상품의 내지세금을 감면시키는 허다한 혜택을 강요 획득하였다. 조약체결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청나라 원로정치가 李鴻章은 “섬나라 후배인 이등박문”의 갖은 조롱을 받아 일생의 최대치욕이었다고 한탄하였다.⁸⁾ 동방의 중앙대국으로 자부하던 청나라가 서양이 아닌 일본에 패배하여 갖은 수모를 받았으니 그 충격은 조선이 “丁卯胡亂”, “丙子胡亂”에서 받은 충격과 같았을 것이다. 이때로부터 이등박문은 중국인들로부터 두려우면서도 가증스러운 공적으로, 일본의 중국 침략의 원흉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이등박문이 한국인 안중근에 의해 사살되었으니 중국인들이 어찌 놀랍고 기쁘지 않았겠는가?

중국인들은 모두 안중근은 “중국인들이 하려고 하면서도 하지 못한 일을 한” 일대 쾌거를 거행하였다고 하면서 그가 중국을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준, 역사의 관건적 시각에 나타나 살신성인의 영웅이라고 극찬하였다. 또 선견지명이 있는 중국인들은 일찍부터 일본의 대륙정책과 이등박문의 야심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韓滿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무사하리라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등박문의 죽음은 적어도 일본의 중국침략을 수년간 뒤로 미루는 작용을 하였다고 보고 감격하여 마지않았다.

羅南山은 백암 박은식이 滄海老紡室이란 필명으로 집필한『安重根傳』을 위해 지은「安重根序」에서 “그런데 우리 華人 역시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일본은 오래전부터 만주와 한국을 탈취하려고 시도하였다. ……갑오전쟁 때 그들은 이미 요동반도를 탈취하였고 을사년에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위세를 몰아 이등박문은 한국의 통감이

7) 青邱恨人, 「聞哈爾濱砲擊」, 백암 박은식 저, 이동원 역, 『불멸의 민족혼 安重根』, 한국일보사, 1994., p.180.

8) 줄고, 「중국인들이 바라본 안중근의 형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43, 2005.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236.

되었으며 ……또 만주여행을 떠났는데 그의 의도는 장차 러시아 대신과 협상하여 만주를 분할하자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세계여론에 따르면 만주문제를 처리한 다음에는 각국의 밀사와 협의하여 중국의 재정을 감독하고 그 자신이 중국의 통감이 되려고 하였다 한다. 이것은 이등박문이 한국의 통감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중국의 통감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만약 安氏의 일격이 없었더라면 이등박문은 아세아 전체를 이미 자기의 손아귀에 넣었을 것이다. 우리 華인이 심심히 감사하게 여기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고 하면서 안중근은 중국을 일제침략의 위기에서 구하여 준 은인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작은 한국에서 일대호걸이 나타났는데 유독 우리나라에 그런 인물이 없냐고 하면서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⁹⁾ 曾鏞도 같은 책의 서문에서 “이등박문은 한국을 기만하던 술책으로 중국을 피하려고 각국 밀사와 하얼빈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만약 이 모임이 결말을 보게 되었더라면 동야문제는 끝을 보았을 것이며 중국이 망할 날도 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왜인들이 독판을 치게 되고 黃帝의 후손들은 영원히 노예나 마소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 安君이 이등박문을 저격한 것은 실로 왜인들의 야심적인 정책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이다. 安君이 중화민국에 기여한 공로가 어찌 작다고 할 수 있으랴.”¹⁰⁾

안중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신문잡지의 논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民吁日報』¹¹⁾는 「이등박문통감암살안건을 논함」이란 두 번째 논설에서 “일본인들은 고려를 만주진출의 발판으로 삼고 遼瀋일대를 일본의 것으로 만들려 하였다. 일본이 이 일에 착수하자 三韓의 지사가 나서서 長驅直入하려는 그들의 말발굽을 끊었다. 비록 한국 사람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나 다행인 일인가? 이번 일이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천만다행의 일이다. 만약 불행하게도 이 일이 우리 국민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온 遼東三省은 이미 이등박문의 텃밭이 되어 버렸을 것이다.”¹²⁾고 하면서 안중근은 일본이 러시아와 더불어 만주를 분할하려던 음모를 저지시켰는데, 이러한 행동이 다행히 한국인이 저질렀을 망정이지 만약 중국인이 저질렀다면 일본은 필경 이를 구실로 만주에 출병하여 점령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실지로 청 왕조가 풍전등화와 같았던 1909년은 중국역사에서 국력이 가장 쇠약하였던 시기로 일본이 출병하였을 경우 기필코 서양열강에 의해 분열 망국하였을 것이다.

『民吁日報』가 연속 수편의 사설을 발표하여 안중근의 의거를 찬양하고 한국의 반일운동을 성원하자 상해주재 일본영사 松崗은 청나라 道台 蔡乃煌에게 압력을 가하여 신문발행을 영원히 금지시키고 기계는 다시 신문을 인쇄하지 못한다는 처분을 내리고 발행인 于右任¹³⁾을

9) 羅南山, 「安重根序」, 백암 박은식 저, 이동원 역, 『불멸의 민족혼 安重根』, 한국일보사, 1994, pp.29-30.

10) 曾鏞, 「安重根序」, 백암 박은식 저, 이동원 역, 『불멸의 민족혼 安重根』, 한국일보사, 1994, p.46.

11) 『民吁日報』는 중국 근대민주언론운동가의 한 사람인 于右任이 1909년 상해에서 창간한 신문이다.

12) 「論伊藤統監暗殺案」(2), 『民吁日報』, 백암 박은식 저, 이동원 역, 『불멸의 민족혼 安重根』, 한국일보사, 1994., p.142.

13) 于右任(1878-1960)은 중국 근대언론가, 시인이며 중국근대에서 제일 영향력이 컸던 민족일간지

상해에서 축출하였다.

3) 亞洲第一義俠

하얼빈 의거직후 중국인들은 안중근을 천고에 빛날 자객으로 보았는데 韓炎은¹⁴⁾ 자객은 국가존망의 위급한 시기에 간신을 처단하여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고 하면서 안중근은 世道人心에 감응하여 수 천 년 만에 하늘이 한국에 내린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荊軻¹⁵⁾나 聶政¹⁶⁾과 같은 중국 역사에서 제일 유명한 자객에 비하여 안중근은 “三韓의 賢人이며 세계의 영웅이다. 고대로부터 남의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자는 그 나라에 인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손을 썼다. 옛날 紂王의 수하에 賢人 3명이 있었기 때문에 周나라는 殷나라를 공격하지 못하였고 虞나라에는 宮之奇, 百里奚가 있었기 때문에 秦나라는 虢나라를 침공하지 않았다. 하늘이 안중근을 태어나게 한데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늘이 그가 태어나서 난을 겪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큰 벼슬도 못하고 나라의 존망과 생사를 같이하게 한 것은 무슨 까닭이겠는가? 타 버린 향불의 재에서 옥렬한 향기가 풍기고 줄 끊어진 현악기에서 미묘한 악곡이 울린다고 하더니, 혹시 하늘이 한국에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한 것은 세계의 후세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논할 때에 한국이 망한 것은 인재가 없어 망한 것이라고 비웃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¹⁷⁾고 하면서 안중근은 하늘이 한국에 내린 인물 즉 자객이라고 찬양하였다.

중국 근대 정치가이며 사상가인 梁啓超¹⁸⁾도 『秋風斷藤曲』에서 “창해장수 박랑사에서 秦王을 치듯, 하얼빈 역의 총소리 세계를 떨쳤네. 만민이 荊軻같은 영웅을 우러러보니, 그 사나이 평소인양 태연자약하고”라고 읊으면서 안중근을 張良¹⁹⁾과 荊軻에 비유하였다.

인 『呼民日報』(1908), 『民吁日報』(1909), 『民立報』(1910)의 설립자이다. 신해혁명이후 국민정부 교통부장, 심계원장, 검찰장 등 직무를 담임하였고 또 상해대학을 설립하였다. 장기간 국민정부 고급관료로 활동하다가 1964년에 대만에서 별세하였다.

14) 韓炎, 韓復炎이라고도 함. 江蘇省 泗陽 사람으로 근대혁명가이다. 젊어서 청군에 가입하였다가 동맹회 회원으로 됨. 鎮南關과 黃花崗 봉기에 참가하였고 2차 혁명 때에 黃興의 후임으로 討袁軍 총사령관을 담임. 혁명이 실패하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가 1910년에 강소성에 돌아와 군대를 조직하여 사양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함. 후에 상해에서 체포되어 살해됨.

15) 荊軻, 중국 전국시대 말기 魏나라 자객으로 기원전 227년에 燕나라 태자 丹의 명령을 받고 秦나라 왕궁에 들어가 地圖 안에 감추었던 비수로 秦始皇을 찌르려하였지만 실패하고 피살되었다.

16) 聶政, 중국 전국시대 韓나라 협객으로 살인죄를 짓고 濟나라에 숨어서 백정노릇을 하였다. 한나라 대신 嚴遂가 그를 찾아와 황금 100鎰을 주면서 재상 俠累를 죽일 것을 부탁하자 노모가 생전이므로 일단 거절하였다가 노모가 별세한 다음 협루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자살하였다.

17) 韓炎, 『安重根序』, 백암 박은식 저, 이동원 역, 『불멸의 민족혼 安重根』, 한국일보사, 1994, p.35.

18) 양계초(1873-1930), 중국 근대 정치가이며 사상가. 호는 任公. 康有爲의 학생으로 입헌군주제를 주장. 1898년 戊戌정변에 참가하였다가 실패하자 일본으로 망명하여 보통당을 조직하고 청조의 개조강화를 주장. 서양의 과학지식연구방법을 중국학계에 도입한 학자임. 주요 저서로는 『中國歷史研究法』, 『中國近代30年學術史』, 『飲水室文獻』 등이 있음.

자객론은 또 『民吁日報』와 같은 진보적인 신문에 의해 이론화되어 안중근의 의거와 같은 자객행위는 피압박민족이 민족해방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평가되었다. 또한 아세아 각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에는 안중근과 같은 자객이 적기 때문에 하루빨리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民吁日報』는 사설 「論伊藤統監暗殺案(一)」에서 “張良이 첩퇴로 秦王의 마차를 친 사건이라든지 荊軻가 진나라 왕궁에서 秦王을 찌르려던 사건은 모두 정치적 암살이다”고 하면서 근래의 정치개혁가들은 “왕왕 5步 이내에서 정치적 적수를 암살하는 행동으로 백만 대군의 혁명을 대체하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은 有史 이래 東亞의 크고 작은 10여 개 나라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일”로 “한국 사람은 참으려고 하여도 참을 수 없고 기다리려고 하여도 기다릴 수 없게 되어”²⁰⁾ 저지른 행위로 이등박문 본인을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원수를 갚으려 하였을 뿐이었다고 논평하였다. 그러면서 “아세아에서 망한 나라는 많지만 원한을 품고 모진 고생을 마다하며 일관적으로 분풀이 할 결심을 내린 자는 얼마나 보기 드문가? 바로 이 때문에 정치적 암살이란 東亞에서 오직 한국 사람만이 독차지 할 수 있는 美名으로 되었다.”²¹⁾고 하면서 한국인은 殺身成仁의 애국정신이 있는 민족이라고 찬양하였다.

『民吁日報』두 번째 사설에서 진일보로 “암살이란 혁명군의 보조적 수단이며 그의 형식을 바꾼 기능이다. 비록 국내 또는 국제문제에 기인하는 등 부동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의 종지를 요약한다면 자유를 희망하고 평등을 사랑하면 선천적인 인권을 회복하고 인도주의를 유지하려는 것이어서 대체로 일치한 것이다.”²²⁾ 고 하였는데 상술한 관점은 안중근이 법정에서 의병참모총장의 자격으로 이등박문을 사살하였다는 것과 상응한 이론으로 의혈투쟁도 독립투쟁의 일환이라는 결론을 지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들이 말하는 자객은 결코 테러리스터 즉 단순한 암살행위를 거행한 자객이 아니라 국가의 존폐위기의 위급한 시각에 살신성인하는 영웅 혹은 식민지 반식민지의 혁명군이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백만 대군이 없어 특수한 행동을 취한 의사로 보았는데, 중국 근대 민주혁명가 사상가인 章太炎²³⁾의 “亞洲第一義俠”이란 徽號가 가

19) 장량, 호 子房임. 전국시기 韓나라 귀족으로 秦나라가 한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조선에서 장수를 물색하여 博浪沙에서 秦王을 암살하려 하였다. 그 자객은 무게가 120근에 달하는 첩퇴로 진왕을 쳤으나 첩퇴는 진왕이 탄 수레에 맞지 않고 부관이 탄 차에 맞았다고 한다. 그 후 장량은 한고조 劉邦의 모사로 활약하였다. 본문에서 말한 창해장수란 장량이 고용한 자객을 말한다.

20) 「論伊藤統監暗殺案(一)」, 『民吁日報』, 백암 박은식 저, 이동원 역, 『불멸의 민족혼 安重根』, 한국일보사, 1994, p.135.

21) 주17과 같음.

22) 「論伊藤統監暗殺案(二)」, 『民吁日報』, 백암 박은식 저, 이동원 역, 『불멸의 민족혼 安重根』, 한국일보사, 1994, p.140.

23) 장태염(1869-1936), 이르는 章炳麟, 자는 枚叔, 호는 太炎, 大同. 중국 근대 민주혁명가 사상가 학자로 젊어서 經史를 전공하고 후에는 유신운동에 참가하여 민주혁명을 제창하였다. 1919년 5.4운동이후 점차 정치활동에서 탈퇴하여 학술에 전념하였다. 저서로는 『章氏叢書』, 『章氏叢書續』

장 적합한 귀납이 아닌가 생각한다.

4) 민족혁명의 선각자

안중근의 하얼빈의거 전후는 孫文을 위수로 하는 중국 혁명당인들이 부패한 청조통치를 뒤엎고 강력한 민족국가를 건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기였다.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로 방황하던 이들에게 안중근의 의거는 열혈청년들의 본보기로 되어 살신성인으로 혁명의 성공을 취득하려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혁명당인들은 “조선의 의사 안중근이 이 등박문을 사살한 행위와 汪精衛가 섭정왕 載灃을 알살한 것이 혁명의 先聲이다.”고 할 정도로 안중근의 행위가 중국의 민족주의혁명에 영향을 주었다고 긍정하였다. 羅南山은 더 나아가 “우리 중국이 異族(만주족을 말함-필자 주)에게 패망한 이후로 300년간 광복을 위한 의거가 누차 일어났지만 매번 좌절당하고 말았다. 최근 수십 년이래 지사들이 동분서주하여 그 기회를 잡고 때를 기다려 일어나려 할 때에 秦王을 치려던 子房과 같은 인물이 한국에 나타났다.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사들이 黃花崗을 피로 물들였고 武昌에서 봉기하여 우리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였다. 그렇다면 安氏의 의거가 우리들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도 있다.”²⁴⁾고 하면서 안중근의 의거가 신해혁명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에서 5.4운동을 전후로 하는 시기에 반제반봉건투쟁의 일환으로서 신문화운동이 일어나자 안중근의 의거는 또 선각자들이 민중을 불러일으키는 기치의 하나로 이용되었다.

중국의 신민주주의혁명의 선구자 진독수는 『敬告青年』이란 글에서 “吾愿青年之为孔墨，而不愿其为巢由；吾愿青年之为托尔斯泰与达噶尔(R.Tagore.印度隱遁诗人)，不若其为哥伦布与安重根。”²⁵⁾이라고 하면서 청년들에게 과감히 진취하여야지 은퇴하여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였다.

신문화운동시기에 안중근의 하얼빈의거는 중국 현대화극의 주요 소재로 되어 수많은 신식 연극들이 출현하였다. 중국 현대화극의 선구자의 한 사람인 任天知²⁶⁾는 1910년 말에 상해에서 진보적인 연구단인 進化團을 조직하고 봉건통치를 비판하고 혁명을 주창하는 많은 연극을 창작 공연하였다. 그중에서 「安重根刺伊藤」은 수개월간 남경, 상해, 무한, 장사 등지에서 공연되어 열렬한 호평을 받았다. 孫文은 일찍 이 연극단을 찬양하여 “是也學校也”라는 제

編』, 『章氏叢書三篇』, 『章太炎全集』등 5권이 있다.

24) 羅南山, 「安重根序」, 백암 박은식 저, 이동원 역, 『불멸의 민족혼 安重根』, 한국일보사, 1994, p.30.

25) 『青年杂志』1卷1号, 1915年 9月 15日 发行.

26) 임천지, 출생 연월일 불명, 일찍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신과극을 연구하였음. 1910년 말에 상해에서 進化團을 설립하고 혈사의(血蓑衣), 安重根刺伊藤 등 연극을 창작하여 공연하였다. 경제적 사정파 내부분열로 1912년 말에 극단을 해산하였다. 진화단은 중국 현대화극의 산생과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시를 써주었는데 이로부터도 진화단의 교육적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 같은 시기 春柳社와 같은 유명한 전문극단에서도 「安重根刺伊藤」을 공연하여 호평을 받았다. 5.4운동이 발발하자 중국 각지에서는 “21개 조약”을 폐지하고 매국역적을 징벌하며 일본으로부터 靑島를 되찾고 일본상품을 배격하는 반일애국운동이 광범하게 일어났다. 각지 학생연합회에서는 강연단과 연극단을 조직하여 거리와 부두 그리고 역전에서 시민들에게 반일애국선전을 진행하였다. 모택동이 혁명을 시작하였던 호남성 장사시의 학생연합회에서도 「高麗亡國史」, 「哀臺灣」 등 화극을 공연하였다. 호남성 제1사범학교의 중학생들은 20여 일의 시간을 들어 화극 「安重根」을 준비 공연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응을 일으켰다. 같은 시기 천진 北洋直隸第一女子師範學校에 다니던 鄧穎超(원명 鄧文淑)은 연극 「安重根」에서 안중근 역을 배당받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귀국한 周恩來를 요청하여 지도를 받았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은 세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었다.

안중근에 대한 연극은 민간예술의 소재로도 되어 영웅을 노래하고 반일정서를 일으키는 수단으로 되었다. 저명한 근대 민간예술인인 成兆才²⁷⁾는 1920-1928년 하얼빈에 와서 華樂園, 慶豐園 등 극장에서 「安重根刺殺伊藤博文」이란 評劇을 공연하여 관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1927년부터 張學良은 동북 각지에 36개소의 모범소학교 즉 新民小學校를 설립하였는데, 이 학교들에서는 매일 아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가와 함께 안중근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서 반일민족정서를 북돋았다. 1937년 중국의 전면적인 항일전쟁이 시작되고 국공합작이 이루어지자 周恩來와 郭沫若은 田漢이 이끄는 유명한 진보적 극단인 南社에 지시하여 안중근에 관한 연극을 만들어 무한, 장사 등 항일최전선에서 공연하게 하였다.

안중근의 사적은 많은 중국 사람들을 항일투쟁에 투신하도록 고무하였다.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인 巴金은 자기 자서전에서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사살한 사적은 나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는 나의 청소년시기에 숭배한 제일의 영웅이다.”²⁸⁾고 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초기 활동가의 한 사람이었던 運代英은 5.4운동 전야에 廬山에 유람을 갔다가 저녁에 우연히 안중근의 전기를 보고 감동을 받아 혁명에 투신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주은래는 “중조 양국민민의 항일투쟁은 1909년에 조선의 항일지사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을 저격하여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중국과 한국의 항일무장독립운동의 시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작이 될 수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을 본보기로 항일투쟁에 투신하기 시작하였다는 뜻도 내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7) 성조개(1874-1929), 자는 捷三, 潔三, 예명은 東來順. 화북성 樂縣 출생. 「楊三姐告狀」, 「安重根刺殺伊藤博文」 등 100여개 극본을 창작 공연하였음.

28) 巴金, 「火」

3. 『동양평화론』

『동양평화론』은 안중근이 여순감옥에서 집필한 『동양평화론』과 일본 관동지방법원의 법정에서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동양평화론』은 비록 「序文」과 「前鑑」밖에 완성하지 못하였지만 그의 동양평화사상 즉 동북아평화체제를 건립할 것에 관한 사상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안중근의 이러한 사상은 시대를 초월한 것으로 당시 중국 사람들에게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소박한 반일사상에 입각하여 중한 양국의 민족영웅이라는 관점으로 일괄하였고 그 후 점차 시대의 발전에 따라 동북아지역공동체의 주장이 나오면서 원조적인 사상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사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안중근의 거사동기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인식은 周浩가 쓴 「安重根序」를 통하여서 대략 알 수 있다, “비록 한국 노인들의 이야기와 지난날 그 나라의 사대부였던 사람들의 시편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대개 그의 담력에 탄복하거나 과감히 목숨을 바친 용기를 찬양하는데 그쳤으며 가장 깊이 있게 운운한 것도 讀書서로 浩然의 기를 길렀다고 하였을 뿐, 그의 품행 道義와 거사 종지에 대해서는 전해진 바가 극히 적었다. ……安君이 이등박문을 저격한 것은 다만 조국의 원수를 갚기 위함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의 공적을 없애 버리기 위함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비단 한국의 공로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아의 공로자이며 세계의 공로자이다.”²⁹⁾ 그리고 潘湘纍도 「安重根序」에서도 “만약 안중근의 일격이 없었더라면 비단 한국이 존속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의 평화도 이로 인하여 파괴되었을 것이며 중국의 운명도 어찌되었을지 모른다. 그가 격분하여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 다만 한국의 원수만을 갚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는 세계의 공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저들의 음모를 즉시 실행치 못하게 하였다.”고 평가하였다.³⁰⁾ 曾鏞도 「安重根序」에서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저격한 것은 나라의 치욕을 씻고 복수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의 공적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³¹⁾고 동감을 표시하였다.

중국인들의 상술한 인식이 백암 박은식의 『安重根傳』의 「緒言」중 “중근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이등박문을 평화의 공적으로 그 괴수로 여기고 그를 없애 버리지 않으면 화를 면치 못하리라 여겼기에 자기 목숨을 던져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 것을 무상의 행복으로 생각하였다. 주의가 상반되니 기필코 같이 살아 있을 수 없었으며 결국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논할진대 세계로 시야를 넓히고 평화의 대표자를 자임한 안중근의 거사를 어

29) 周浩, 「安重根序」, 백암 박은식 저, 이동원 역, 『불멸의 민족혼 安重根』, 한국일보사, 1994, pp.33-34.

30) 潘湘纍, 「安重根序」, 백암 박은식 저, 이동원 역, 『불멸의 민족혼 安重根』, 한국일보사, 1994, p.42.

31) 曾鏞, 「安重根序」, 백암 박은식 저, 이동원 역, 『불멸의 민족혼 安重根』, 한국일보사, 1994, p.46.

찌 한국의 원수만을 갚기 위한 일이라 할 수 있으랴!”³²⁾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보다도 안중근의 거사를 세계평화를 위해 평화의 공적을 사살한 세계적 영웅이라고 보는 것이 당시 중국에서의 보편적인 시각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了遺는 『題安重根先生傳後』에서 “나는 중국에 온지 오래되어 중국 사람들이 안중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은 안중근의 두 눈은 번개 같으며 한 눈으로는 조선을 보고 다른 눈으로는 중국을 보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들이 안중근을 숭배하는 심정은 얼굴색과 언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³³⁾고 하였다.

4. 기념사업

안중근은 오늘도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한국의 항일투사, 심지어는 유일한 항일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다. 연령이 50-60대인 사람들은 전설처럼 傳誦되어 온 이야기와 해방초기에 소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안중근의 이야기를 통하여 안중근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연령이 40-50대인 사람들은 1980년대 초에 중국 전역에서 흥행하였던 북한영화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쏜다』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기부터 1976년까지 중국은 “좌”적 사상의 영향과 문화대혁명으로 是非가 전도되어 안중근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였다.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중국에서 안중근 기념활동은 다시 재개하였고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1983년 조선문 『長春文藝』에는 송정환, 황현걸이 공동으로 지필한 「안중근전」이 4기에 걸쳐 연재되었다. 이 전기는 내용이 충실하고 취미성이 강하여 중국 조선족사회의 환영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楊昭全이 집필한 『安重根傳』이 商務印書館이 출판한 외국소설 총서에 수록되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1989년 10월, 안중근의거 80주년을 계기로 길림성 사회과학원에서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안중근 연구를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여기에는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과 상해 그리고 한국, 일본에서 온 20여명의 학자들이 참석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하얼빈역에서 기념의식을 거행하였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도 안중근은 그다지 낯선 인물은 아니다. 연변교육출판사에서는 동북지역 조선족학교에서 사용하는 조선어문교과서 제9책에 「열혈의 투사 -- 안중근」이란 문장을 실어 청소년들에게 애국주의교육을 진행하는 교재로 삼았다. 근래에 안중근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 큰 인기를 받고 있는데 2000년도 중국소설학회에서 평의한 10대 흥

32) 백암 박은식 저, 이동원 역, 「緒言」, 『불멸의 민족혼 安重根』, 한국일보사, 1994, p.53.

33) 了遺, 「題安重根先生傳後」, 백암 박은식 저, 이동원 역, 『불멸의 민족혼 安重根』, 한국일보사, 1994, p.132.

행 중편소설가운데는 阿成³⁴⁾의 『安重根擊斃伊藤博文』이 들어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저명한 작가이고 童話大師인 夏輦生이 김구,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을 소재로 창작한 소설 『船月』, 『虎步流亡』, 『回歸天堂』등 “한류 3부곡”은 중국문단은 물론이고 화인문화권까지 큰 반응을 일으켰다. 미국 強磊출판사와 全美中國作家聯誼會는 상술한 3부작을 중문 繁字體와 영문으로 미국에서 출판하였다. 한국에서 영화 『도마 안중근』이 제작되자 중국 내의 언론과 네티즌들 사이에는 기대에 찬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고 잇따라 안중근의 일대기를 회고하는 글들이 줄을 지었다.

재중한국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안중근기념사업은 재중한국인과 중국 조선족을 비롯한 당지 중국인들과 연결하는 고리로도 작용하여 중국에서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8년 6월 20일 청도 이창구 호산체육장에서는 “제1회 안중근의사컵 세평화 중한우호 울타리축구대회”가 개막되었는데 이번 대회에는 충도조선족축구협회, 한중체육협회의 주관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³⁵⁾ 같은 날, 안중근의사 의거 백주년기념 사진영상자료 순회전이 청도국제공예품성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주청도한국총영사관과 사단법인 한중친선협회, 하얼빈시조선민족예술관에서 주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안중근 의사 의거 백주년이 되는 2009년 대축제의 계열행사로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인과 연해도시로 진출한 조선족 동포들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청도에서 첫 스타트를 뒀다.³⁶⁾

안중근기념사업은 의거와 순국의 현장인 하얼빈과 대련지역의 전통으로, 이 두 지역에서는 당지의 조선족들뿐만 아니라 한족들 사이에서도 장기간 부동한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 하얼빈 지역

거사 현장인 하얼빈에서는 안중근에 대하여 남다른 자호감과 긍지감을 가지고 각종 기념행사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1987년부터 하얼빈 조선족 퇴직간부 문화활동센터와 조선족 부녀聯誼會 등이 공동으로 매년 3월 26일과 10월 26일에 안중근 의거 및 순국일 기념보고회, 좌담회, 문예공연 등 활동을 진행하여 왔다. 김우중, 서명렬, 김성배, 최범수 등이 선후하여 상술한 활동에서 안중근사적보고 혹은 연구보고를 하였다. 하얼빈의 조선족 민간예술인 김재곤은 1984년에 중병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 안중근의 동상을 제작하였는데 매년 기념활동에서 이 동상을 단상 중앙에 모셔놓고 활동을 진행하였다.³⁷⁾

34) 하얼빈시작가협회의 작가임.

35) 『흑룡강신문』, 2008년 7월 2일.

36) 위와 같음.

37) 김우중, 「在中國的安重根研究和紀念活動」, 『中韓抗日愛國運動論文集』1, 북경대학 歷史系 동북아 연구소, 1999.10, p.14.

1992년 3월, 하얼빈시에서는 흑룡강성 안중근연구회를 설립하고 김성배를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이 연구회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정부에 등록된 유일한 안중근연구회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연구회는 수차례 걸쳐 보고회, 좌담회 등을 조직하였으며 하얼빈시에 있는 안중근 관련유적을 고증하는 등 중국에서 안중근 연구 및 기념사업의 발전을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루었다. 특히 김우중(흑룡강성 당사연구소 전임 소장), 서명훈(하얼빈시민족종교사무국 전임 부국장) 등의 노력으로 근래에 하얼빈에서는 『불멸의 민족혼 --안중근』(이동원 역, 백암 박은식 저, 『안중근전』), 『논문, 전기, 자료--안중근의사』(김우중, 최서면), 『안중근의사 할빈에서의 열하루』(서명훈 저) 등 연구저서들이 발행되어 세상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하얼빈시 조선족사회의 안중근에 대한 사랑과 열성은 마침내 당지 정부를 감동시켰다. 조선하얼빈시인민정부에서는 안중근을 “하얼빈의 역사인물”로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얼빈시가 선정한 세계 40대 偉人”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中共 하얼빈시 宣傳部 부장과 시 문화국장을 역임하였던 작가 王洪彬은 오페라『安重根』을 창작하여 무대에 올렸다. 작곡은 호남성 음악협회 부주석을 담임하였던 저명한 음악가 劉振球가 담당하였다. 이 가극이 중국의 3대 오페라극장의 하나인 하얼빈가극원에서 공연되자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한국, 미국, 일본 등 나라의 한국인들이 소식을 듣고 감상하러 달려왔다. 그 후 한국에서 이 오페라를 무대에 올렸는데 선후 40여 차례 공연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오페라뿐만 아니라 하얼빈시에서는 2005년 3월 24일에 하얼빈 歌劇院교향악단에서는 “안중근의사 의거 95주년기념” 교향악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안중근 기념행사는 하얼빈시정부가 주관하는 대형행사들의 일부분으로 자주 등장하였다. 하얼빈을 대표하는 행사인 氷雪축제에서도 안중근 기념행사는 빼놓을 수 없는 행사로 되었다. 1997년 제23기 하얼빈빙설축제에는 “안중근의사 기념 사진전시”코너가 마련되어 있었다.

근래에 이르러 안중근을 기념하는 하얼빈시의 활동은 규모나 형식 등 면에서 모두 큰 변화가 일어났다. 2006년 7월 하얼빈시정부는 “2006년도 하얼빈 韓國周”개최를 계기로 하얼빈시 조선족문화관 내의 136평 면적에 “안중근의사 기념관”과 전시관 그리고 遺墨紀念碑(조린공원 즉 옛 하얼빈공원 내)를 설치하였다. 관내에는 흑룡강대학 교수가 제작한 안중근 동상과 사진자료 등 300폭이 전시되어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 규모가 제일 큰 안중근 기념관으로 되고 있다.

안중근 기념사업은 하얼빈시에서 이미 단순한 기념사업의 범위를 초월하여 사회 경제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로, 중한 양국의 경제문화교류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7년 6월 하얼빈시 경제협력촉진국은 “하얼빈안중근항목기획발전 有限會社”, 흑룡강성 조선족商工會와 한국신세기기술연구원주식회사, 한국원양건설주식회사 등과 공동으로 하얼빈시 송북구의 20,000km²의 부지에 130억을 투자하여 2010년 10월까지 하얼빈 신세기공원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공원 내에는 호텔, 생활서비스, 명절경축 등 구역 외에도 특별히 안중근 영화TV촬영센터, 안중근공원이 설치된다.³⁸⁾ 이때가 되면 하얼빈은 명실공한 안중근연구의 메카로 떠오를 것이다.

2) 대련 지역

안중근은 1909년 11월 1일에 12명의 일본 헌병의 압송 하에 조도선 등 9명과 함께 하얼빈을 출발하여 장춘을 거쳐 11월 3일에 여순에 도착하여 여순형무소에 수감되어 1910년 3월 26일까지 4개월 23일간 옥중생활을 하였다. 이 기간에 안중근은 여순감옥에서 10여 차례의 심문과 여순관동지방법원에서 6차례의 공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서전『안응칠역사』와 정론『동양평화론』(미완성)을 집필하였다. 만약 하얼빈의거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면 여순감옥과 여순관동지방법원에서 말과 글로 그의 사상을 세상에 알려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대련은 하얼빈과 더불어 안중근 연구 및 기념에서 제일 중요한 2개 극을 이루고 있다.

대련지역에서 안중근 기념사업을 논한다면 여순감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여순감옥은 안중근 연구의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는 자서전『안응칠역사』와 정론『동양평화론』(미완성)을 집필한 현장일 뿐만 아니라 32세의 젊은 생명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순국한 유서가 깊은 곳이기 때문이다. 비록 아무런 고증도 거치지 않았지만 1980년대 초에 여순감옥 내의 감방 복도에는 “조선의 항일지사 안중근이 수감되었던 감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어 관람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다. 중한 수교이후 여순감옥은 한국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의 후원을 받아 1998년에 여순감옥 내에 “안중근의사가 수감되었던 감방”과 “안중근의사 순국한 絞刑室”을 복원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안중근 관련유적지에 설립한 첫 기념시설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비록 여순이 지금까지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도경을 통하여 이곳을 찾은 한국인들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에 여순감옥에서는 상기의 교형실 옆방에 안중근 전시실을 설치하고 안중근의사의 일대기와 유묵 등을 전시하여 비교적 완전한 안중근의사기념 체제를 이룩하였다.

이외에 한국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은 또 여순관동도독부지방법원 구지를 매입하고 복원을 거쳐 2005년 5월에 여순일본관동법원구지진열관을 개관하였다. 이 진열관에는 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기타 중국의 항일지사들의 사적을 전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로 안중근의사가 6차례 재판 받은 법정이 복원되고 여기에 안중근의 일대기를 다룬 영상이 방영되어 관람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대련지역에서는 민간단체에서의 안중근 연구 및 기념행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0년, 대련시의 조선족노인협회에서는 산하에 100여 명이 참여한 “안중근연구회”(회장 李贊國)를 설립하고 매년 거사 및 순국일에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회는 2005년부터 노

38) 『흑룡강신문』, 2007년 6월 18일.

인협회란 한계를 넘어서 연구회 임원을 젊은 세대로 교체하고 젊은 회원들을 흡수하는 등 변혁을 거쳐 대련지역의 안중근 연구 및 기념활동을 주도하는 단체로 성장하였다.

근래 몇 년간 대련지역에서는 도록 『동북아평화와 안중근』(유병호)와 『안중근 연구』(華文貴) 등 연구저서와 수십 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는 등 동북아평화에 초점을 맞춘 안중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 맺는 말

내년이면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얼빈에서 의거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가 것처럼 바라던 독립이 실현된지가 이미 60년이 넘었지만 독립된 조국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여순의 황야에 쓸쓸히 누워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근래에 동양 삼국이 서서히 동북아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그 누구도 공동체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의사가 미완성한 『동양평화론』에 대하여 더욱 아쉬움을 갖게 되고 그나마 남겨준 「서언」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역사는 안중근 의사의 구상이 더는 空想이 아님을 말하여 준다. 앞으로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동북아지역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의사에 대한 가장 좋은 추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앞으로 100년간 중국인들이 바리불 안중근 의사의 형상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05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용

金 旻 奎(동북아역사재단)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

— 메이지(明治)일본이 체결한 諸 ‘조약’을 중심으로 —

金 旻 奎(동북아역사재단)

〈목 차〉

I. 머리말	III. 메이지일본과 對歐美
II. 메이지일본과 對淸 · 對朝鮮	가. 英日同盟
가. 淸日修好條規	나. 러일講和條約
나. 朝日修好條規	다. 태프트 · 카즈라協定
다. 天津會議專條(天津條約)	라. 러일協約
라. 下關係約	IV. 맺음말

I.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500여 년 역사의 조선이 어떠한 국제질서 하에서 그 국제질서의 변동과 어떻게 연계 · 연동하면서 메이지일본(이하 일본)에 의해 병합되어 갔는지를 개관해 보는 것이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史的 원인은 상당히 많겠지만, 직접적인 발단으로 1876년의 수호조규(修好條規)¹⁾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수호조규는 第1款에 ‘조선은 자주지방(自主之邦)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²⁾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주’의 개념 즉 해석을 둘러싸고 생긴 갈등의 전개 양상과 국제질서 변용의 모습이 그 궤를 같이 하였다.

갈등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華夷觀에 입각한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에 의한 국제질서 즉 조공책봉체제(이하 조공체제)와 만국공법에 입각한 유럽의 국제질서 즉 조약체제와의 충돌에서 비롯됐다. 사실 조공체제와 조약체제의 충돌과 갈등이라고는 하지만, 조선을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자리 매김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그 갈등과 충돌을 야기했던 중심 국가는 사실 조약체제의 당사자인 유럽 국가가 아닌 같은 동아시아 圈內的 국가 일본이었다.

1) 일반적으로 ‘강화도조약’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史料에 보이는 바대로 ‘수호조규’라 불러야 한다. 의도했든 아니든 당시 청과 일본은 이미 서구열강과 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조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청, 일본, 조선 3국 사이에 서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때에는 조약이 아니고 조규(혹은 장정)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2) 《高宗太皇帝實錄》 卷13, 15葉.

토쿠가와(德川) 바쿠후(幕府)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앞세워 등장한 왕정복고 정권인 신생 일본 역시 처음부터 만국공법에 의한 조약체제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것은 아니었다. 페리 함대의 위용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토쿠가와일본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무관하여 同 질서로부터 ‘열외’의 상태였기 때문에, 尊王攘夷³⁾ 운동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유럽적 국제질서를 수용함에 있어 조선이나 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항이 심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철저한 쇄국정책으로 중국의 자리에 자신을 관념적으로 대입시켜 놓은 이른바 日本型華夷意識⁴⁾으로 자기만족을 해야 했던 토쿠가와일본으로서는 그간의 국제질서를 부정하고 새롭게 ‘판’을 짤 수 있는 훌륭한 근거가 될 듯싶은 조약체제를 달리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다 할 대응도 못한 채 무기력하게 서구열강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조약을 체결했던 토쿠가와 정부는 결국 그 無力함으로 인해 권위를 상실하고 자멸하고 말지만, 이후의 신생 메이지정부는 집권과 거의 동시에 만국공법을 앞세워 기존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흔드는 외교를 전개한다.

그러나, 일본이 보내온 국서에서 國階 즉 국가 간 위계(international hierarchy)에 변화의 조짐을 본 조선의 저항과 또 청의 교묘한 ‘트릭’이라 할 수 있는 조공체제의 한 변형인 條規體制⁵⁾의 운용으로 기존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그리 쉽게는 깨뜨리지 못한다. 일본은 청 그리고 조선과 수호조규를 각각 체결함으로써 동 지역의 국제질서가 조약체제로 變轉된 것이라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해 결국 청일전쟁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3) 존왕양이에 관해서는 다음 줄고 참조. Kim Minkyu, "Sonnō Jōi : The leaps in logic in modern Japanese political scene,"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3:1, 2003.

4) 18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특징을 중국·조선·일본의 국가권력이 각기 海禁 즉 쇄국과 화이질서에 의해 외적 관계를 독점적으로 편성하여 상호 恒常的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각기 자국을 華로 타국을 夷로 설정하여 자국이 (문화적으로) 뛰어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본 역시 나름대로 자국이 華였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함.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1988. 하지만, 18세기 일본에 이러한 일본식 화이의식이 있었다는 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그는 당시의 일본 지식인들이 세계지리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와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가 수많은 다른 나라로 구성되어 있어, 예컨대 중국이 대국이라는 하나 역시 하나의 나라에 불과하고 일본도 우수하기는 하지만 또한 하나의 나라라는 ‘만국병립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18세기의 ‘만국병립의식’은 19세기 초가 되면 문화적 우월의식으로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화이의식’보다는 리얼 폴리틱스적인 현실인식에 입각한 군사력이나 경제력 즉 富強이 강조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 참조. 박훈, <18세기말-19세기초 일본에서의 ‘戰國’의 세계관과 해외팽창론>, 《東洋史學研究》 104, 2008.

5) 조규체제에 대해서는 다음 줄고 참조. <近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變容과 清日修好條規(1871年) : ‘條規體制’의 生成>, 《大東文化研究》 41, 2002; <近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變容과 朝鮮 : ‘條規體制’의 成立과 瓦解>, 韓國史研究會 編, 《韓國史의 國際環境과 民族文化》, 景仁文化社, 2003; <개화기 兪吉濬의 국제질서관 연구 : ‘兩截體制’와 ‘條規體制’의 관련성에 대하여>, 《韓國人物史研究》 3, 2005.

조규체제를 와해시키고 ‘자주국’이었던 조선을 ‘독립’시킨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이 되기 위한 근대화의 한 선결조건으로 생각했던 조선의 병합을 위해,⁶⁾ 이번에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 등 바로 그 제국주의 서구열강의 ‘승인’을 돌아가며 얻어야 했다.

이하, 조선을 둘러싼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모와 그 ‘승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메이지 정부가 여러 외국과 체결한 조약(혹은 협정, 협약) 중 중요한 것들만을 추려 재구성해 본다.⁷⁾

II. 메이지일본과 對淸 · 對朝鮮

가. 淸日修好條規

왕정복고 쿠데타로 바쿠후 정권을 무너뜨리고 1868년 메이지 정부를 수립한 일본은 그 사실 즉 ‘太政維新’을 알리기 위해 제일 먼저 조선으로 사신을 보냈다. 그런데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은 그들이 가지고 온 國書의 내용에 ‘我邦皇朝聯綿’이니 ‘禮朝參判公’ 그리고 ‘奉勅’ 등 전례가 없는 용어들이 보이자 접수를 완강히 거부하여 수교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⁸⁾ 일본은 조선의 宗主國인 청과 관계를 맺으면 조선과의 외교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되리라 판단 하에 청에게 접근하였다.

아편전쟁의 패배로 서구열강과 차례차례 조약을 맺어 문호를 개방하고 있던 당시의 청은 점차 가중되는 열강의 침략에 함께 대응할 상대를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일본이 수교를 원해 왔기에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였다. 일본의 의도는 새로운 국제질서 규범 즉 만국공법에 입각하여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판도를 재편하려는 데에 있었지만, 청의 의도는 ‘聯日以制西’⁹⁾ 즉 일본과의 연대를 통해 서구열강에 대항하려는 데에 있었다.

1871년 7월 29일 天津에서 총 18개의 조항의 ‘大清國大日本修好條規’(이하 청일수호조규)가 直隸總督 리홍장(李鴻章, 1823-1901)과 大藏卿 다테 무네나리(伊達宗城, 1818-1892) 사이에 조인되었다.¹⁰⁾ 이렇게 해서 수세기에 걸쳐 정식 국교가 없던 청일 양국은 국교를 재개하게 되었는데, 수호조규의 내용은 차치하고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그 명칭이 조약이 아니라 조규로 되어 있는 점,¹¹⁾ 또 ‘법’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양국을 대표하는 군주

6) 졸고, <近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變容과 朝鮮 : ‘條規體制’의 成立과 瓦解>, 214쪽.

7) 토쿠가와일본 말기 즉 일본의 ‘개국’ 시기에 일본이 서구열강과 체결했던 여러 조약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8) 東京大使料編纂所, <明治史要>, 東京大學出版會, 1933, 36쪽.

9) <李鴻章全集> 第2冊:奏稿 · 卷17, 53-54葉.

10) <日本外交文書> 第4卷 · 第1冊, 204쪽.

11) 조규로 명명이 되어 있어 조약과는 분명하고도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의 명의 또는 군주의 위임 여부 등이 수호조규 안에 명기되지 않은 채 ‘관계자’가 직접 조인을 했다고 하는 점이다.¹²⁾

이 조규는 전문에서 “본디 예로부터 우의가 돈독하여 왔던바 이제 옛 우호관계를 원래와 같이 다시 맺어 더욱더 邦交를 굳게 하고자 한다”¹³⁾고 밝히고 있다. 즉 이것은 중단되어 있던 옛 우호관계를 수복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 하려 한다는 점에서, 구미열강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처음 국교를 맺는 것과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른 것이었다.

수호조규의 제1조는 각국의 所屬邦土에 대해 侵越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청일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불공정하거나 업신여겨 가버어 취급되는 일이 일어날 경우 그것을 반드시 알려 서로 돕거나 혹은 중재를 하여 友誼를 돈독히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즉, 제3국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居中調整(good offices)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리홍장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이 수호조규는 청과 일본이 서구열강으로부터 각각 강요당했던 불평등한 내용 즉 관세자주권의 유무 및 치외법권의 인정 여부를 정하지 않아 비교적 평등한 ‘조약’으로 평가되고는 있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우선 그 명칭이 말해 주듯 ‘조약’이 아니고 양국 군주의 명의라든가 위임 여부 역시 불확실한 것으로 조약이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약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의 章程에 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만국공법을 준거로 ‘조약’을 체결하여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새롭게 재편해 보려는 일본의 의도는 수호조규 체결로 ‘형식적’으로는 일단 달성되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오히려 청의 의도대로 흘러가 일종의 군사적 동맹을 구축한 결과를 낳았다. 그러니까 청은 일본과 수호조규를 맺음으로써 조약체제에 들어가는 대신 조규체제를 ‘생성’¹⁴⁾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서구열강의 점증하는 동아시아 침입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청이 宗屬關係에 있는 조선에 더불어 일본과는 수호조규를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 3국 제휴를 이루려 했던 것이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일본은 조규 내용의 개정을 청에게 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 돌

이 그냥 조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영문명 역시 모든 경우에 있어 무심코 treaty ("Treaty of Tientsin, 1871")로 번역되어 있다. 다음 참조. (China. The Maritime Customs. III.---Miscellaneous Series :No. 30.)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Vol. II [Second Edition.], Shanghai, The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1917, p. 507. 이 책은 이하에서 TCCFS로 약칭. 조약과 조규 그리고 장정의 상관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한 에세이로는 다음 참고. <조규? 조약>, 《역사비평》 75, 2006, 273-279쪽.

12) 江寧條約(南京條約, 1842년 7월 24일[양력 8월 29일])은 ‘大清大皇帝’와 ‘大英君主’의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화친조약은 그 前文에서 “... 合衆國으로부터 全權... 日本君主로부터는 全權...”라 하여 조약체결 당사자의 위임 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있다. 《道光條約》第1·英約(江寧條約)34葉. 《日本外交文書》 第4卷·第1冊, 204쪽. 《同治條約》第20·日本約(修好條規)1葉.

13) 《同治條約》第20·日本約(修好條規)1葉. 《日本外交文書》 第4卷·第1冊, 204쪽.

14) 참고, <近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變容과 清日修好條規(1871年) : ‘條規體制’의 生成>, 2002.

파구를 조선에서 구하고자 결국 운요호(雲揚)호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¹⁵⁾

나. 朝日修好條規

조선통신사의 渡日을 중단한 1811년 이래, 앞서 잠깐 언급한 메이지 정부가 보내온 國書 접수 거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1875년 운요호 사건이 발발하기까지 조선과 일본 양국 간에는 특별한 교류가 없어 사실상 60여 년 동안 국교가 중단된 상태로 있었다. 조선정부는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익현(崔益鉉, 1833-1906)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斥邪論者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수교 재개를 위한 협상에 임해 1876년 2월 26일 ‘大朝鮮國大日本修好條規’(이하 조일수호조규)를 맺었다.

이 조일수호조규 역시 앞서의 청일수호조규와 마찬가지로 ‘조약’이라는 명칭이 배제된 채 조규로 명명되었다.¹⁶⁾ 이 점 역시 조선이 이후 여타 서구열강과 체결하는 조약과 구별된다. 앞서의 청일수호조규와 약간 다른 점은 調印 당사자였던 신현(申櫛, 1810-1888)과 윤자승(尹滋承, 1815-?) 그리고 일본의 쿠로다 키요타카(黑田清隆, 1840-1900)와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 1835-1915)가 조선정부와 일본정부로부터 각각 권한이 부여되었음이 명기되어 있다는 것이다.¹⁷⁾ 그러나 1882년 조선이 미국과 체결한 朝美條約의 경우 단지 정부로부터가 아니라 조선국 君主와 미국 大統領이 임명한 특사에 의해 행해졌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이 조일수호조규 역시 왠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든다.

일본은 수호조규 第1款에서 “조선은 自主之邦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규정을 들어, 조선은 청으로부터 ‘독립’을 한 엄연한 독립국으로 청이 간섭을 해서도 또 조선이 청의 간섭을 받을 이유도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¹⁸⁾ 그래야만 청의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에서 정치 및 경제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공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질서 내에서의 조선과 청 양국의 宗屬關係는 종주국과 속방(屬邦)의 관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내치와 외교에 있어서의 자주권은 인정하고 있

15) 강화도사건의 전모를 밝힌 일본 측 보고서가 윤색되었음을 밝힌 연구로는 다음 참조. 鈴木 淳, 《維新のと構想展開》, 講談社, 2002, 126-132쪽.

16) 이 조일수호조규 역시 ‘강화도조약’이라든가 ‘병자수호조약’ 등으로 칭해짐으로써, 그것이 조규임을 무색케 하고 있다. 영문명 또한 필자의 논문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treaty[“Treaty of Kang-hoa, with Japan (1876)”]로 번역하고 있다. 다음 참조. (China. Imperial Maritime Customs. III.---Miscellaneous Series : No. 19.) Treaties, Regulations, Etc., between Corea and Other Powers., 1876-1889. Shanghai, The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1891, p. 1. 이 책은 이하에서 TRCOP로 약칭. 참고, <조규? 조약>, 273-279쪽.

17) 《高宗太皇帝實錄》 卷13, 15葉.

18) 이 ‘自主之邦’이 어찌된 영문인지 영문에서는 ‘獨立之國’으로 둔갑되어 있다. “Corea being an independent State enjoys the same Sovereign rights as does Japan. ...”, TRCOP, p. 1.

어, 서구에서 회자되는 독립국과 피식민지국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조일수호조규 체결 직전, 청과 조선의 관계를 묻는 일본 사신의 질문에 청은 “조선이 비록 중국에 번복(藩服)하였으나 본디 일체의 정교금령(政教禁令)은 오로지 당해국이 자유롭게 행하는 것으로 중국은 간여치 않는다”라고 답을 하고 있다.¹⁹⁾

이후 청은 1882년 조선에게 미국을 비롯한 서구열강과 조약을 맺을 것을 권도(勸導)하고 이어 자국과는 商民水陸貿易章程(이하 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조규체제를 확립시켜 전통적 조공체제의 큰 틀을 유지시켜 나아간다.²⁰⁾ 반면 일본은 김옥균 등 조선의 급진개화파와 손을 잡고 甲申政變을 유도하여 조공체제(조규체제)의 해체를 꾀한다. 주지하듯, 갑신정변은 조선이 여태까지 취하고 있었던 對淸 아니 對중국 외교의 총체적 부정과 함께 만국공법에 입각한 외교체제로의 전환을 꾀했던 ‘脫華革命’에 다름 아니었다.²¹⁾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후, 일본 노선 즉 구미 만국공법에 의한 국제질서로의 변용을 꾀했던 급진개화파의 一掃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4-1901)의 ‘脫亞論’²²⁾이 웅변하듯 조선에서의 일본 세력은 급격히 위축된다. 청측 역시 갑신정변을 자국과의 조공관계를 단절 즉 ‘反中國’ 행위로 인식하여 조선정책을 전환하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으며,²³⁾ 조선 자신의 개혁과 개화운동에도 심각한 타격을 안겨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²⁴⁾

다. 天津會議專條(天津條約)

갑신정변은 동아시아 3국 군대가 서로 충돌을 한 일대사건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어 3국간에 그 사후처리를 둘러싸고 먼저 1885년 1월 9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漢城條約,²⁵⁾ 그리고

19)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 1葉.

20) 조선과 청의 무역장정 체결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다음 줄고 참조.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용과 淸商民水陸貿易章程(1882년) : ‘條規體制’의 확립>, 동양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2007. 10. 27. 연세대학교).

21) 줄고, <近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變容과 朝鮮>, 2003, 192쪽. 같은 시기에 임오군란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구질서의 회귀’(이태진, <1876년 강화도조약의 명암>, 《한국사 시민강좌》 36, 2005, 137쪽)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은 청의 對조선 정략과 맞물려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어 흥미롭다.

22) 탈아론은 오직 일본만이 아시아의 구습을 벗어 던지고 서양문명을 받아들여 문명의 길을 걷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이웃국가인 조선과 청을 ‘동방의 惡友’로 칭하여 사절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時事新報》, 1885년 3월 16일 기사. 《福澤諭吉全集》 10, 岩波書店, 282-240쪽.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줄고 참조. <福澤諭吉와 朝鮮開化派 : 그의 對朝鮮觀>과 개화파에 대한 원조를 중심으로(1885년 초까지)》, 《實學思想研究》 2, 1991.

23) 권혁수,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혜안, 2007, 204-222쪽.

24) Yöng-ho Ch'oe, "The Kapsin coup of 1884 : A reassessment," Korean Studies 6, 1982, p. 122.

25) 漢城條約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정식 명칭이 아니라 편의상 붙여진 이름이다. 일본의 정식 명칭은 ‘明治十七年京城暴徒事變ニ關スル善後約定’이다. 이 약정은 김굉집(金宏集; 金弘集, 1842-1896)

청과 일본 사이에는 1885년 4월 18일에 天津會議專條(天津條約)²⁶⁾가 각각 맺어졌다. 전자는 주로 謝意 표명이라든가 일본 측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의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에 비해, 후자는 주로 군대의 철수와 파병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해 놓음으로써 훗날 양국이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불씨를 배태시켜 놓았다.

1. 중국은 조선에 駐紮하는 병을 철수하며 일본국은 공사관의 호위를 위하여 조선에 주재한 兵員을 철수한다. 조인일로부터 起草하여 4개월을 기한으로 정하고 (중략) 중국 兵은 馬山浦로부터 撤去하고 일본국의 병은 인천항에서 철거한다.
1. 조선왕에게 권하여 병사를 교련함으로써 치안을 충분히 自護케 할 것을 양국은 똑 같이 승인한다. 또 조선왕에게 제3국의 무관 한 명 내지 수 명을 선발 고용하여 군사교련을 위임하되 차후 중일 양국은 派員하여 조선에 주재하며 교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 장래 조선국에 만일 변란이나 중대사건이 발생하여 중일 양국 혹은 어느 한 나라가 파병을 필요로 할 시에는 응당 그에 앞서 쌍방이 行文知照(=書面通告)하여야 한다. 그 사건이 진정된 후에는 즉시 그 병력을 전부 철회하여 다시 잔류해서는 안 된다.

라. 下關係約

청은 1882년 조선과의 무역장정 체결과 1884년 조선에서의 정변 이후 조규체제에 입각하여 본래의 조공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며 조선에 대한 간섭 정치를 강화해 나아갔다. 따라서 조선은 서구적 국제질서로의 개편은 고사하고 조공체제의 본질적 성격인 내치외교에 있어서의 자주권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당시의 조선이 놓인 국제적 위치는 이러했다. 한편으로는 서구열강과 조약을 체결하여 조약체제 내로 편입이 된 상태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으로 인해 종래의 조공질서를 유지해야 했던 그러니까 조약체제에도 또 조공체제에도 발을 들여 놓은 그런 형편이었다. 그러한 애매모호한 국제질서에 처한 상태를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은 양절(兩截)체제라 비판했다. 조선의 자주성이 청에 의해 심각히 훼손되었기 때문이었다.²⁷⁾

과 이노우에 카오루(井上 馨)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총 5款으로 되어있다.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101쪽.

26) 청은 조약이라 칭하지 않고 ‘친진회의진조’ 혹은 ‘中日約款三條’라 명명했다. 《李鴻章全集》 第3冊 : 奏稿·卷53, 28葉. 일본은 공식 명칭을 붙이지는 않고 그냥 ‘친진조약’으로 부르고 있는데 편 의상 그렇게 한 듯 보인다. 영문명은 조약이 아니라 ‘협정’ 이나 ‘협약’ 정도의 의미인 convention 으로 되어 있다. "Convention of Tientsin, 1885", TCCFS, p. 588.

27) 유길준은 조선이 미국 등 서구열강과 대등 평등한 조약관계에 있고, 또 그 서구열강이 청과 대등 평등하게 조약을 맺고 있으니, 결국 ‘친구의 친구’인 관계에 있는 조선과 청은 서로 대등한 관계

한편 일본은 청을 가상적으로 하여 군사력 증강에 가일층 힘을 쏟았다. 1890년 당시 수상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1838-1922)는 연설에서 主權線뿐만이 아니라 利益線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는데, 여기서 주권선이란 영토를 말하며 또 이익선이란 국토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근린지역 즉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야마가타의 발언은 곧 조선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것으로 즉 청일전쟁을 예고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²⁸⁾

1894년 4월 조선에서 농민전쟁이 발발하자 궁지에 처해 있던 조선정부에게 위안스카이(袁世凱, 1859-1916)가 淸兵을 청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청일전쟁의 막이 열렸다.²⁹⁾ 일본은 1895년 8월 26일 조선에게 朝日盟約(大朝鮮大日本兩國盟約)³⁰⁾을 강제로 맺게 하였다. 맹약이 정하는 바의 목적은 “청병을 조선국 국경 밖으로 철수시켜 조선국의 독립자주를 鞏固히 하여 조일 양국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것이며, “일본은 청에 대해 攻守 전쟁을 담당하고 조선국은 日兵의 진퇴와 그 식량준비를 위해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11월에 旅順을 이듬해 3월에는 澎湖諸島를 점령하여 승리를 확정지은 일본은 4월 17일 시모노세키(下關)에서 청과 講和條約을 맺음으로써 전쟁을 종결시킨다. 조약은 제1조에서 “청국은 조선국의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1876년에 체결된 조일수호조규 제1항의 ‘自主之邦’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그간 청일 양국 간의 갈등이 ‘완전무결’하게 해소된다. 일본은 20년의 시간과 ‘공’을 들여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제적 위상(성격)을 ‘자주지방’에서 ‘독립자주국’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따지고 보면 일본이 그간 ‘조선문제’에 그토록 힘을 기울여 온 것도 청이 그토록 견지하려 했던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인 조공체제를 타파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청일전쟁 발발 직전 조청 양국 관계의 ‘모순’을 추궁하는 일본의 집요함 속에 잘 배어있었다.³¹⁾

여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필자의 조규체제와 유길준의 양절체제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줄고 참조. <개화기 兪吉濬의 국제질서관 연구: ‘兩截體制’와 ‘條規體制’의 관련성에 대하여>, 《韓國人物史研究》 3, 2005.

28) Akira Iriye, "Japan's drive to great-power status,"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ume 5: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 764.

29) 이태진 교수는 고종이 자진해서 청의 원군을 청했다는 설을 비판하여, 그것은 조선정부의 자의가 아니라 위안스카이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음을 주장한다. 이태진, <1894년 6월 청군 출병(淸軍出兵) 과정의 진상: 자진 出兵說 비판>,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그런데, 위안의 파병 요청이 실은 辦理公使였던 스시무라 후카시(杉村 濬, 1848-1906)의 부추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펍 흥미롭다.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 참조. 줄고, <近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變容과 朝鮮: ‘條規體制’의 成立과 瓦解>, 193쪽, 각주 76.

30) 《高宗太皇帝實錄》 卷32, 29葉.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157쪽.

31) 이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구선희,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와 전통적 조공관계의 성격>, 《史學研究》 80, 2005.

문제의 제1조 全文을 소개한다.³²⁾

중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무릇 독립자주체제를 훼손하는 중국에 대한 貢獻·典禮 등은 이후 이것을 완전히 철폐한다.

1895년의 講和條約은 거시적으로는 고대 이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근간이었던 조공체제의 해체를 가져왔으며, 미시적으로는 1871년 청일수호조규 이후 조성됐었던 조규체제의 붕괴를 초래케 하였다.

Ⅲ. 메이지일본과 對歐美

가. 英日同盟

청일전쟁 후의 동아시아 정세는 여전히 불안했다. 일본은 러시아·독일·프랑스에 의한 이른바 삼국간섭(Triple Intervention)으로 궁지에 몰렸고, 국력의 취약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청은 서구열강에 의한 정치·경제적 침탈로 그들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이다.³³⁾ 그 과정에서 서구문명의 급격한 유입과 자국의 반식민지 상태에 대한 반발로 의화단사건이 발발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동아시아의 政情은 더욱 더 불안정하게 된다.

의화단 사건이 진정된 이후에도 러시아의 만주 점령이 지속되자, 자국의 이익을 제각기 보호하려는 생각에서 영국과 일본이 의기투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일동맹(The Anglo-Japanese Alliance, 제1차)이다. 즉, 일본은 한국에서의 이권 보호를 위해 한국을 자국의 세력범위로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영국과 동맹을 맺으려 했다. 그리고 영국은 청에서의 자국의 이권 보호도 그렇고, 또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따른 청·중근동·인도에까지 위협을 느끼게 되자 일본의 군사력을 이용할 목적에서 일본과 협약을 맺게 된다. 6개조로 된 양국의 동맹협약은 1902년 1월 30일 런던에서 조인되었는데, 핵심이 되는 제1조와 제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⁴⁾

32) 《日本外交文書》 第28卷·第2冊, 363·368쪽.

33) 청일전쟁은 1880년대에 아프리카 분할을 마친 구미 열강의 눈을 다시금 아시아로 향하게 하였는데, 삼국간섭이 바로 그것이다. 原田敬一, 《日清·日露戰爭》, 岩波書店, 2007, 186쪽. 참고로 러시아의 覺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국 황제폐하의 정부는 일본국이 청국에게 요구한 강화 조건을 査閱하는 바 그 요구에 관계하는 요동반도를 일본이 소유하는 것은 항시 청국의 수도를 위협하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조선국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으로 장래 오랫동안 극동 영구의 평화에 대해 障害를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러시아국 정부는 일본국 황제폐하의 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성실한 우의를 표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요동반도를 확연히 영유하는 것을 포기할 것을 권고한다.”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 169-170쪽.

34)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 203-204쪽.

제1조는 영국과 일본의 양 체약국은 서로 청국 및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침략적 경향(aggressive tendencies)에 영향을 받지 않아 일본은 청과 한국에 대하여 또 영국은 주로 청에 대해 특별한 이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 이 특별한 이익이 제3국의 침략적 행동에 의해 침탈당하거나 혹은 청 또는 한국에 소재하는 영일 각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간섭을 필요로 하는 소동이 발생하여 侵迫당하는 경우, 양 체약국 모두가 해당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승인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제2조는 중립에 관한 사항으로 체약국의 일방이 청 또는 한국에 소재하는 자기의 이익을 防護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다른 일방은 엄정중립을 지키고 함께 그 동맹국에 대하여 타국이 교전에 추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1조는 영국과 일본이 서로 청 또는 한국에서의 특수한 이익을 인정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각국의 자유행동을 허용한 것이다. 그리고 제2조는 영국과 일본 중 어느 한 나라가 청과 한국에서 제3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타국이 엄정중립(a strict neutrality)을 지킬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전 중의 체약국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유리하게 행동할 것 즉 정치적으로 호의적 중립(a benevolent neutrality)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과 한국에서의 이익 그러니까 영국과 일본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명시 하지는 않았지만, 그 교전 대상국이 러시아를 의미하는 것임은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리고 2년 후의 러일전쟁을 상정해 보면 바로 이 동맹협약으로 일본은 세계 최대 강국 중 하나를 정치 및 군사적 후원자로 얻게 된 것이며, 또 한국에서의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러시아와 교전을 불사할 수도 있다는 근거 역시 마련하게 된 것이다.³⁵⁾

영일동맹이 옹변으로 말해 주듯, 일본은 청일전쟁 승리 후 그 국제적 지위가 한껏 높아졌다. 일본은 그렇게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이용하여 수십 년간의 현안이었던 불평등조약의 개폐 및 영사재판권 철폐에 차례로 성공한다. 그것은 곧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합류하여 그

35) 일본이 영국과 동맹협약을 맺기 약 8개월 전쯤인 1901년 4월, 駐淸 일본 공사 코무라 슈타로오(小村壽太郎, 1855-1911)가 본국의 카토오 타카아키(加藤高明, 1860-1926)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보문을 보면 그 ‘교전 대상국’이 러시아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코무라는 일본이 러시아와 충돌할 경우 영국·독일과 결합하여 프랑스를 중립화시킴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또 일본이 러시아와 갈등이 생겼을 때 아무도 지원할 열강이 없으면 청의 남부에서 일본의 이익을 잃게 될 것임으로 영국(그리고 독일)과 동맹을 맺어야 함을 설득하고 있다. 1. It would strengthen our position vis-à-vis Russia as England in combination with Germany would be able to keep France neutral in the event of conflict between Russia and Japan. 2. It would, if properly arranged, prove useful in safeguarding our interests in South China which might be endangered, if Japan had no other Power to support her while she was engaged in conflict with Russia, and... (하략). 《日本外交文書》 第34卷, 3쪽.

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러일 강화조약을 불과 한 달도 채 남겨 놓고 있지 않은 시기인 1905년 8월 12일 제 2차 영일동맹이 맺어지게 되는데, 양국은 청과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영국은 청에서 그리고 일본은 청과 한국에서의 이익을 옹호하며, 어느 한 나라가 타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 중립을 지키고, 상대국에 한나라 이상 더해지는 경우에는 다른 동맹국이 참전한다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³⁶⁾

이로써 일본은 영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보호권’에 대한 확보, 즉 ‘승인’을 얻게 되었다.

나. 러일講和條約

사실, 일본이 영국과 동맹협약을 맺은 이유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일본의 對러 책략은 두 가지 방향의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 등의 주장인 이른바 滿韓交換論³⁷⁾에 의한 러시아와의 제휴로 그것을 통해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을 막아보고자 하는 구상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軍 출신으로 제9대 수상(1890-1900)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1838-1922)와 외무대신 코무라 주우타로(小村壽太郎, 1855-1911) 등의 러시아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토대로 강력히 대처하자는 방향이었다. 결국 후자 쪽으로 기울기는 하였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영국과 일본이 러시아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공통된 反러시아 감정 때문이었다.

영국으로서는 의화단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러시아가 京奉철도를 계속 점거하고 있는 것은 英露鐵道協定(The Anglo-Russian Convention of 1899)에 반한다는 것이고, 일본은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압록강 하구의 신의주까지 한반도 북부를 종단하는 경의선을 건설하려는 것을 러시아가 계속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영일동맹이 성립할 조건이 마련되었다.³⁸⁾

아무튼 이 골칫거리 만주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일본은 협상에 협상을 거듭하였는데, 결국 일본은 러시아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최후통첩과도 같은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제시함으로써 러시아를 칠 명분을 만들어냈다.³⁹⁾

36)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 241-242쪽.

37) 이토오 등이 주장한 것으로 러시아의 만주 철병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협조’의 입장에서 러시아에게 만주 경영의 자유를 주고 한국에서 일본의 우위를 인정케 하려는 논의인데, 이는 결국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화를 앞당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

38) 井上勇一, <不平等條約から同盟へ:一八六七—一九〇二年の日英關係>, 細谷千博·田中孝彦 編, 《日英交流史 1600-2000》, 東京大學出版會, 2000, 176쪽.

39) Andrew Malozemoff, Russian Far Eastern Policy 1884-1904,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8, p. 247.

- a. 일본은 만주와 그 연해가 일본의 이익 범주 외에 있음을 인정하고, 러시아는 만주에서 청의 영토 보전을 존중할 것에 합의한다.
- b. 러시아는 만주의 범위 내에서 일본과 기타 열강이 청과 맺고 있는 조약에 의해 획득하여 누리고 있는 권리와 특권을 방해치 않는다.
- c. 러시아는 조선과 그 연해가 자국의 영향권 밖에 있음을 인정한다.

이런 類의 일본의 제안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최종 훈령은 일본의 한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 이용의 금지, 북위 39도선 이북의 중립지대화 등 일본에 의한 한국의 군사적 지배를 부인하는 내용의 것들이었다.⁴⁰⁾ 이제 양국의 충돌은 점점 기정사실화되어 갔다. 일본은 1904년 2월 4일 각의에서 러시아와 외교를 단절하는 결의를 하고, 2월 10일 천황이 러시아에 대해 宣戰의 조칙을 내림으로써 전쟁을 공식화하였다.⁴¹⁾

1년 반여에 걸친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은 1905년 9월 5일 미국의 포츠머스(Portsmouth)에서 총 15개조의 조항과 2개의 추가약관으로 된 講和條約(Portsmouth Treaty)을 맺음으로써 종결되었다. 강화는 일본정부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Jr. 1858-1919)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또 일본의 압도적 승리를 우려했던 루즈벨트 역시 기꺼이 응함으로써 성립되었다.⁴²⁾ 강화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러시아국 황제폐하는 양국 및 그 인민의 평화와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 강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한다는 前文과 함께, “일본국 황제폐하와 쏘러시아국 황제폐하 사이 그리고 양국 및 양국 신민 간에 장래의 평화 및 친목이 있어야” 한다는 제1조에 이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대한제국에 관한 사항이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⁴³⁾

러시아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 있어서 政事上, 軍事上 및 경제상 탁월한 이익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여 일본제국 정부가 한국에 있어서 필요로 하다고 인식하는 指導,

40) 海野福壽, 《日清・日露戰爭》, 集英社, 1992, 148쪽.

41)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 222쪽. 고종황제는 전쟁 발발 전인 1903년 9월,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 개전 시 국외중립을 요청하였으며, 또 이듬해 1월에는 외무대신의 이름으로 중립을 지킨다는 성명을 각국에 보냈으나, 일본정부는 그것을 묵살하고 10일의 선전포고 전에 이미 거의 무방비 상태였던 서울을 점령하였다. 海野福壽, 《日清・日露戰爭》, 149-150쪽.

42) 당시 루즈벨트는 “이번 전쟁은 일본의 대승리...(중략) 장래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싶다. 동양의 형세를 보건데, 동양에 나라를 이루어 독립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일본뿐이다. 중국, 조선, 페르시아, 삼 등등이 있지만, 아직 그리 독립국이라 할 만하지 못하다. 또 독립할 수 있는 세력도 없다. 그래 일본이 아시아의 먼로주의를 취해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 아시아 제국을 통솔하여 각각 독립할 수 있게 힘을 쏟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일본이 아시아·먼로주의를 세계에 성명하여 유럽·미국이 아시아의 토지를 취한다거나 이것저것 하는 것은 단연 금한다는 방침을 일본에 맡기고 싶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金子堅太郎 講演・石塚正英 編, 《日露戰爭 日米外交秘録》, 流山, 長崎出版, 1986, 194쪽.

43)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 245-249쪽.

監理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간섭치 않을 것을 약속한다. (중략) 양
 계약국은 일체의 오해의 원인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와 한국 간의 국경에서 러시아국
 또는 한국 영토의 안전을 침해하는 어떠한 군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에 동의
 한다.

제3조 이하에서는 주로 만주에서 러시아가 취해야 할 상공업적 조치들을 청과 관련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의 전쟁 수행의 주된 목적은 역시 대한제국을 군
 사적 경제적으로 침탈하는 것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이로써 ‘조선 문제’의 걸림돌이자 최대 난적인 러시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다. 태프트 · 카츠라協定

러일의 강화조약이 체결되기 불과 한 달 전인 7월 29일, 훗날 미국의 27대 대통령이 되었
 던 육군 장관 태프트(William Howard Taft, 1857-1930)와 일본의 총리 겸 임시 외무대신
 카츠라(桂太郎, 1848-1913) 사이에 협정이 맺어졌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태프트 · 카츠라
 협정(The Taft-Katsura Agreement)이다.

러일전쟁의 공식 승리를 코앞에 두고 한국에서의 ‘이익’을 러시아로부터 지켜낼 수 있게
 된 일본이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을 써야했던 국가는 영국과 미국이었다. 영국과는 한국과 청
 에서의 각국의 이익을 교차 승인한다는 내용의 동맹협정(제1차)을 이미 맺고 있어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었지만, 미국으로부터는 아직 확답을 얻지 못했다.

미국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에게 우호적 태도를 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러시아가 만주 문호
 를 폐쇄하려 했던 때문이었다. 따라서 러일 강화조약으로 미국은 만주시장이 재개된다는 기
 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태프트 · 카츠라 협정은 이러한 미일 양국이 상호간의 기대감 속에서
 맺어진 것이다. 너무도 잘 알고 있듯, 이 협정에서 미국은 대한제국에서의 일본의 지배권을
 확인하는 한편 자국은 필리핀에서의 그것을 일본에 확인시켰다.

협정의 골자는 일본은 미국 식민지인 필리핀에 대한 야심이 없으며, 극동의 평화는 일본 ·
 미국 · 영국 3국에 의한 사실상의 동맹에 의해 지켜져야 하며, 미국은 일본의 한국에서의 지
 도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⁴⁴⁾

44) "... Count Katsura confirmed... stated that Japan does not harbor any aggressive designs
 whatever on the Philippines... Count Katsura observed that the maintenance of general
 peace in the extreme East form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Japan's international
 policy... means for accomplishing the above object would be to form good understanding
 between the three governments of Japa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Secretary
 Taft fully admitted the justness of... the establishment by Japanese troops of a suzerainty
 over Korea... "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冊, 450-451쪽.

그러나, 이 협정문에서 역설하고 있는 카즈라의 논리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는 러일전쟁의 직접 원인이 된 한국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한국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어 일본을 또 다른 전쟁으로 몰아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다시금 외국과의 전쟁을 일본에 강제하는 그런 조약들을 체결하는 것을 일본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켜 막아야만 동양에 영구한 평화가 온다고 역설하고 있다.⁴⁵⁾

그러니까 그의 논리에 입각하여 환언해보면, 러일전쟁은 한국이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발발한 것이며, 앞으로 한국이 제 외국과 조약을 맺게 되면 일본은 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하며, 일본군대의 한국 주둔이 동양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일본도 일본이지만 사실 이러한 아전인수와 어불성설의 논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fully admitted) 미국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1882년 조선과 맺은 朝美條約(1882)의 그것도 조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1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居中調整(good offices)을 명백히 위반하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조미조약 제1관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⁶⁾

만일 타국이 어느 한쪽 정부를 부당하거나 억압적으로 대할 시에는 다를 쪽 정부는 그 사건의 통고를 받는 대로 원만한 타결을 보기 위해 주선을 다하여 友誼를 표한다.

라. 러일협약

1907년 7월 30일 일본의 駐러시아 공사 모토노 이치로오(本野一郎, 1862-1918)와 러시아 외무장관 이즈볼스키(Aleksandr Petrovich Graf Izvolsky, 1856-1919) 사이에 공개협약과 함께 비밀협약이 맺어진다. 공개협약은 제1조에서 체약국의 일방은 다른 일방의 현재의 영토보전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 제2조에서 양 체약국이 청제국의 독립 및 영토보전 그리고 同國에 있어서의 列國 상공업의 기회균등주의를 승인한다는 내용 즉, 청의 독립을 존중하여 러일 및 러일 양국과 청 사이에 맺어진 조약을 존중할 것과 문호개방, 상공업 상의 기회균등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⁴⁷⁾

45)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冊, 450-451쪽.

46) 《高宗太皇帝實錄》 卷19, 21葉. “...若他國有何不公輕貌之事一經照知必須相助從中善爲調處以示友誼關切” 이에 해당하는 영문은 다음과 같다. “... If other Powers deal unjustly or oppressively with either Government, the other will exert their good offices, on being informed of the case, to bring about an amicable arrangement, thus showing their friendly feelings.”

비밀협약은 러일 양국 정부가 "만주, 한국 및 몽고에 관하여 일체의 분쟁 또는 오해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맺은 것으로, 일본은 남만주에서 그리고 러시아는 북만주에서의 이익을 그 범위로 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일본의 한국에서의 이해관계 승인과 또 이해관계에 대해 간섭하지 않을 것과 러시아의 외몽고에 대한 특수 이익을 인정한다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제2차 러일협약은 1910년 7월 4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맺어졌다. 이 협약은 미국의 만주 침투에 대항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이 공동 대처하기 위한 것이 그 전제로 깔려 있었다. 그 배경이 된 것은 러일 양국이 협정 사항에 대항하여 미국이 이른바 '달리외교'를 전개하여 1909년 12월 만주 여러 철도의 중립화를 제창함과 동시에 미국, 독일, 청 3국의 제휴에 의한 반일·반러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그러한 정책이 비록 실패로 끝나긴 하였지만, 일본과 러시아로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 하였으며, 이 두 번째 러일협약이 바로 그 대책의 일환이었다.

협약은 만주에서 러시아와 일본 각국이 향유하는 특수이익을 서로 방해하지 않을 것을 규정함으로써 러시아는 결국 일본의 한국병합을 승인하는 셈이 되었다. 일본은 그 대가로 몽골과 북만주가 러시아의 특수이해 지역임을 인정하였다. 결국 이 제2차 러일협약은 러시아와 일본이 각기 한국과 몽골에서의 '지배권'을 교차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⁴⁸⁾

IV. 맺음말

이상에서 개관해 보았듯이, 일본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은 첫째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즉 조공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둘째 그것을 붕괴시킨 이후에는 열강의 '승인'을 차례로 얻어내는 연속된 협상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붕괴와 협상은 동서양의 一強國과 한차례씩의 전쟁을 통해 이루어낸 것이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달라지지 않겠지만, 일본이 치른 두 차례의 전쟁은 결국 조선을 자국의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였다. 청일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한 달여가 지났을 무렵인 1895년 6월 4일, 일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의결정을 한다.⁴⁹⁾

47)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 280-281쪽.

48) 최덕규,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1905-1910)>,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2008. 9. 25-26.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257-258쪽.

49) <對韓政略に關する閣議決定>,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 172쪽.

우리의 對韓 政略은 그 독립을 인정하여 청국이 屬邦이라 주장하는 설을 배제하여 그 실질적 독립을 이루게 하는 것에... 일청전쟁이 일어난 원인도 전부 거기에서 배태하여 우리의 전승 결과 청국으로 하여금 (조선이) 완전한 독립됨을 인정케 함과 동시에 러시아 역시 우리에게 명실 공히 그 독립을 인정토록 요구하여... (하략)

조선을 ‘독립’시켜 자국의 ‘속국’으로 하려는 계획은 1876년 수호조규 제1항에서 조선을 ‘자주지방’으로 명기한 이래의 숙원이었다.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자신의 언어로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듯 오랜 계획 즉 ‘長計’에 기초하여 진행된 일이었다. 1909년 7월 6일 각의결정(3월 30일, 총리에게 제출)이 있는 후 같은 날 천황이 재가한 <한국병합에 관한 件>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⁵⁰⁾

(前略) 日露戰役 개시 이래 한국에 대한 우리의 권력은 점차 커져 특히 제작년 일한 협약 체결과 함께 한국의 시설은 크게 그 면목을 고쳤다고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우리 세력은 아직 충분히 충실하게 이르지 못하여 한국 관민의 우리에게 대한 관계 역시 아직 전혀 만족할 만큼은 못되어 帝國은 금후 더욱 한국에 있어 실력을 증진하여 그 근저를 깊게 하고 내외에 대하여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세력을 수렴할 것에 힘을 써야 한다. (중략) 第一, 적당한 시기에 있어 한국의 병합을 단행할 것. 한국을 병합하여 제국 판도의 일부로 하면 반도에 있어서의 우리 실력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제국이 내외의 형세에 비추어 적당한 때에 단연 병합을 실행하여 반도를 명실 공히 우리의 통치 하에 두고 또 한국과 제 외국과의 조약관계를 소멸케 하는 것은 제국 백년의 長計이다. (하략)

사실 일본의 한국병합 즉 ‘대한제국의 종말’⁵¹⁾은 1909년의 일본 각의의 결정을 기다리기도 훨씬 전인 러일전쟁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열강인 영국과 미국의 ‘승인’을 이미 得하고 있었다. 러일 양국의 전운이 감돌던 때인 光武8년(1904년) 1월 대한제국은 淸國의 중립을 선언하였지만, 국토가 유린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공수동맹’ 강요로 사실상 국외중립은 무색하였다.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고 명시하면서, 한편으로 대일본제국 정부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것이 용이토록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담은 韓日議定書(1904년 2월 23일 조인, 27일 공포)⁵²⁾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의정서에 대해 영국 타임즈誌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⁵³⁾

50)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 315쪽.

51) 서영희, <대한제국의 종말>, 《한국사 42 : 대한제국》, 국사편찬위원회, 1999.

52) 《高宗太皇帝實錄》 卷44, 42葉.

53) 1904년2월29일. 다음 저서에서 재인용. 柞淵信雄, 《海外新聞日韓併合》, 彩流社, 1995, 178쪽.

일본이 조선과 체결한 조약문은 英美 양국이 원래의 전문(電文) 요약을 훑어보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내용을 호의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일본의 조선황실의 '안녕'과 또 세계전체의 더욱 더 큰 관심사인 '조선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에 대한 보장은 더 바랄나위 없이 정확하고 충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인도 행정관들에게 잘 알려진 용어를 사용해 보자면, 이 조약이 일종의 '종속(從屬)적 동맹'을 '은자의 나라'에 암시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영토 소유권과 조선의 안전과 복지에 합치하는 적절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기사는 한일의정서가 영국과 미국의 호의 아래에 '승인'되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 준다. 아울러 그것이 조선에게는 '종속적 동맹'이기는 하나, 일본이 조선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영미의 제국주의의 해괴한 논리와 함께!

06

滿鐵의 하얼빈에 있어서의 조사기관

井寸哲郎(日本 니이가타大 교수)

滿鐵의 하얼빈에 있어서의 조사기관

— 조사 ·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이무라데츠오(井村哲郎)(일본 · 니가타대학 대학원 현대사회문화연구과 · 교수)

〈목 차〉

- | | |
|---------------|------------------|
| 1. 서론 | 4. 하얼빈에서의 활동 개시 |
| 2. 북만주의 대두 | 5. 하얼빈 사무소의 정보활동 |
| 3. 만철의 북만주 조사 | 6. 결론 |

1. 서론

러시아 제국은 1896년 청국과 「동청철도(東淸鐵道) 건설 및 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청철도(중동철도 : 中東鐵道)부설권을 획득했다. 1897년 러시아는 중동철도주식회사를 페테르부르크에 설립하고, 같은 해 하얼빈에서 중동철도를 기공했다. 하얼빈 도시건설도 이 해에 시작된다. 더욱이 같은 해 러시아는 대련·여순의 25년간의 조차 및 중동철도 남부선 부설권과 경영권을 획득했다. 중동철도는 만주리, 하얼빈, 수분하 사이를 경영하고, 수분하에서 러시아 영토인 보그라니치나야에 들어가 우스리 철도에 의해 우라지오스톡크에까지 이른다. 또한, 중국 동북의 현재의 흑룡강성을 횡단하고 유럽 러시아와 우라지오스톡크를 최단거리로 잇는 철도의 일부를 이룬다. 또한, 하얼빈에서 대련·여순으로의 남부선을 획득함으로써 러시아는 하얼빈에서 상업권인 대련항과 군항인 여순항에 이르는 노선을 확보했다.

일로전쟁 결과 일본은 중국 동북에 관동주 조차지(租借地)와 러시아 제국이 건설한 중동철도 남부선의 장춘=대련 사이의 철도를 획득했다. 이 철도경영을 위해 남만철도주식회사(만철)이 1906년에 설립되고, 1907년 만철은 영업을 개시했다.

만철은 대련에 본사를 두고 러시아에서 계승한 철도 부속지에 도시계획을 실시했다. 대련의 도시건설은 러시아의 도시계획 구상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부속지 경영은 구미제국을 의식하여 행해졌다고 하지만, 중동철도에 의한 하얼빈의 도시건설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만철은 철도수송화물을 증가시키기 위해 철도 연선의 물산조사를 행하고, 대련으로 주요한 농산물의 흡수를 지향하는 운임정책을 채용했다.

이에 대해 중동철도는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도시건설을 행하고 중동철도에 화물을 흡인하는 운임정책을 채용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베리아 철도, 우스리 철도와의

연락운임, 선차(船車)연락운임, (2) 러시아제품을 만주로 수입 또는 만주 산품을 연해주, 자바이카르주에 수출할 때의 특정운임, (3) 유럽 러시아발 화물에서 의용함대 또는 러시아 동아기선회사에 의해 흑해에서 우라지오스톡크에 입항하여 그 후 중동철도 각 역에 도착하는 화물을 대상으로 한 선차 연락운임, (4) 우라지오스톡크 경유의 수출곡물, 연해주에서 수입된 러시아 공업제품이나 생활필수품, 우스리하 및 연해주의 제분공영용 곡물, 곡물, 동물 뼈, 피혁, 동물 털, 유제품, 만주산 목재, 말, 소, 소고기, 우라지오스톡크 경유로 수입된 중국인을 위한 생활필수품, 돛자리, 소다 등의 우스리 철도·중동철도 연락운임이다. 이러한 운임 정책으로 중동철도에 물산을 유도했던 것이다. 단, 이 특정운임은 러시아와의 수출입에 의한 화물흡수가 목적이요, 만철을 의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북만주에서는 탄광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서, 당초는 만철경영의 무순탄 공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중동철도는 자라이노르탄, 자바이카르탄에 특정운임을 적용하고 하얼빈에서의 석탄가격을 인하, 또한 북만주에서의 탄광개발을 추진했다.

2. 북만주의 대두

중국 동북에서 본격적으로 대두생산이 개시된 것은 19세기 전반부터이다. 19세기 중반부터 만주의 대두생산이 서서히 증가하여 1920년대에는 세계최대의 생산지가 되었다. 대두는 대두 그 자체, 대두유, 대두 찌꺼기를 만들 수 있다. 대두와 대두유는 주로 식용이고 대두찌꺼기는 유기비료로 이용되었다. 당초의 대두와 대두찌꺼기의 사향지는 화남농지였고, 영구에서 상해 등으로 이출되었다. 그러나 서서히 일본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일청전쟁 후인 1899년에는 대두와 대두찌꺼기의 대일 수출량은 화남을 추월했다.

대두는 남만주에서도 생산되었는데, 그 당시는 중만주에서 북만주에 걸쳐 광대한 지역이 주요 생산지였다. 대두는 가을에 수확되어 건조시킨 후, 겨울에 양잔(糧棧)¹⁾을 통해 철도역에 보내지는데, 대두 수송에는 만주의 기후가 유리했다. 당시 만주에서는 마차수송이 번성했지만, 말은 몽골에서 이입되고 또한 마차용 목재는 길림재, 나중에는 흥안령에서 잘라 왔다. 중만주·북만주에서는 겨울에 결빙하기 때문에, 도로나 또한 도로 이외가 질퍽해지지 않아 마차수송에 적합했다. 대두는 건조 후 주로 중동철도 사부선인 안달, 남부지선인 쌍성 등에 수하되고, 또한 송화강 하류지역에서 하얼빈에 수로운수로 대두(河豆)가 수하되었다.

러시아는 하얼빈에 모인 대두를 동북의 중동철도를 이용하여 우라지오스톡크에서 유럽에 수출했다. 또한, 일본에 수출하는 대두와 찌꺼기도 미츠이물산에 의해 1906년에 처음으로 적출되었다. 대두 등 농산물의 수출은 해마다 증가하여 1908년에는 약 54.5만톤, 1911년에

1) 대두, 고량 등의 곡물 도매. 금융기능도 행했다.

는 105.7만톤의 대두를 중동철도는 우라지오스톡크를 향해 수송했다.

이에 대해 1908년에는 해항 발착 특정운임을 설정하고, 동북 오지에서 대련과 영구까지의 운임차이를 없앴다. 나아가 만철은 운임인하와 노선개량, 복선화에 의해 수송력 증강을 도모함과 동시에 특산물 검사제도를 마련하여 품질의 향상 및 안정을 꾀했다.

만철의 화물수송은 무순탄광의 석탄과 대두에 의해 지지되고 있었다. 이 중 무순탄을 만철 연선으로 산출하기 위한 수송상 문제는 특히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두는 중동철도 연선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만철은 북만주의 대두를 장춘에 수하하여 대련으로 수송하려고 했고, 중동철도와 격심한 수하경쟁이 반복되었다. 만철은 북만주의 대두를 대련으로 수송하기 위해 대두 수하책으로써 몇 가지 방책을 취했다.

먼저, 만철은 북만주의 물산을 확보하고 대련으로 옮기기 위한 연락운송 강화를 꾀했다. 1910년에는 여객 및 수하물 연락수송(우라지오스톡크 및 대련경유)이 개시되고, 1912년에는 양 철도의 화물연락 수송협정이 체결되었다.

나아가, 만철은 대두 등 특산물 수하기구를 창설했다. 영업개시 다음 해인 1908년에는 대련 부두에서의 도착화물의 창고취급을 개시했다. 1909년에는 연선 주요역에서 창고 및 야적 발송화물 보관을 행했다. 대두의 수하기인 겨울철은 비가 오지 않고 기온도 낮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았으므로 야적이 먼저 행해졌다. 1910년부터는 대두의 돈적(囤積)²⁾을 개시했다.

또한, 양잔(糧棧)인 협화기를 1910년에 장춘에, 성발동을 하얼빈에 1922년에 설립하고³⁾ 장춘, 하얼빈, 중동철도 연선의 대두를 수하했다. 농민은 양잔에 곡물을 팔아 현금수입을 얻고, 또한 소농민은 춘작 자금을 양잔에서 빌려 가을 수확기에 반환한다. 또한 농민과 직접 거래를 행하는 소도시의 양잔은 장춘역 부속지의 대양잔과 거래를 행하고, 대양잔은 수출상사나 유방(油房)과 거래를 행했다. 이러한 유통구조에 만철 자체가 끼어들어 만철의 이익확대를 도모했던 것이다.

또한, 만철은 1919년부터 대두의 혼합보관을 개시했다. 이것은 대두, 대두유, 대두찌꺼기를 품질 별로 나누어 동질의 것을 함께 보관하고, 물건 주인에 대해서는 등급·양 등을 기록한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창고보관, 수송의 편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에 의해 만철은 중동철도에 대해서 우위에 섰다.

나아가 만철은 1923년에 봉천에 동아운수수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겨울철 마차수송을 개시했다. 동아운수는 1926년에 국제운수수주식회사가 되고, 겨울철 마차수송, 여름철 수로운수에 의해 특산물 수송을 행하고, 중동철도 연선의 대두 등을 만철선 연선의 역으로

2) 고량짚을 밑에 깔고 대나무로 등글게 말아 그 안에 대두를 넣는다. 얼마 전까지 겨울철 역에서 볼 수 있었다.

3) 성발동(成發東)은 스키상점 하얼빈 지점 전 지배인이었던 宗像金吾가 국제운수, 만철의 양해를 얻어 설립했다고 여겨진다. 성발동은 활발하게 대두의 수하를 행했다. 1926년 3, 4월에는 하얼빈에서 대두를 매점했다고 하여 하얼빈의 유방업자가 만철에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 제8-2호 1927년 5월 15일 재합삼어음(在哈森御蔭)」 참조.

날랐다. 국제운수는 철도 이외의 육상수송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업이 되었다.

1914년 구주대전이 발발하여 중동철도는 유럽과 러시아, 우라지오스톡크 사이에서 군수물자 수송이 번성했다. 따라서 영업화물 수송력은 현저히 저하했다. 이것과 만철측의 적극적인 수하정책이 맞물려 대두는 장춘에 마차 수송되고, 만철선을 남하하여 대련에서 수출되었다.

대두의 마차수송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러시아 혁명기의 중동철도 혼란시기에도 번성히 행해졌다. 전시하의 러시아 통화하락, 시베리아의 정세불안, 또한 부두의 여러 비용이 올라가 중동철도에 의한 우라지오스톡크의 수송은 급격히 감소했다. 더욱이 만철의 대련항으로의 화물흡수 정책도 있어 1920년에는 대련을 향한 남행화물은 83%를 차지하고, 우라지오스톡크항 화물은 불과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중동철도의 경영상황은 급격히 악화했다.

중동철도는 이 대책으로써 1921년에 경제조사국⁴⁾을 하얼빈에 설치하고, 북만주의 경제상황 연구를 개시했다. 또한, 같은 해에는 수송화물을 증가시키기 위해 마차수송과의 경쟁, 동행수출의 부활, 서부선의 수송 부활, 지방수송의 개시, 지방공업의 조성을 행하고, 만철에 대항하여 운임을 인하했다. 그 결과, 중동철도는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장춘 근접지방을 인식하여 철도에 평행한 마차수송을 거의 구축했다. 나아가 1927년에는 겨울철 출회(出廻) 수입운임을 제정했기 때문에, 드디어 국제운수에 의한 마차수송을 일정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게 되었다.

3. 만철의 북만주 조사

만철은 아주 빠른 시기부터 중동철도 연선, 시베리아 조사를 개시했다. 만철 창설 때에는 조사부가 설치되고, 익년 조사과로 조직이 바뀌었는데, 조사부 조사과에서는 일관하여 만주의 물산조사, 관행조사와 함께 중동철도 연선과 시베리아 조사를 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초기의 조사활동에 대해서 「제1차 만철 10년사」는 만주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정을 조사

4) 중동철도 경제조사국은 1921년 5월 1일 창설. 당초는 중동철도관리국의 임시조사기관으로써 관리국장의 특명사항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1925년 이래 관리국 상무처 관할이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관리국장에 직속되어 중동철도의 조사기관으로써 중시되었다. 정원은 30명이었지만, 필요에 따라 상무처에서 스태프가 배속되어 업무를 담당했다. 1934년도의 예산은 합계 만주국폐 200,579엔. 그 조사는 약 3기로 나누어졌다. (1) 1921년-1924년 : 북만주의 산업경제 전반에 이르는 기초적 조사, 북철배양자원의 해명, 기관지 발행, (2) 1925년-1929년 : 지역별 조사(남만주, 호른페이, 몽고, 자바이카르, 연해주), 중동철도의 합리적 경영방책 수립에 필요한 산업관계 조사연구, 대소련무역촉진책, (3) 1930년-1935년 : 일본, 조선, 중국의 경제연구, 만주의 산업경제관계 자료의 수집과 분석, 극동에 있어서 소련의 지위와 중동철도 관계사항의 조사연구, 출판업무의 확대 등. 또한 1923년 이래 기관지 「동성잡지」(웨스트니크 맨츄리), 「경제주보」(이코노미체스키 뷰레체니), 「북철통계 연보」 등을 발간하고, 또한 각종 조사연구 논문이나 단행서를 발표했다.

하고, 또한 민사 및 상사에 관련한 관행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업무개시와 동시에 조사경험이 있고 중국어, 러시아어에 능통한 사람을 뽑아 만주 및 그 근접지방(시베리아)의 일반경제 및 관습 조사를 행하고, 각종 문헌서류를 수집하고, 또한 만주 각지와 러시아령 지방에 사원을 파견하여 답사하게 했다. 중요한 조사보고는 인쇄되었지만, 그 수는 구관행 및 법제조사에 속하는 것 12권, 지방경제조사에 속하는 것 18권, 러시아령 경제조사 7권이 있었다.⁵⁾ 북만주의 중동철도 연선지역, 시베리아의 경제조사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하얼빈에서의 활동 개시

만철은 1908년 하얼빈에 건물을 구입하고(당시의 신시가 신매매가), 조사과원의 삼어음(森御蔭)⁶⁾을 파견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 1909년 나츠아키 카메이치에게 일만상사를 하얼빈 신시가에 설치시키고, 만철의 대리점으로 보호하며 주로 화물 운송취급, 중동철도와의 화물 연락운수 사무의 교섭과 석탄판매를 시켰다.⁷⁾ 석탄판매를 위해 저장탄과 화물 거치장의 대여도 만철은 행했다. 이 석탄은 무순탄이고, 증기기관차와 선박의 연료용과 난방용이었다. 그 후 석탄판매가 확대함에 따라 1915년에 하얼빈의 부두지역에 광업부 판매와 출장소를 설치하고 직접 판매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운수부 영업과원을 하얼빈으로 파견하여 중동철도와의 연락운수에 대해서 교섭을 행했다. 1917년에는 하얼빈공소를 설치하고 같은 해에 한해서 일만상회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석탄판매 업무는 코베스즈키 상회에 위탁했다.⁸⁾ 1921년부터는 운수사무에 대해서는 부두지역에 새롭게 운수영업소를 설치하고 하얼빈 공소장이 영업소장을 겸무했다.

5. 하얼빈 사무소의 정보활동

만철은 중국 동북에 소재하고 있어, 중국측 관헌과의 접촉교섭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5)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남만주철도주식회사 10년사』 1919년, 905페이지.

6) 삼어음은(森御蔭) 동경외국어 학교 중퇴. 1984년 동경사범학교 졸업, 1899년부터 1904년간 러시아에서 일반경제사정을 조사. 1904년부터 1906년 육군통역. 1908년 만철입사, 조사부. 하얼빈에 파견. 1914년 총무부 사무국 조사과, 1918년 총무부 조사과에서 러시아사정, 북만사정을 조사, 같은 해 하얼빈 상품진열관 관장, 정보활동을 행했다. 저서 다수. 삼어음이 작성한 정보도 상당수 남아있다.

7) 일만상회의 회사형태 등은 불분명하지만, 1911년에는 하얼빈의 전기사업을 매수하려고 했고, 또한, 같은 해 기선의 수입을 계획하고 있었던 듯하다. 또 1916년에는 동청철도 경비군의 총 20정의 수입을 일본에서 행했다.

8)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남만주철도주식회사 10년사』 1919년, 688~689페이지.

빠른 시기부터 정보활동을 활발히 행했다. 정보활동의 최초는 장작운(張作霖) 정권 중심이었던 봉안공소에서 행해졌다. 봉안공소의 소장 사이토(佐藤安之助)는 현역군인이었다.⁹⁾

하얼빈에서의 정보수집은 중동철도와의 연락수송이나 러시아와 소련정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행해졌는데, 특히 러시아혁명 발발 이후 활발해졌다. 하얼빈에는 중동철도의 관리국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인 종업원이 많았고, 또한 유대인이나 백인계 러시아인도 다수 이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얼빈은 만철의 러시아 정보수집의 거점이 되었다.

1923년 4월 하얼빈 공소는 하얼빈 사무소로 개조되었다. 운수영업소는 폐지되고, 그 사무를 하얼빈 사무소 운수과로 옮겼다. 하얼빈 사무소에는 운수과 외에 조사를 행하는 조사과, 서무와 교섭사무를 행하는 서무과가 있었는데, 사무소가 좁아졌기 때문에 새롭게 차참가(車站街)에 신사무소를 건설하고 1925년 이전했다.)¹⁰⁾

하얼빈 사무소는 주로 중동철도와 러시아측과의 절충을 위해 마련된 조직인데, 거기에서 행해진 조사는 당연히 북만주의 교통 및 산업이나 시베리아, 외몽고 조사였다. 하얼빈 사무소 조사과에서는 북만주와 시베리아의 정치경제에 관한 조사를 행했고, 『합사자료(哈事資料)』, 『합조시보(哈調時報)』등을 간행하고 있었는데, 조사보다도 정보수집이 주된 임무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하얼빈사무소의 확충은 1917년 이후의 러시아 혁명, 또는 러시아 혁명 후의 혼란한 극동러시아에 대한 공동출병(시베리아 출병) 등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만철 조사과에서 극동러시아를 조사했던 삼어음(森御蔭)이 1918년에 창설한 하얼빈 상품진열관도 활발한 정보활동을 행하고, 소비에트 연방에 관한 정보를 다수 발간하고 있었다. 남겨진 정보에서 판단해 보면, 하얼빈 상품진열관의 상품소개 업무는 위장이었고, 오히려 정보수집과 외무성 등에 제공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고 생각되어진다. (註2참조)

하얼빈 사무소 조사과는 1927년에 폐지되고 대신하여 정보와 자료 2개가 마련되었다. 1931년의 「만주사변」에 대해서는 하얼빈 사무소는 「사변」 후의 하얼빈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한 정보도 남기고 있다.¹¹⁾ 이러한 정보는 각지에 마련된 공소나 사무소, 역에서 총무부장이나 총무부 조사과장 앞으로 보내어지고, 만철의 철도전화 또는 전보에 의해 본사에 보내어졌다. 하얼빈 사무소도 정보활동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달성하고 있었다. 또한 1933년에는 하얼빈 사무소에 산업과가 신설되고, 거기에 러시아계가 마련되고, 관동군의 의뢰에 따라 소련 극동이나 외몽고의 병요지지(兵要地誌) 조사를 행하고, 또한 만주사변 전후

9) 이무라 데즈오(井村哲郎) 「신해혁명 만철-봉천공소의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역사와 문화』 (제15호, 2006년3월) 참조.

10)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제 2차 10년사』 1928년, 1277~1278페이지. 이 건물은 현존하고 있다.

11) 『시국 제 85호』 총무부장앞 하얼빈사무소장발 [1931년9월] 20일 오후 1시 35분발. 이 정보는19일 오전 이후의 하얼빈 상황을 전하고 있다. 또한, 「시국 제 135호」 조사과장앞 하얼빈사무소발 21일 오후 11시 5분발, 11시 32분착. 조선은행 현관, 하얼빈 일일신문사에 폭탄이 던져졌던 정보이다.

에는 대소련 정보수집과 군 의뢰의 특별조사를 행했다. 산업과 러시아계의 설치는 관동군의 요청에 당시 하얼빈 사무소 서무과장인 오시카와(押川一郎)가 응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¹²⁾

1935년 소련 소유로 귀속된 중동철도(당시의 호칭은 북만철도)를 만주국이 매수하고 운영은 만철이 수탁했다. 그 결과 하얼빈 철로국에 의해 운영되게 되었다. 그 때에 하얼빈 철로국에 하얼빈 경제조사소가 설치되어 북만주의 경제조사와 러시아어 문헌의 번역을 행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소련 조사 이외의 조사는 행해지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 하얼빈 철로국에 북만경제조사소가 설치되었다.

북만경제조사소는 북만산업의 개발, 척식(拓殖) 등에 대해서 또한 극동소련과 외몽고의 동향을 조사했다. 북만경제조사소는 자료의 수집, 정리 및 보관, 출판물의 편집을 행하는 제1반, 철도운수정책에 동반한 북만상공업의 동향과 대책, 만주사변 후의 북만경제계, 상공, 광업, 금융, 교통관계 조사를 행하는 제2반, 농림업, 이식민조사를 행하는 제3반, 농산물 생산 및 출회조사를 행하는 제4반, 극동소련 및 외몽고의 정치사회, 산업, 교통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행하는 제5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5반에는 그 분실이 있었다. 또한, 관동군 철도선 구사령부의 요구로 1936년 1월 특별조사계가 설치되고, 극동 소련의 군사교통관계사항의 조사를 개시했다. 1936년 12월말 현재의 직원 합계는 125명이었다.

북만경제조사소는 하얼빈 철로국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만주국의 산업개발 5개년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만철산업부의 북만주 현지조사기관이기도 했으며, 또한 만주국의 산업조사를 행하고 있던 실업부 임시산업조사국과도 밀접한 연락을 취하고, 나아가 만주농작물 수확예상연합회에 가입했다. 편집하고 있던 시리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북경경제정보』(북만경제에 관한 시사문제, 그 외 정보 속보), 『북경소련정보』(극동소련 및 외몽고에 관한 시사문제, 그 외 정보속보), 『북경경제자료』(북만경제에 관한 조사보고), 『북경소련자료』(극동 소련 및 외몽고에 관한 조사보고), 『북경조사간행서』(일반적으로 배포하기 위한 간행물).

이상의 시리즈에서 알 수 있듯이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북만경제에 관한 정보와 조사보고, 소련극동과 외 몽고에 관한 정보 및 조사를 주요한 임무로 하고 있었다. 특히 소련 정보와 외몽고 정보는 영사관 경유로 외무성으로 또는 관동군 경유 육군성으로 정보로써 송부되고 있었다.¹³⁾

북만경제조사소가 창설된 당초 소장한 자료의 대부분은 만철하얼빈사무소에서 이관된 약

12) 사토(佐藤健雄) 「소련조사」 이무라 테츠오편 『만철조사부 : 관계자의 증언』 1996년, 331~332쪽.

13) 예를 들면 하얼빈철로국 경제조사소 『서북후구가얼 연료자원지 코시테노구시노오제우루스퀘 탄전』 1936년(극동소련령 및 외몽고 병요지지 조사자료 제 29호)는 관동군 경유 육군성으로, 하얼빈 철로국 북만경제조사소 『소비에트·가와니시 근상』 (1936년)은 재브라고베시첸스크 영사관 경유 외무장관에게 송부되고 있다.

1만권의 책과 구북만철 조사국에서 접수한 러시아어 자료 약 1만 5000권이다. 이 중 러시아어 자료에는 북만에 관한 중요한 문헌이 포함되어 있다.¹⁴⁾

1936년 현재, 북만경제조사소 외에 하얼빈 철로국에서는 조사자료 활동이 행해졌다. 이하에 열거한다. 총무처 자료과(자료정보의 수집, 총계사무, 61명), 산업처 식산과(상공업, 광업의 조사, 토지건물의 취득 및 처분, 부업 등의 기초적 조사, 12명), 산업부 농무과(농산, 축생의 개량증식, 농사, 축산, 임업시험, 35명), 하얼빈 농사육성장(북만철도에서 접수, 34명), 경무처(경무관계자료, 철도애호촌, 자동차선 애호촌 현세조사, 27명)이다. 이러한 통계처리나 산업조사는 만철의 타기관, 또한 주요 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행해졌다는 것을 부기하고 있다.

또한, 중동철도 매수 때에 동시에 접수된 하얼빈 철로도서관을 짚어 보자. 이것은 1902년 중동철도 클럽 도서관으로써 창설되었다. 당초는 승가리시 도서관으로 칭했지만, 1925년에 중동철도의 중앙도서관이 되고, 1930년에 문학, 일반서는 클럽에 별도 설치하고 본관에는 전문서만을 소장했다. 이것이 1935년에 구만철 하얼빈도서관을 합병하여 철로도서관 부두 지역 분관으로 했다. 분관은 통속 공공도서관으로 여겨진다. 소장 도서수는 10만여권이고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문헌이 풍부했다.¹⁵⁾ 중동철도에서의 접수도서 중, 러시아어 아시아관계 문헌을 중심으로 『아세아문헌도서목록』이 편집되고 있다.¹⁶⁾

또한, 1932년에 만주국 정책입안을 목적으로 관동군 요청으로 설립된 만철경제조사회는 대련에 두었는데, 그 제1부 제6반이 소련조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1936년에는 산업부 자료실 북방반이 설치되고, 소련조사를 행하고 있다. 대련의 조사본부에서의 소련에 관한 정보수집 및 조사가 개시됨으로써 하얼빈의 만철기관은 소련조사가 아니라 북만의 경제개발에 관한 조사에 특화했다.

1938년 산업부가 조사부에 재편되었을 때에 북만경제조사소는 조사부의 관할하에 두게 되었다. 이 해의 조사목표는 「북만경제조사소와 개척철도 토시테노 사선 국선¹⁷⁾ 경영상 喫緊ナル当面ノ북경제개발사향의 조사를 행하고 北滿經濟開發事項ノ調査ヲ行ヒ北滿産業ノ開發及拓殖事業ノ進展カ滿洲国ノ經濟建設並國鉄自体ノ經營上及会社ノ基礎ニ及ホス影響ノ重大性ニ鑑ミ之カ發展ヲ促進スヘキ經濟政策ノ樹立ニ努メ更ニ極東ソビエト及ヒ外蒙ノ動向カ日滿兩國ニ及ホス影響ノ重大ナルモノアルニ依リ調査部本部ト協力シ以テ之カ真相ヲ究メ日滿兩國ノ對ソ國策樹立上必要ナル各般ノ調査ヲ司掌ス」¹⁸⁾ とされているように、ソ連·外モ

14)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제3차 10년사』 1938년, 1360~1366쪽.

15)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산업부편 『남철조사기관요람 1936년사』 1937년, 70~84쪽.

16) 남만주철도주식회사 하얼빈도서관편 『아세아문고도서목록 Каталог кни азиатского отдела х арбинской библиоте ки Ю.М.Ж.Д.』 1938.10-1942.7, 2권. 또한 아세아문고는 현재 길림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17) 사선은 원래 만철이 경영하고 있던 장춘=대련간의 철도 등을 이룬다. 또한 국선은 만주국 국유철도이며, 만철이 경영을 위탁하고 있었다. 구중동철도, 만주국기에 새롭게 건설된 철도를 가리킨다.

18)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제 74회 제국의회설명자료』 1938년, 267쪽.

ンゴル調査は調査部で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

나아가 조사부는 다음 1939년 4월에 확충되었다. 이 연도 이후 1942년도까지 종합조사를 행하는데, 확충조사부에서는 북만경제조사소를 조사부의 관할하에 두었지만, 지금까지의 소련조사는 거의 제 3조사실에서 행해지고, 또한 그 외의 조사업무는 신설된 신경지사조사실로 옮겼기 때문에 그 업무는 북만의 광업, 철도화물의 집산, 자료수집 등에 한정되었다.¹⁹⁾ 나아가 다음 해에는 신경지사조사실 관할로 옮기고, 북만한지농업에 관한 조사와 북만지방 농산물의 생산 및 출회의 조사를 행하고 있었다.²⁰⁾ 1943년 5월 조사부는 조사국으로 개조되는데, 거기에서 북만경제조사소는 조사국의 관할이 되었다. 이 시기의 조사목표는 「식산국과의 연계하에 증산을 기준으로 한 농장경영을 행하고,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농업 실태를 파악구명하라」²¹⁾ 또한 조사방침으로서 「북방농업 및 농촌의 창설을 기준으로 한 경영경제적 기술적 조사연구를 행하라(북방이란 북만주 및 시베리아 북방권을 가리킴)」로 되어 있다.²²⁾

단, 실제로는 시베리아의 한지농업에 대해서는 문헌의 수집번역이었다. 또한, 연구농장, 연구농촌의 운영에 해당하고, 심각화하는 만주국의 식량문제에 대응하려고 했다. 또한, 인원은 하얼빈 도서관을 포함하여 66명으로 감소했다.²³⁾

6. 결론

이상으로 서술한 만철은 하얼빈의 정보수집, 조사를 중시하고 있다. 이것은 하얼빈이 러시아, 소련과 밀접하게 관계하는 도시로서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주국이 1932년에 만들어진 이후는 서서히 하얼빈의 만철조사 조직은 북만농업개발과 이식민·개척단 대책의 연구를 행하게 된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농장경영마저 행하게 되었고, 일본의 패전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19)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제 75회 제국의회설명자료』 1939년, 290쪽.

20)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제 76회 제국의회설명자료』 1949년, 308쪽.

21) 『국보(局報)』(남만주철도주식회사 조사국) 제1권 제 1호, 1943년 8월 11쪽.

22) 上同 잡지, 55쪽.

23)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제 84회 제국의회설명자료』 1943년, 304~306쪽.

07

동북아의 국제물류 네트워크

이 호 영(독일함부르크항 한국대표)

동북아의 국제물류네트워크

- 안중근의거 99주년 기년 국제학술회의에서 -

이 호 영(독일 함부르크항 한국대표 국제물류연구회장)

〈목 차〉

1. 서론 2. 중국무역 2-1 중국의 수출입 2-2 중국의 국가별 수출입 2-3 최근의 동향 2-4 헤이룽장성 대한민국 품목별 수출입 2-5 지역별 경제 현황 2-6 헤이룽장(黑龍江)성	3. 국제물류네트워크 3-1 유라시아국제물류네트워크 3-2 동북아의 국제물류네트워크 3-3 동베이지역의 국제물류현황 3-4 동베이지역 국제물류 발전 전망 Block Train 현황 훈춘-나진-부산 축을 활용인터모달 수송방법 4. 결론
---	---

1. 서론

글로벌교역시대를 맞아 물류 역시 글로벌물류, 유라시아물류시대를 맞고 있다 안중근하얼빈학회의이 관심이 동북아의 평화와 공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관심의 핵심지역인 중국, 그 중에도 동북삼성, 특히 하얼빈이 있는 흑룡강성의 경제 및 교역현황을 일별하고 동북아의 물류네트워크를와 그 발전방향을 우리의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

2. 중국무역

2-1. 중국의수출입

(단위 : 천불)

	수출	성장률	수입	성장률	Balance
2007	1,218,155,477	25.7	956,261,491	20.8	261,893,986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8	180,515,543	-	140,385,350	-	40,130,194	-
1999	195,176,531	8.1	165,779,093	18.1	29,397,438	-
2000	249,239,664	27.7	225,095,142	35.8	24,144,522	-
2001	266,661,113	7.0	243,567,050	8.2	23,094,064	-
2002	325,642,067	22.1	295,302,905	21.2	30,339,162	-
2003	438,472,557	34.6	413,095,616	39.9	25,376,941	-
2004	593,647,174	35.4	560,811,175	35.8	32,835,999	-
2005	762,326,760	28.4	660,221,766	17.7	102,104,994	-
2006	969,323,615	27.2	791,793,900	19.9	177,529,715	-
2007	1,218,155,477	25.7	956,261,491	20.8	261,893,986	-
2008(1월~08월)	937,965,566	22.4	784,688,043	29.9	153,277,524	-

2-2. 중국의 국가별 수출입

국가별 수출

(단위 : 천불)

순위	코드	국가명	2007		2008(1월~0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218,155,477	25.7	937,965,566	22.4
1	502	미국	232,761,332	14.4	164,473,898	10.6
2	110	홍콩	184,289,241	18.6	125,691,740	8.9
3	116	일본	102,116,307	11.3	75,183,077	15.7
4	133	한국	56,128,541	26.0	50,330,323	41.4
5	304	독일	48,728,626	20.9	38,325,392	28.0
6	309	네델란드	41,410,543	34.3	29,993,319	21.3
7	303	영국	31,653,894	31.0	23,244,910	18.8
8	111	인도	24,036,440	64.8	21,501,868	46.0
9	132	싱가폴	29,679,572	28.0	21,417,771	12.1

국가별 수입

(단위 : 천불)

순위	코드	국가명	2007		2008(1월~0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956,261,491	20.8	784,688,043	29.9
1	116	일본	133,903,261	15.6	103,001,309	20.8
2	133	한국	104,044,626	15.8	78,317,526	19.4
3	143	대만	100,985,945	15.9	75,008,465	20.3
4	142	중국	85,695,669	16.8	60,032,513	13.6
5	502	미국	69,860,581	18.0	55,257,570	21.9
6	304	독일	45,421,815	19.9	37,720,936	31.5
7	601	호주	25,758,315	34.2	24,687,229	50.4
8	122	말레이시아	28,737,284	21.9	22,150,221	24.5
9	131	사우디아라비아	17,545,615	16.3	20,522,621	92.9

2-3. 최근의 동향

중국의 수출둔화 요인 : 대미 수출둔화, 위안화 절상, 가공무역 제한 조치, 수출 억제 정책
 수입증가 요인 :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수출 산업 고도화 및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변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중국의 1~8월 무역흑자 규모는 1,533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88억달러 감소
 금년 상반기중 중국의 대 한국 수입 증가율(19.4%)은 전체 수입 증가율(29.9%)을 하회

중국 수출에 3~4개월 선행하는 PMI지수는 7~8월 모두 48.4를 기록,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수출 둔화추세가 쉽게 반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의 대중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2-4. 헤이룽장성 대한국 품목별 수출입

대한국 품목별 수출

(단위 : 천불)

순위	코드	품목명	2007		2008(1월~0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535,840	37.7	359,882	-6.4
1	120100	Soya beans(whether or not broken)	42,223	149.8	80,213	197.9
2	100620	Husked(brown)rice	46,103	52.8	46,149	0.1
3	722830	Other bars, rods, of other alloy steel, hot-rolled, hot-drawn or extruded	34,174	79.7	25,938	30.0
4	847330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achines of heading no.8471	44,574	-47.1	22,112	-39.0
5	230320	Beet-pulp, bagasse, other waste of sugar manufacture	12,699	100.6	18,014	69.1
6	280469	Silicon(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99.99% of silicon)	7,741	31.4	11,158	130.2
7	230330	Brewing or distilling dregs and waste	1,886	212.1	9,344	1,444.4
8	441900	Tableware and kitchenware, of wood	7,538	-33.8	9,326	86.0
9	440890	Other	6,629	12.5	7,386	91.6
10	845899	Other lathes for removing metal	2,217	2,270.6	7,188	286.5
11	270710	Benzole	9,829	51.3	7,141	7.4
12	722840	Other bars and rods of other alloy steel, forged	1,941	-24.4	5,960	440.2
13	100630	Semi-milled or wholly milled rice	11,488	525.2	5,553	-51.6
14	294190	Other antibiotics	4,038	45.0	4,443	61.1
15	120810	Flours and meal of soya beans	4,733	40.6	3,944	33.6
16	730210	Rails of iron or steel	2,453	-	3,898	269.6
17	310210	Urea(whether or not in aqueous solution)	585	-	3,731	537.3
18	290511	Methanol(methyl alcohol)	-	-	3,061	-
19	230210	Residues of maize (corn)	853	66.5	2,907	3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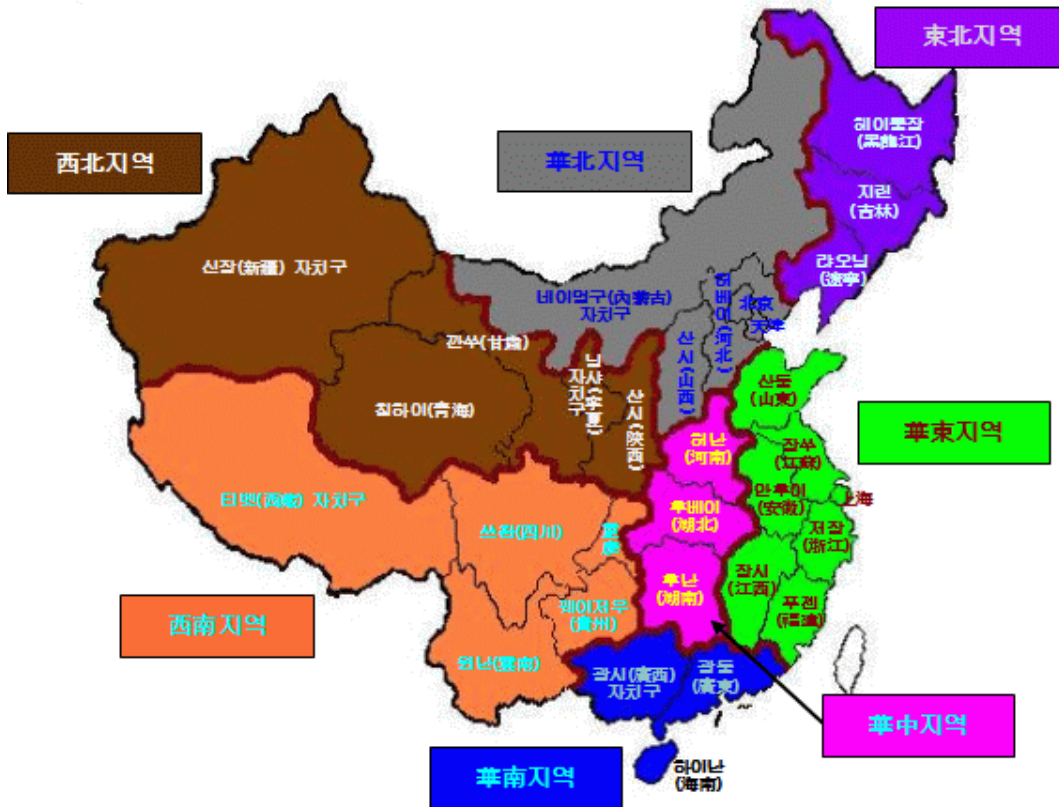
대한국품목별 수입

(단위 : 천불)

코드	품목명	2007		2008(1월~0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14,456	-39.9	93,874	0.0
070110	Potatoes(seed)	0	-	-	70,110.0
121220	Seaweeds and other algae	-	-	4	121,220.0
170199	Other cane or beet sugar, chemically pure sucrose	340	156.8	-	170,199.0
170290	Other, including invert sugar and other sugar and sugar syrup blends containing in the dry state 50% by weight of fructose	0	-47.8	1	170,290.0
170410	Chewing gum	3	39.7	2	170,410.0
170490	Other sugar confectionery, not containing cocoa	27	37.9	23	170,490.0
180632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in block, slab, bar form,not filled)	1	-	0	180,632.0
180690	Other	5	6.2	16	180,690.0
190220	Stuffed pasta	-	-	1	190,220.0
190230	Other pasta	63	12.6	6	190,230.0
190410	Prepared food obtained by theswelling or roasting of cereals	11	-72.8	15	190,410.0
190531	Sweet biscuits	29	-79.5	61	190,531.0
190590	Other bakers wares, communion wafers, empty cashets, sealing wafers	11	94.2	27	190,590.0
200599	Other	-	-	1	200,599.0
200899	Other fruit, nuts, edible parts of plants(otherwise prepared, preserved)	-	-	5	200,899.0
200961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30	1	-	-	200,961.0
210112	Preparation with a basis of extracts, essences or concentrates or with a basis of coffee	30	-25.9	166	210,112.0
210130	Roasted chicory, other coffee-substitutes, thereof extracts.essences	-	-	1	210,130.0

전통적 지역 구분

- 통상적으로 중국의 지역은 화베이(華北), 동베이(東北), 화동(華東), 화중(華中), 화남(華南), 시난(西南), 시베이(西北) 등 7개 구역으로 구분되며 이들 지역의 행정구역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3.1〉 중국의 지역 및 행정구역

- 이 보고서는 전통적 지역구분을 기준으로 하여 각 지역별 경제발전현황을 서술.

2-5. 지역별 경제 현황

〈표 3.1〉 2006년 중국 지역 및 행정구역별 면적, 인구 및 인구밀도

지역	행정구역 명	약칭	도읍(省都)	면적(km ²)	인구(만명)	인구밀도(명/km ²)	
화베이 華北	北京市	京	北京	16,808	1,581	941	
	天津市	津	天津	11,305	1,075	951	
	河北省	冀	石家庄	190,000	6,898	363	
	山西省	晋	太原	156,000	3,375	216	
	内蒙古自治区	蒙	呼和浩特	1,183,000	2,392	20	
	소계				1,557,113	15,321	98
중국 전체 구성비				16.2%	11.7%		
둥베이 東北	辽宁省	辽	瀋陽	145,700	4,271	293	
	吉林省	吉	長春	187,400	2,723	145	
	黑龙江省	黑	哈爾濱	454,000	3,823	84	
	소계				787,100	10,817	137
	중국 전체 구성비				8.2%	8.2%	
화둥 華東	上海市	沪(申)	上海	6,341	1,815	2,862	
	江苏省	苏	南京	102,600	7,550	736	
	浙江省	浙	杭州	101,800	4,980	489	
	安徽省	皖	合肥	139,600	6,110	438	
	福建省	闽	福州	121,400	3,558	293	
	江西省	赣	南昌	166,947	4,339	260	
	山东省	鲁	濟南	157,100	9,309	593	
	소계				795,788	37,661	473
	중국 전체 구성비				8.3%	28.7%	
화중 華中	河南省	豫	鄭州	167,000	9,392	562	
	湖北省	鄂	武漢	185,900	5,693	306	
	湖南省	湘	長沙	211,875	6,768	319	
	소계				564,775	21,853	387
	중국 전체 구성비				5.9%	16.6%	

지역	행정구역 명	약칭	도읍(省都)	면적(km ²)	인구(만명)	인구밀도(명/km ²)
화남 華南	广东省	粵	廣州	179,800	9,304	517
	广西壮族自治区	桂	南寧	236,300	4,719	200
	海南省	琼	海口	35,000	836	239
	소계			451,100	14,859	329
	중국 전체 구성비			4.7%	11.3%	
시난 西南	重庆市	渝	重慶	82,400	2,808	341
	四川省	川(蜀)	成都	485,000	8,169	168
	贵州省	贵(黔)	貴陽	176,100	3,955	225
	云南省	云(滇)	昆明	394,000	4,483	114
	西藏自治区	藏	拉薩	1,228,400	281	2
	소계			2,365,900	19,696	83
중국 전체 구성비			24.6%	15.0%		
시베이 西北	陕西省	陕(秦)	西安	205,600	3,735	182
	甘肃省	甘(陇)	蘭州	455,000	2,606	57
	青海省	青	西寧	722,000	548	8
	宁夏回族自治区	宁	銀川	66,400	604	91
	新疆维吾尔自治区	新	烏魯木齊	1,660,000	2,050	12
	소계			3,109,000	9,543	31
중국 전체 구성비			32.4%	7.3%		

* 자료 : 중국 行政區劃網(<http://www.xzqh.org/index.htm>), 인구는 2006년 각 지역 統計公報에서 발취

2-6. 헤이룽장(黑龍江)성

가. 개황

○ 인구 및 면적

- 면적 436,828km²에 인구 3,823만 명(2006년 말 상주인구 기준)
- 행정구역 : 12개 시 및 1개 지구(地區), 64개 구, 18개 현(縣)급 시, 45개 현 및 1개 자치현(自治縣)으로 구성.

〈표 3.50〉 흑룡강(黑龍江)성 행정구역 현황

시 (地級市)	면적(km ²)	인구(만명)	하급행정단위			
			구(區)	縣級시	현(縣)	자치 縣
하얼빈 哈爾濱	53,796	975	8	3	7	-
치치하얼 齊齊哈爾	43,000	543	7	1	8	-
허강 鶴崗	14,784	111	6	-	2	-
쌍야산 雙鴨山	26,483	149	4	-	4	-
지시 雞西	23,040	194	6	2	1	-
따칭 大慶	22,161	259	5	-	3	1
이춘 伊春	39,017	132	15	1	1	-
무단장 牡丹江	40,435	271	4	4	2	-
자무스 佳木斯	31,528	249	4	2	4	-
치타이허 七台河	6,223	87	3	-	1	-
헤이허 黑河	54,390	173	1	2	3	-
수이화 綏化	35,211	555	1	3	6	-
따싱안링 大興安嶺 地區	46,755	52	-	-	3	-
합계	436,823	3,750	64	18	45	1

* 자료 : 行政區劃網 <http://www.xzqh.org/quhua>

* 인구는 2004년 호적인구 기준

○ 산업요약

- 주요산업 : 장비, 석유화학, 에너지, 식품, 의약, 임목가공
- 주요 생산품 : 원유, 석탄, 천연가스, 시멘트, 보일러, 쌀, 의류 등
- 주요 개발구
-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 하얼빈(哈爾濱)
- 국가급 하이테크 산업개발단지 : 하얼빈(哈爾濱), 따칭(大慶)

○ 우리나라와의 교역현황

수출입 현황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9
수출	\$백만	148	142	187	228	229	154
수입	\$백만	224	230	325	245	372	261
상품수지	\$백만	-76	-88	-138	-17	-143	-107

* 자료 : - 수출입은행 중국 “성별경제 및 투자환경”, 200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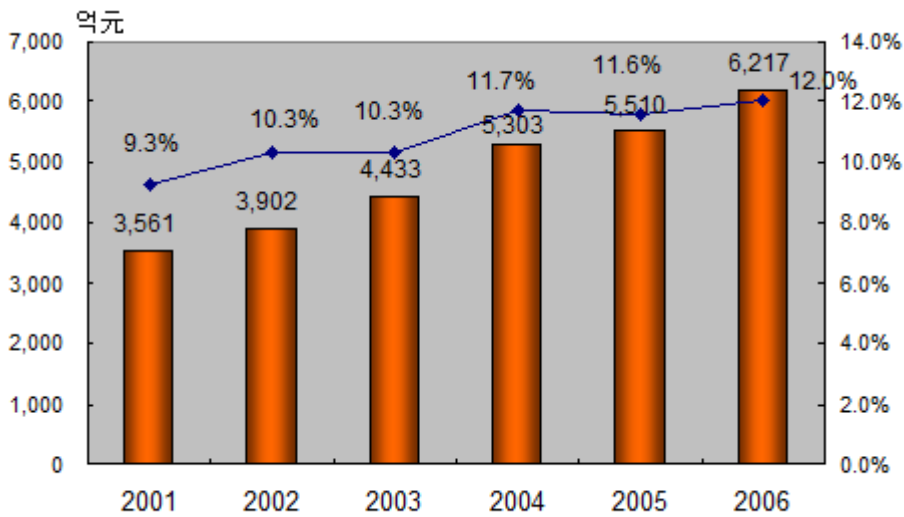
- 투자실적 (2006년 9월 말 총투자 기준) : 346건, \$213백만.

나. 주요 경제현황

1) 경제종합

○ 지역 국민총생산(GDP)

- 2006년 지역 GDP는 6,216.8억원으로 중국 전체 14위, 2005년 대비 12% 증가.
- 1차 산업 GDP 734억원, 8% 증가, 2차 산업 3,397.4억원, 13.9% 증가, 3차 산업 2,085.4억원, 10.5% 증가.
- 일인당 GDP는 16,268원(\$2,513), 전국 12위.
- 3 산업 구성비는 8.2 : 62.5 : 29.3.



〈그림 3.43〉 2001~2006년 黑龍江성 지역 GDP 및 성장률

○ 재정수입

- 2006년 지방재정수입 479.5억원, 22.2% 증가, 일반예산수입 386.6억원, 21.5% 증가.
- 지방재정지출 1,064.8억원, 23.6% 증가.

○ 물가

- 2006년 주민 소비자가격지수 101.9%, 2005년 대비 1.9% 증가.
- 공업품 창고가격지수 109.9%, 원재료·연료·동력구매 가격지수 105.6%, 고정자산투자가격 102.1%.
- 식품 가격 103.0%, 담배 및 주류 100.6%, 거주가격 104.9%, 의류 101.9%, 가정설비용품 101.0%, 교통통신 100.9%, 의료보건 및 개인용품 100.4%, 교육문화 레저용품 99.4%, 농업생산재료 101.9%.

2) 농업

〈표 3.51〉 2006년 黑龍江성 주요 농산품 생산현황

구분	단위	2006년 생산량	증가율(%)
양식(糧食)	만톤	3,780.0	5.0
- 쌀	만톤	1,360.0	16.0
- 옥수수(玉米)	만톤	1,453.5	5.4
- 소맥(小麥)	만톤	93.0	-4.3
- 대두(大豆)	만톤	652.5	-12.8
유료(油料)	만톤	63.1	4.1
감채(甘菜, 甜菜)	만톤	205.0	32.3
과일	만톤	47.1	2.0
채소	만톤	1,135.6	-1.6
아마(亞麻)	만톤	23.3	-32.4
담배	만톤	5.6	-23.8
육류 총생산량	만톤	319.6	4.3
- 돼지고기(豬肉)	만톤	186.3	5.2
- 쇠고기(牛肉)	만톤	58.9	8.9
- 양고기(羊肉)	만톤	12.0	5.5
- 가금(家禽)육	만톤	59.8	-2.7
란(卵)류	만톤	107.6	4.8
우유	만톤	464.6	4.6
대형가축 사육	만두	760.2	-9.5
- 소	만두	178.1	8.4
양(羊) 사육	만두	996.7	-15.6
돼지(猪) 사육	만두	1,506.1	-9.8
가금(家禽)류 사육	만마리	15,303.5	-8.3

- 농업
 - 2006년 농작물 파종면적 1,017.6만 헥타르, 2.9% 증가.
 - 2006년 양식 총생산량 3,780만톤, 5% 증가, 유료(油料) 생산량 63.1만톤, 4.1% 증가, 감채(甘菜, 靛菜) 생산량 205만톤, 32.3% 증가, 과일 47.1만톤, 2% 증가, 채소 1,135.6만톤, 1.6% 감소.
- 목축업 및 수산업
 - 2006년 말 젖소 178.1만두 사육, 8.4% 증가.
 - 수산물 생산량 46.5만톤, 4.5% 증가.
- 3) 공업
 - 공업 부가가치
 - 2006년 규모이상(국영 및 매출액 500만원 이상의 비국유기업) 기업의 공업 부가가치 2,554.5억원, 15.2% 증가.
 - 규모이상 공업기업 중 중공업 기업의 부가가치는 2,256.4억원, 15.1% 증가, 경공업 기업의 부가가치는 298.1억원, 16% 증가.
 - 6대 공업기지의 공업총생산액
 - 2006년 장비, 석유화학, 에너지, 식품, 의약 및 임목가공 등 6대 공업기지의 공업총생산액은 5,105.1억원으로 15.9% 증가.
 - 6대 공업기지의 공업총생산액은 규모이상 공업의 94.6%, 이윤은 1,703.5억원으로 17.6% 증가, 규모이상 공업 이익의 98.3%.

〈표 3.52〉 黑龍江성 6대 공업기지 2006년 공업총생산액

구분	2006년 공업총생산액(억원)	증가율(%)	규모이상 공업 구성비(%)
6대기지 합계	5,105.1	15.9	94.6
장비공업	816	18.9	15.1
석유화학공업	998.3	15.4	18.5
에너지공업	2,439.4	16.7	45.2
식품공업	614.1	13.7	11.4
의약공업	123	4.4	2.3
임목가공업	114.4	8.9	2.1

- 주요 공업제품 생산량
 - 공업제품 수출금액 104.1억원, 24.3% 증가.

- 총 243종의 공업제품 중 69.2%인 162종의 제품생산량이 2005년 대비 증가, 30% 이상 증가한 제품은 53종.

〈표 3.53〉 2006년 黑龍江성 주요 공업생산품

주요 생산품	단위	2006년 생산량	증가율(%)
에너지생산 총량(표준 석탄 기준)	만톤	12,186.6	2.3
석탄(原煤)	만톤	7,899.2	9.7
원유	만톤	4,340.5	-3.4
천연가스	억 m ³	24.7	0.6
쌀	만톤	256.4	17.6
설탕	만톤	22.2	10.8
유제품	만톤	122.7	30.3
액체우유	만톤	82.2	47.8
맥주	만리터	213.6	6.1
발효 주정	만리터	40.8	16.4
권연	억개	407.5	1.9
제지 및 판지	만톤	62.3	-4.0
원유 가공량	만톤	1,503.9	-2.1
코크스	만톤	561.5	15.9
가구	만건	303.6	15.8
인조판(人造板)	만 m ³	81.1	2.5
합성 암모니아(合成氨)	만톤	67.7	28.2
화학비료	만톤	51.1	39.8
에틸렌	만톤	51.7	-7.0
화학약품 원약	톤	6,193.8	-25.9
중약(中成藥)	만톤	2.6	21.0
화학섬유	만톤	12.8	-28.0
시멘트	만톤	1,456.3	34.5
생철(生鐵)	만톤	257.1	50.8
강재(鋼材)	만톤	293.7	25.0
10종 유색금속	만톤	0.8	7.3

주요 생산품	단위	2006년 생산량	증가율(%)
공업 보일러	증기 톤	8,142.0	17.3
발전소 보일러	증기 톤	73,701.2	0.7
금속절삭기계	대	7,175.0	24.2
자동차	만대	27.5	8.0
타이어	만개	344.3	45.0
발전량	억 Kwh	632.0	6.2
소형 컴퓨터	만대	3.4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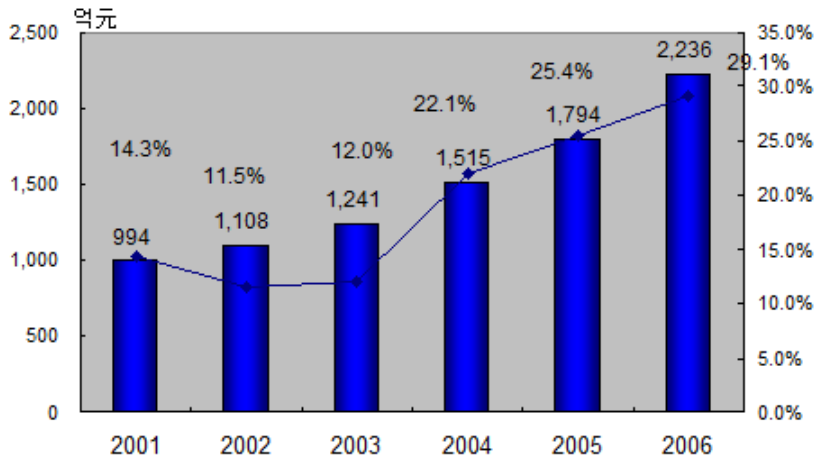
4) 고정자산투자

○ 고정자산투자 규모

- 2006년 고정자산투자는 2,235.9억 원으로 29.1% 증가.
- 도시투자 2,040.3억 원 29% 증가, 농촌투자 195.6억 원 29.8% 증가.
- 도시투자 중 국영기업투자 1,305.5억 원으로 13.5% 증가, 민간투자 683.7억 원 36.4% 증가.
- 장비, 석유화학, 에너지, 식품, 의약 및 임목가공 등 6대 공업기지 투자 758억 원 25.8% 증가, 전체 공업투자의 89.2%.

○ 투자현황

- 1억 원 이상 투자항목 총 499건, 50건 증가, 총 839.4억 원 투자.



〈그림 3.44〉 2001~2006년 黑龍江성 고정자산투자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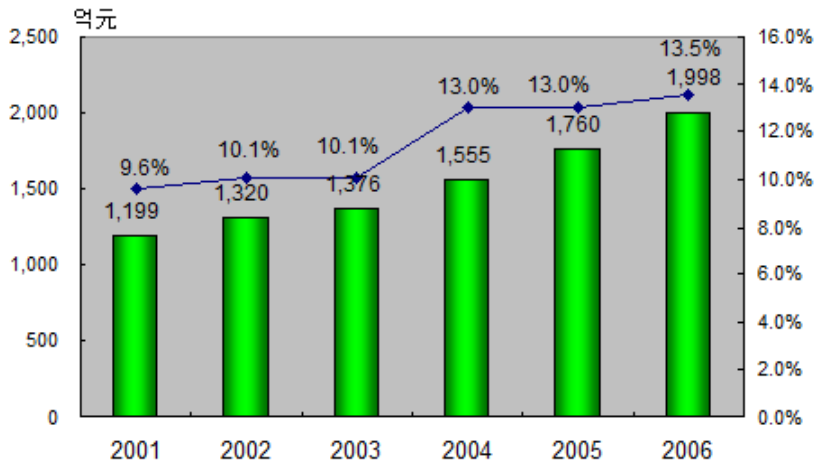
5) 소비시장

○ 소비시장 판매총액

- 2006년 소비시장 판매총액은 1,997.7억 원으로 13.5% 증가.
- 도시 소비시장 판매총액은 1,762.5억 원 13.9% 증가, 현 이하 농촌지역 소비시장 판매총액은 235.2억 원 10.5% 증가.
- 도소매업 및 무역업 판매총액은 1,718.6억 원으로 13.3% 증가, 숙박 및 요식업 판매총액은 241.2억 원 16.9% 증가.

○ 품목별 소비현황

- 도소매업 및 무역업 판매총액 증가품목 : 통신기자재 30.1%, 금은보석류 30%, 석유 및 제품 29%, 일상용품 25.9%, 가전제품 및 오디오 비디오 제품 23.6%, 의류 및 방직제품 17.3%, 자동차 15.9%, 화장품 15.3%, 식품 음료 담배 주류 15.2%, 문화 사무용품 7.8%.



〈그림 3.45〉 2001~2006년 黑龍江성 소비시장 판매총액 및 증가율

6) 대외무역

○ 수출입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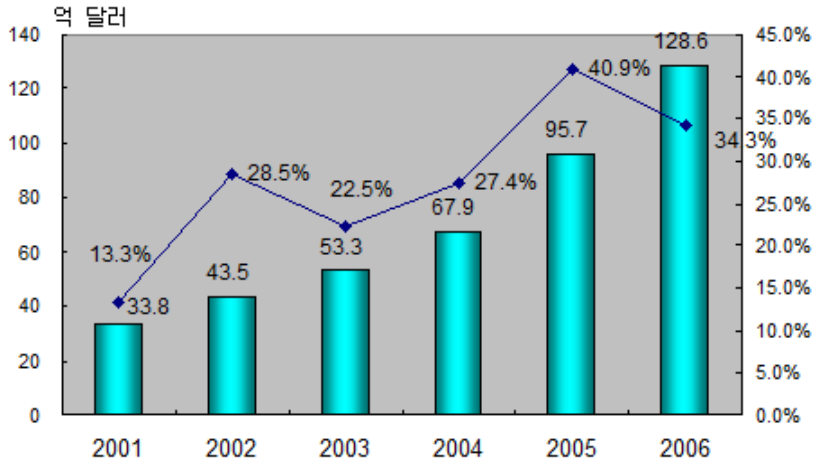
- 2006년 수출입총액은 128.6억 달러로 34.3% 증가, 전국 11위.
- 수출 84.4억 달러, 38.9% 증가.
- 수입 44.2억 달러로 26.3% 증가.
- 기전제품 수출 17.3억 달러, 하이테크제품 3.2억 달러, 각각 110%씩 증가.

○ 국가별 수출입

- 5대 무역국가 : 러시아, 미국, 홍콩, 한국, 일본,
- 주요 수출국가 : 러시아 45.4억 달러 18.3% 증가, 홍콩 6.6억 달러 3.5배 증가, 미국 4.1억 달러 71.8% 증가, 한국 3.3억 달러 7.3% 감소, 일본 3억 달러 11.5% 증가.

○ 해외직접투자(FDI)

- 2006년 해외직접투자금액(FDI)은 17.5억 달러로 14.9% 증가.



〈그림 3.46〉 2001~2006년 黑龍江성 수출입총액 및 증가율

7) 교통 및 관광

○ 교통

- 2006년 화물 거리환산 물동량 1,228.3억톤-km, 4.1% 증가.

- 2006년 말 차량 보유량 108.3만대, 17.6% 증가, 개인 자가용 65.6만대, 31.5% 증가.

〈표 3.54〉 2006년 黑龍江성 각종 운수방식 물동량

구분	단위	수송량	증가율(%)
화물 거리환산 물동량	억톤-km	1,228.3	4.1
철도	억톤-km	917.8	2.1
도로	억톤-km	252.1	10.8
수운	억톤-km	21.2	6.0
항공	억톤-km	0.6	21.3
파이프라인	억톤-km	36.5	9.0
여객 거리환산 수송량	억인-km	504.6	10.7
철도	억인-km	192.5	9.9
도로	억인-km	280.6	10.3
수운	억인-km	0.3	3.2
항공	억인-km	31.2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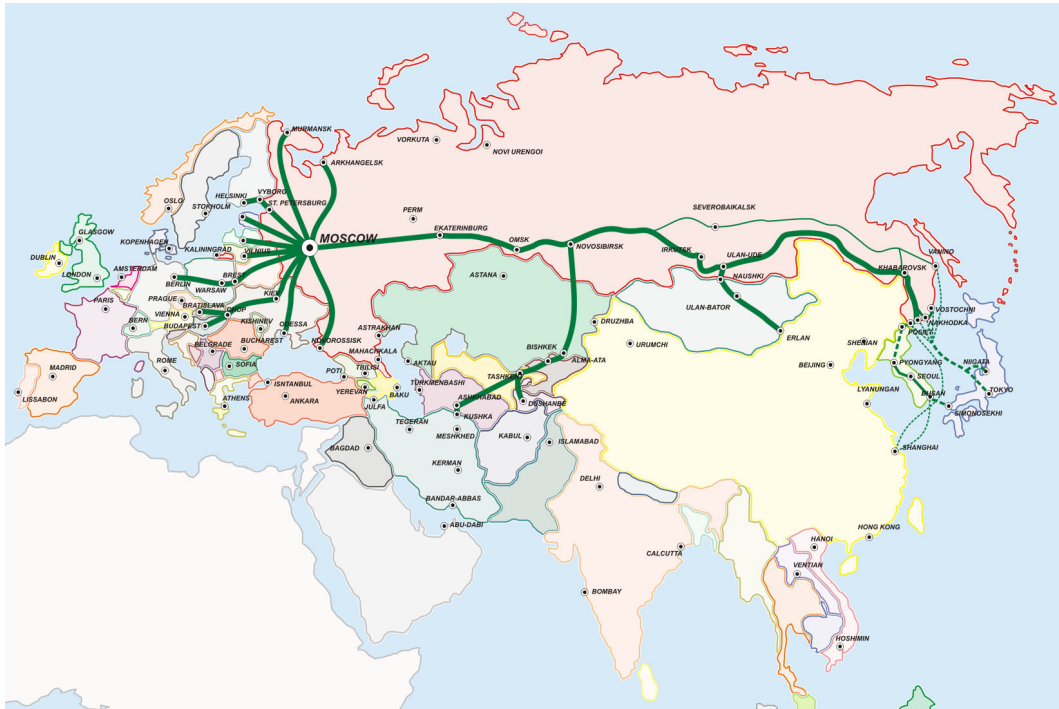
○ 관광

- 2006년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는 106.4만 명으로 29.5% 증가.
- 2006년 외국인 관광수입 4.9억 달러, 44.6% 증가.
- 2006년 내국인 관광객 방문 수는 5,193.9만 명으로 16.3% 증가.
- 2006년 내국인 관광수입 311.7억 원, 23.7% 증가.

다. 물류발전계획

○ 물류발전계획

- 黑龍江성은 현재 성차원의 물류발전계획은 없음.
- 성 발전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黑龍江성 현대물류산업 발전계획 (黑龍江省现代物流产业发展规划)》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3. 국제물류네트워크

3-1. 유라시아국제물류네트워크

아시아횡단철도

TSR

아시아횡단철도 북부노선

아시아횡단철도 남부노선

아시아횡단철도 남북노선

아시아횡단철도 아세안선

3-2. 동북아의 국제물류 네트워크



TAR 북부 4대노선

TSR(Siberia)

TCR(China)

TMR(Manjuria)

TMGR(Mongolia)

3-3. 동베이지역의 국제물류현황



- ◆ 해상항로 : 다렌(주로 트럭편) 으로 수송, 다렌항을 통하여 미주, 구주, 한국 등으로 연결 수송 (심양-장춘 불편구간)
- ◆ 국제철도편 : 하얼빈 북쪽의 만주리(중국령)에서 자바이카스크 (러시아)에 연결(TMR), TSR로 직접 모스크바 등 동 유럽까지 연결수송 -(Block Train 개설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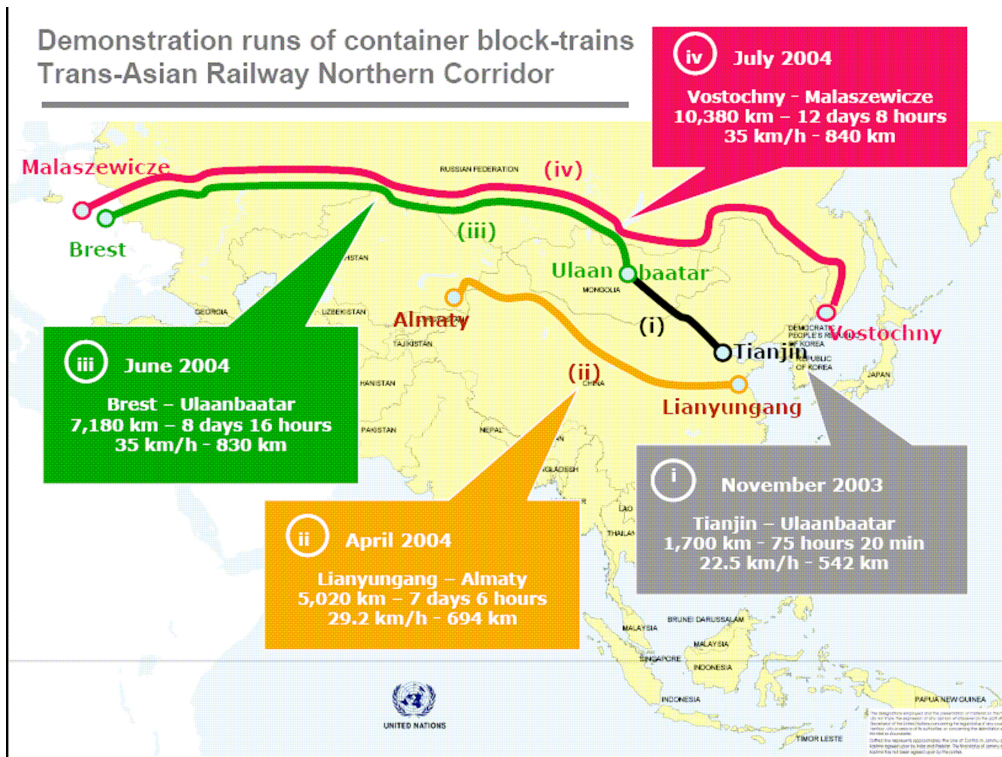
3-4. 동베이지역 국제물류 발전 전망

- ◆ 대련에 이르는 고속도로
 주요도시에서 대련에 이르는 고속도로에 연결도로망과 병목구간(특히 심양-장춘) 해소 공사가 완료되면 대련에 접근성이 향상될 것임

◆ 대련에 이르는 철도

- 현재로서 대련에 이르는 철도는 불편이 많은데특히 심양장춘 구간이 심하다 여객전용열차선이 건설중임으로 여객과 화물선이 분리운영 되면 대련으로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
- 엔타아 다련간 Rail Ferry 가 운항 함으로서 동북삼성과 다련이남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으로 연계가 향상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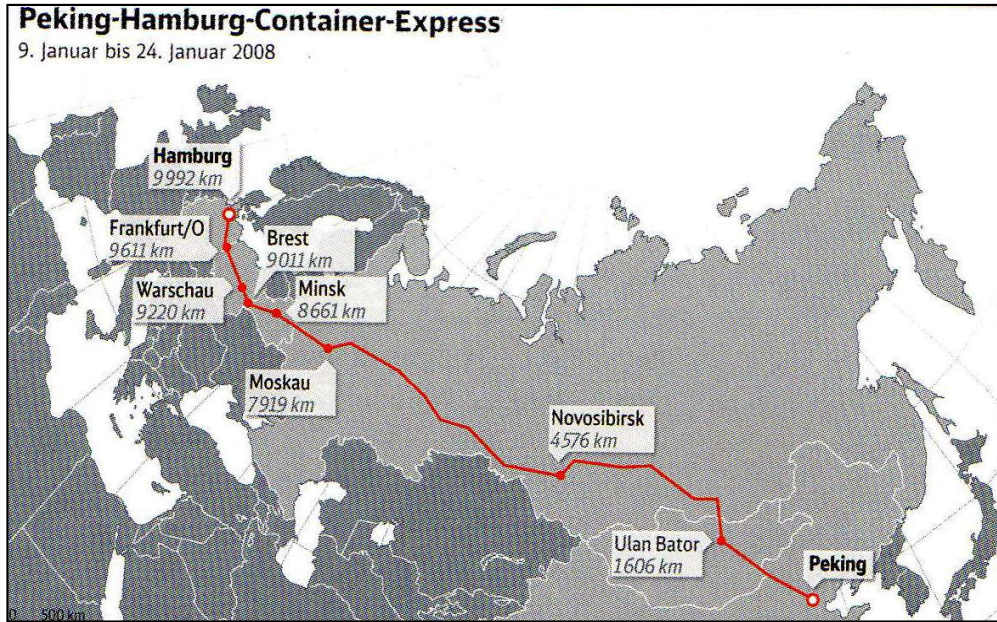
◆ 장래가 촉망되는 Block Train



■ Block Train 현황

- TMGR : Route
Tianjin, China - Mongolia- Russia - Poland, Belarus, EU, Finland
- 몽골리아와 1990년 수교후 경제적교류 활발
- 몽골리아 지하자원(석탄, 형석, 구리,MOS2외)
- 1998년부터 물동량 증가추세
- Block Train Launch : 2003. 4 Tianjin-Ulaanbaa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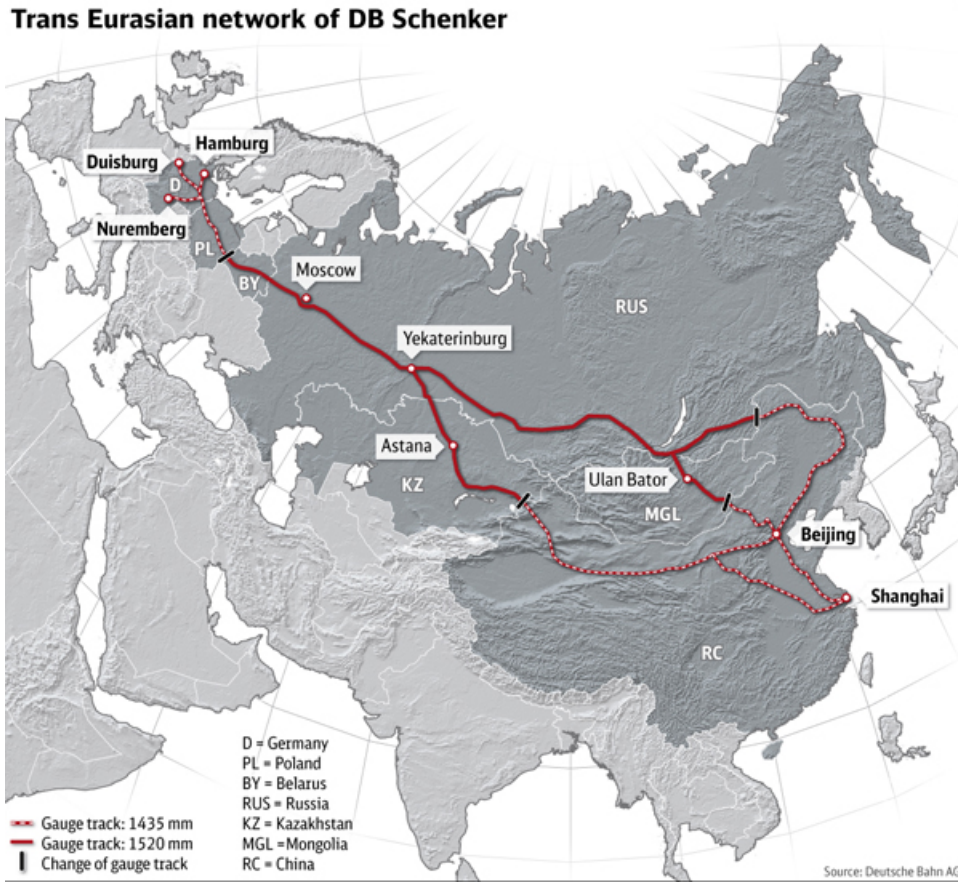
China Express Mongolian Becker 노선도



China Express Mongolian Becker 노선도

- ▲ The new railway connection for freight transport from Asia to Europe
- ▲ Cooperation between Chinese, Mongolian, Russian, Belarusian, Polish and German forwarders and railways
- ▲ Departures on the 15th and 30th of every month from Zamyn Ude(Mongolian / Chinese border); more frequent departures possible
- ▲ Carriage of 110 TEU per train
- ▲ Conceived for the region of North East China

DB Schenker 의 China Express Block Train 실용화 노선



DB Schenker 의 중국-유럽 Block Train 서비스 개념도

Beijing - Hamburg 기본노선에서(TMGR-TSR)

중국의 출발지를 상하이 추가, 경유로선을 TMR, TCR 추가, 유럽에서 종착지를 Duisburg, Nuremberg 추가

More than 10,000 kilometers in around 17 days – The first Trans Eurasia Express from China arrived in Hamburg. DB Schenker launches regular services to China after the festivities for the Chinese New Year.

Departing from Xiangtang, which lies around 700 kilometers north of Hong Kong, 50 containers carrying valuable IT products such as monitors and chassis were dispatched by Fujitsu Siemens Computers on an unusual route. The containers travelled the 10,000 kilometers to Germany by rail. In 18 days, the train crossed through China and Mongolia, reached the Russian border at Irkutsk. It then followed

the route of the Trans-Siberian railway via Novosibirsk, Omsk, Yekaterinburg and on to Moscow. From there, it travelled across Belarus and Poland until it finally arrived in Hamburg.

훈춘-나진-부산축 활용방안 (철도-도로-해상복합운송)

(1) 연길(기점)~부산항(종점·환적) 루트

- 연길~대련~부산(2,300km)간 화물수송루트 대신 연길~나진~ 부산간 수송루트를 이용할 경우 수송거리가 1,154km로 단축됨
- 각 루트간 소요일수를 비교해 보면 대련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7일이 소요되나, 나진항을 이용하면 3~5일이면 충분함

연길~부산항간 화물의 운송 루트별 경쟁력 비교

화물발생지	연길	
	대련	나진
수송거리	2,300km	1,154km
소요일수	7일이상	3~5일
목적지	부산	

(3) 훈춘(기점)~부산항(종점·환적) 루트

- 훈춘에서 부산까지의 다양한 수송루트를 분석한 결과 나진항을 이용하는 수송 루트가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각 루트간 소요일수를 비교해 보면 대련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7일, 블라디보스톡항을 이용할 경우에는 3~4일이 소요되나, 나진항을 이용할 경우에는 3일이 소요됨
- 각 루트 이용시의 소요비용에 있어서는 대련항을 이용할 경우에는 1,900달러, 블라디보스톡항을 이용할 경우에는 1,550달러가 소요되나, 나진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300달러가 소요되어 비용측면에서도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훈춘~부산항간 화물의 운송 루트별 경쟁력 비교

화물발생지	훈춘		
	나진	블라디보스톡	대련
비용	1,300\$	1,550\$	1,900\$
소요일수	3~5일	3~4일	7일
목적지	부산		

4. 결 론

동북아물류네트워크에서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부분은 중국의 동북삼성화물의 흐름이다 북쪽으로는 TMR 을 활용, 유럽에 이르는 Block Train 노선이 발달할 잠재성이 있고 중국정부는 이를 다렌에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성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철도개선, 도로개선).

또한 동북삼성 남쪽 한국동해 쪽으로 진출을 위하여 나진항개발에 중국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 및 중국의 동북삼성을 부산항의 배후지로 개발하여 부산항이 중국동북삼성의 Out Port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경로는 훈춘을 통하여 북한의 나진항에서 Feeder 선 또는 철도편으로 부산까지 수송하는 방법이 있고 두만강 북쪽의 훈춘항 개발에 참여하여 Feeder선으로 부산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북한과 중국, 후자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도 우리나라라는 이해관점에서 볼 때, 전자가 가장 바람직하나 북한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후자라도 택하여 무산항의 배후지로 개발이 시급하다 중국의 다렌에 연결개선방법과 본 방법은 시기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 하겠다

08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강 성 민(가톨릭대 교수)

한중 경제협력과 한국기업의 진출

2008년 10월18일

가톨릭대학교 강성민

목 차

- I. 한중 경제환경의 변화
- II. 동북3성의 현황
- III. “동북3성 진흥전략”
- IV. 한국기업들의 동북3성 진출
- V. 한 대기업의 중국진출전략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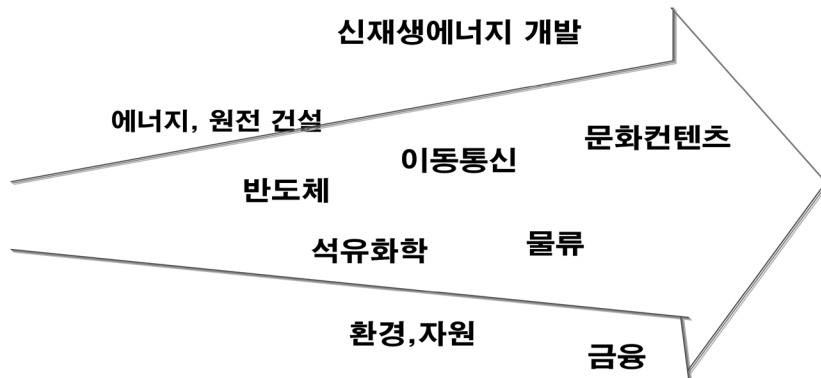
경제환경의 변화

- 2000억 달러 交易時代
- 중국의 WTO가입
- 중화권의 경제통합
- 수직적 분업의 보완적 관계에서 수평적 경쟁관계로

양국 기업은 相生 파트너십의 프론티어

-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산업의 클러스터 cluster
-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동질성
- 한국 대기업, 중견기업의 중국진출
- 현지화를 통한 현지완결형 경영의 확산
 - 삼성, LG, SK 등은 중국법인을 '제2의 본사'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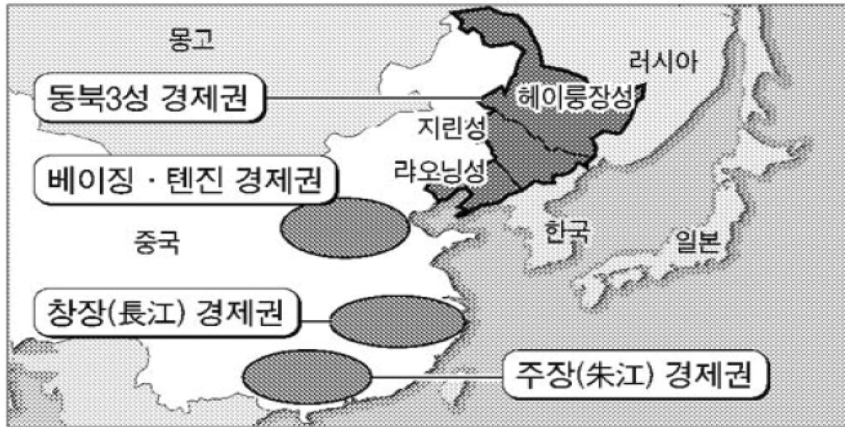
한중 기업의 투자협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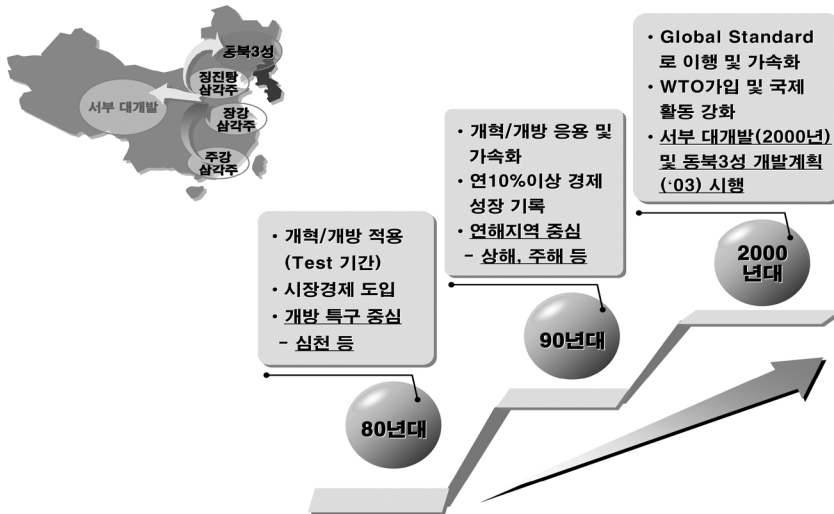
SK에너지와 중국석유화공(Sinopec)의 합작

-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 석유화학 생산기지
- 석유화학 분야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해외투자
- 중국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아시아 기업 최초의 진출
- 중국의 개발정책 참여를 통한 내수시장 개척이라는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의 모델

중국 4대 지역경제권



중국의 개발전략 변천사



동북 3성 진흥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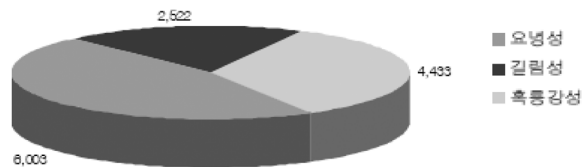
- 1950년대 천연자원이 풍부한 동북 3성은 중국 중화학공업의 요충지로 초기 중국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 성장축은 동부 연해지역으로 이전 (화교자본의 경공업, 민간기업 이 주도)
- 반면, 동북 3성은 중화학공업, 국유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기존설비가 낙후되는 등 경제적 지위가 크게 약화됨
- 2003년부터 ‘동북 3성 진흥전략’을 본격 추진
 - 전략의 핵심: 제4대 경제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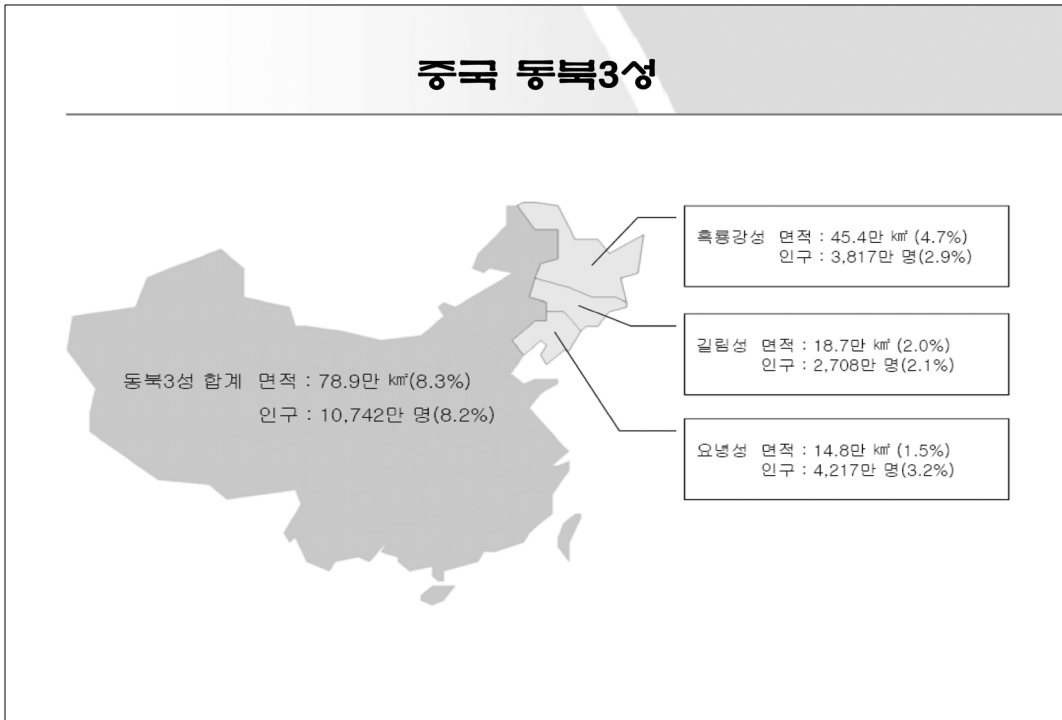
동북3성의 연도별 GDP의 중국내 비중

(단위 : %)

	1978	1995	2000	2005
요 념 성	7.6	4.8	4.8	4.4
길 림 성	2.3	2.0	1.9	2.0
흑 룡 강 성	4.8	3.5	3.3	3.0
동 북 3 성	14.7	10.3	10.0	9.4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2006), 『중국통계연감』





동북 3성의 주요 경제지표(2005년)

	단위	중국 전체 (A)	동북3성				B/A(%)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소계(B)	
GDP	억 위안 (억 달러)	183,084.8 (22,885.6)	8,009.0 (1,001.1)	3,620.3 (452.5)	5,511.5 (688.9)	17,140.8 (2,142.6)	9.4
경제성장률	%	10.2	12.3	12.1	11.6	-	-
1인당 GDP	위안 (달러)	14,040 (1,755.0)	18,983 (2,372.9)	13,348 (1,668.5)	14,434 (1,804.3)	-	-
고정자산투자	억 위안 (%)	88,773.6 (26.0)	4,200.4 (41.0)	1,741.1 (48.9)	1,737.3 (21.4)	7,678.8 (37.6)	8.6
무역규모	억 달러 (%)	14,219.1 (23.2)	410.1 (19.2)	65.3 (△3.9)	95.7 (40.9)	571.1 (19.0)	4.0
수출	억 달러 (%)	7,619.5 (28.4)	234.4 (23.9)	24.7 (31.7)	60.7 (64.9)	319.8 (31.5)	4.2
수입	억 달러 (%)	6,599.5 (17.6)	175.7 (13.4)	40.6 (△20.0)	35.0 (12.6)	251.6 (6.1)	3.8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	603.3 (△0.5)	35.9 (△33.6)	6.6 (46.1)	14.5 (17.0)	57.0 (△12.1)	9.4

주 : 1. GDP와 1인당 GDP는 다른 국가와 비교를 위해 미 달러를 병기(환율 \$1 : 8위안 적용)
 2.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2006), 『중국통계연감』

동북 3성과 동북연해 경제권과의 산업구조 비교(2005년)

- 1차, 2차, 3차 산업이 각각 12.0%, 46.6%, 41.4%
- 이는 중국 평균 산업구조와 비교할 때 다소 선진적인 형태이나
- 주강삼각주, 북경-천진-하북(경진기) 등 지역에 비해 1차 산업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3차 산업 비중은 다소 낮음.

(단위 : 억위안, %)

		산업별 생산액			비중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동북 3성	요녕성	882.4	3,953.3	3,489.6	10.6	47.5	41.9
	길림성	625.6	1,580.8	1,363.9	17.5	44.3	38.2
	흑룡강성	684.6	2,971.7	2,696.3	10.8	46.8	42.4
	소계	2,192.6	8,505.8	7,549.8	12.0	46.6	41.4
장강삼각주		2,434.7	21,974.1	16,488.9	6.0	53.7	40.3
주강삼각주		1,428.3	11,339.9	9,598.3	6.4	50.7	42.9
북경-천진-하북(경진기)		1,713.4	9,310.2	9,656.4	8.3	45.0	46.7
중국 전체		23,070.4	87,046.7	72,967.7	12.6	47.5	39.9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2006), 『중국통계연감』

동북 3성의 주요 공산품 생산 현황(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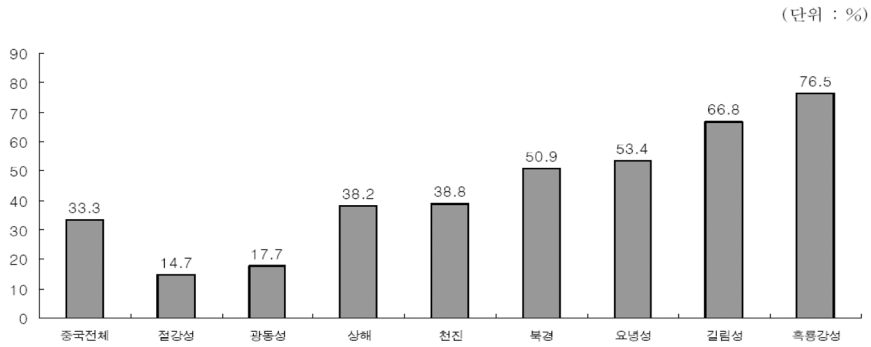
-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상당한 규모의 중공업기지를 보유함
- 중국에서 이미 발견된 157종의 광물 가운데 130여종이 동북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그 중 40여 종은 전국 3위 이내에 올라가 있음

	단위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동북 3성	중국 전체
원유	만톤	1,261.0(7.0)	550.6(3.0)	4,516.0(24.9)	6,327.6(34.9)	18,135.3
석탄	억톤	0.6(2.7)	0.3(1.4)	1.0(4.5)	1.9(8.6)	22.1
선철	만톤	3,114.0(9.1)	408.6(1.2)	178.1(0.5)	3,700.7(10.8)	34,375.2
조강	만톤	3,059.1(8.7)	462.0(1.3)	247.7(0.7)	3,768.8(10.7)	35,324.0
압연강	만톤	3,235.9(8.6)	479.4(1.3)	236.7(0.6)	3,952.0(10.5)	37,771.1
공작기계	만대	11.3(22.1)	0.1(0.2)	0.6(1.2)	12.0(23.5)	51.1
자동차	만대	15.0(2.6)	58.2(10.2)	23.6(4.1)	96.8(17.0)	570.5
발전설비	만KW	-	-	2,133.4(23.2)	-	9,200.0

주 : ()안은 전체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2006), 『중국통계연감』, 흑룡강성통계국(2006), 『흑룡강성통계연감』

공업총생산액 기준 동북 3성과 주요 지역의 국유경제 비중(2005년)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2006), 『중국통계연감』

동북3성 물류 인프라 -철도

- 밀도가 100km²당 3.06km로 중국 평균(0.76km)의 4배
- 70개 이상의 간.지선으로 형성된 방대한 철도망
- 중국에서 철도망이 가장 잘 발달된 지역 중 하나
- 하얼빈(哈爾濱)-대련 노선은 총 연장 946km에 달하는 물류간선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8대 도시 중 5개가 동 선상에 위치해 있는 등 동북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역할이 매우 큼.

광역 철도망



동북3성 물류 인프라 - 수운

- 요녕성의 4대 항만
 - 대련항(大連港), 영구항(營口港), 금주항(錦州港), 단동항(丹東港)
- 길림성의 두만강 루트 (러시아의 자르비노 및 포시에트항, 북한의 나진항)
- 흑룡강성의 수분하루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 4개 항만 가운데 가장 발달한 대련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1년 이후 연평균 22.0%가 증가, 2005년에는 270만 TEU로 전국 6위

중국 주요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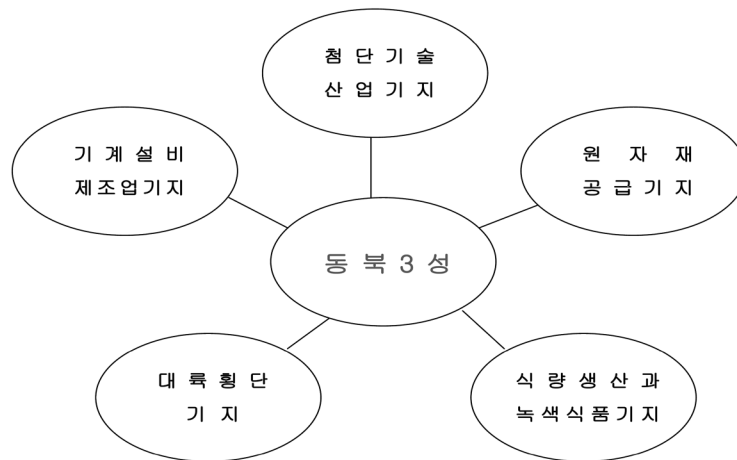
(단위 : 만TEU, %)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증가율
상해(上海)	634	861	1,128	1,465	1,808	30.0
심천(深圳)	507	762	1,061	1,362	1,620	33.7
영파(寧波)	121	186	276	401	520	44.0
광주(廣州)	173	217	276	331	468	28.2
청도(靑島)	264	341	424	514	373	9.0
대련(大連)	122	135	167	221	270	22.0
중국 전체	4,473	5,572	6,162	7,160	8,950	18.9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6), 『지구촌 해양수산』

동북 3성 진흥전략

전략의 핵심: 제4대 경제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것



동북 3성 진흥전략

- 기계설비 제조기지 건설계획
 -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의 기초 공업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음
 -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인력이 풍부함
- 원자재 공급기지 건설계획
 - 풍부한 원유, 철광석, 석탄, 목재 등의 자원
 - 동남부 연해지역 등 중국 전역으로 공급
 - 세계적 원자재 공급기지로서의 도약
- 첨단기술 산업기지 건설계획
 - 광전자, 생명공학, 신소재 등의 첨단기술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 상용화를 통한 산업화 등
- 식량생산과 녹색식품기지 건설계획
 - 동북지역은 전통적으로 식량생산기지
 - 농산물 가공, 백두산 특산품 생산, 약재 생산에 중점을 둠
 - 기계화를 통한 대량 생산
- 대륙횡단 기지 건설계획
 - 동북지역이 몽골,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과 인접하여 동북아 각국과 연결될 수 있다는 지리적 우위를 활용

동북 3성 진흥전략의 특징

- 노후화된 동북지역 중공업기반의 활성화
 - 경공업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에서 중공업 부활
- 이미 형성된 기존 국유경제체제를 개혁함
 -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소유제 개혁을 통한 국유경제 부문의 개혁이 동북 3성 진흥전략 성공여부의 관건
-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추진함
 - 한국, 일본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강화하여 자금 및 기술력 측면에서 협력관계 구축
 - 러시아, 몽골, 북한 등과는 자원개발 차원의 협력

동북 3성 투자의 장단점

-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시화될 경우 빠른 교두보 확보가 가능함
- 석유, 석탄, 철광성 등 지하자원과 삼림자원, 백두산 등 관광자원이 풍부
- 기존 중화학공업의 발전으로 인적자원이 풍부함
- 190여만명의 조선족으로 인하여 언어 및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과 높은 동질성을 보임
- 중앙정부가 동북지역을 중국의 4대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기로 함에 따라 발전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임
- 동 지역 인구는 약 1억1천만명이며 북한의 인구까지 감안할 경우 일본의 인구와 비슷한 거대시장임
- 전력이나 인터넷 사정은 양호한 편이나 물류와 부품조달 측면에서 타지역보다 열세임
- 중국 내 다른 발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관련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투자 결정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

주요 외국기업의 동북3성 진출 현황

구 분	주요 외국기업의 동북3성 진출 현황
IT, 전기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M, GE, HP, 소니, 마쯔시다, 미쯔비시, 도시바, 노키아
기타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스바겐, 1991년 장춘 제일자동차와 합작 • 도시바, 대련에 소형모터 공장과 TV 생산공장 등 운영, 심양에 엘리베이터 공장 운영 • 산요, 심양에 에어컨 공장 운영 • 브리지스톤, 심양에 트럭과 버스용 타이어 공장 운영 • GE, 1370만달러를 투자, 석유, 천연가스 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 부품 생산 등 • 코카콜라, 장춘에 바틀링 공장 건설

한국의 對 동북 3성 연도별 교역 추이

(단위 : 억달러)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동북 3성		중국 전체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98	8.7	6.0	0.6	2.5	1.4	3.5	10.7	12.0	119.4	64.8
1999	10.3	7.5	0.8	2.2	1.4	1.3	12.5	11.0	136.8	88.7
2000	15.0	10.3	0.8	3.9	1.2	2.0	17.0	16.2	184.5	128.0
2001	13.9	10.8	1.1	4.4	1.5	2.2	16.5	17.4	181.9	133.0
2002	16.3	12.9	1.0	6.1	1.4	2.3	18.7	21.3	237.5	174.0
2003	19.1	16.1	1.4	7.6	1.9	3.3	22.4	27.0	351.1	219.1
2004	20.6	23.6	1.5	3.7	2.3	2.4	24.4	29.7	497.6	295.8
2005	21.7	30.7	1.7	6.3	2.3	3.7	25.7	40.7	619.1	386.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서비스

한국의 對 동북 3성 상위 5위 수출 품목 및 비중

(단위 : %)

	1999		2001		2003		2005	
	동북 3성	중국	동북 3성	중국	동북 3성	중국	동북 3성	중국
1	전기전자 (17.1)	전기전자 (16.7)	전기전자 (20.1)	전기전자 (18.8)	전기전자 (26.1)	전기전자 (24.8)	전기전자 (19.0)	전기전자 (27.2)
2	기계류 (11.3)	플라스틱 (11.6)	기계류 (12.6)	기계류 (11.8)	기계류 (15.5)	기계류 (20.0)	기계류 (16.0)	기계류 (15.7)
3	철강 (9.4)	광물연료 (9.6)	플라스틱 (8.6)	플라스틱 (10.7)	철강 (7.9)	유기화학 (8.9)	플라스틱 (9.5)	유기화학 (9.7)
4	플라스틱 (8.1)	유기화학 (8.8)	철강 (7.6)	유기화학 (10.0)	플라스틱 (7.8)	철강 (7.6)	철강 (7.6)	광학기기 (8.6)
5	인조장섬유 (5.8)	기계류 (8.3)	유기화학 (4.5)	광물연료 (9.4)	유기화학 (6.4)	플라스틱 (7.4)	유기화학 (6.6)	플라스틱 (7.4)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서비스

한국의 對 동북 3성 상위 5위 수입 품목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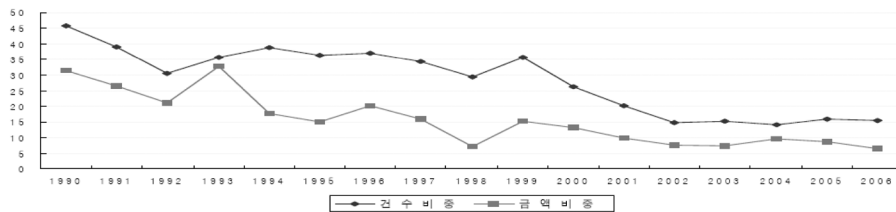
(단위 : 억달러)

	1999		2001		2003		2005	
	동북 3성	중국	동북 3성	중국	동북 3성	중국	동북 3성	중국
1	곡물 (12.8)	전기전자 (21.4)	곡물 (19.8)	전기전자 (22.5)	곡물 (30.8)	전기전자 (25.2)	철강 (18.1)	전기전자 (25.0)
2	전기전자 (12.1)	광물연료 (8.1)	의류 (11.1)	광물연료 (9.7)	의류 (11.5)	기계류 (9.5)	곡물 (16.0)	기계류 (12.2)
3	광물연료 (6.6)	기계류 (7.7)	광물연료 (11.0)	기계류 (9.1)	전기전자 (8.2)	광물연료 (7.4)	의류 (8.8)	철강 (10.4)
4	의류 (6.5)	철강 (5.3)	전기전자 (7.0)	의류 (5.0)	철강 (6.8)	의류 (5.1)	광물연료 (8.4)	광물연료 (6.1)
5	목재 (5.4)	수산물 (4.5)	기계류 (5.7)	수산물 (4.6)	수산물 (6.6)	곡물 (4.8)	전기전자 (8.0)	의류 (3.8)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서비스

한국의 對 동북 3성 투자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한국기업의 동북 3성 진출현황

	기업명	분야(진출연도)	현황
대련(大連)	두산엔진 한라공조 오리엔탈정공 LS산전 STX	선박엔진(2005) 자동차용 에어컨(2004) 조선기자재(2003) 전력설비 조선소(2007)	공장건설 중 2006. 5월 공장 준공 제1공장 준공, 제2공장 건설중 - 조선해양 종합생산기지 건설중
심양(沈陽)	SK그룹 S&T 중공업 LG전자	에너지(2005) 자동차 부품(2004) 가전(1994)	중국 내 주요소 설립 - -
무순(撫順)	STX	선박엔진(1997)	2005~8년 7,000만 달러 추가 투자 예정
안산(鞍山)	조선내화	제철소용 내화벽돌(2004)	2005년 공장 준공
장춘(長春)	금호타이어	자동차 타이어(2006)	2006년 공장 착공
단동(丹東)	동양기계	농업용 트랙터(2005)	-

한국의 對 동북 3성 연도별 투자 추이

(단위 : 건, 억달러)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동북 3성		중국 전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8	39	0.3	32	0.1	9	0.1	80	0.5	266	7.0
1999	81	0.4	71	0.2	14	0.0	166	0.6	458	3.7
2000	111	0.6	74	0.1	18	0.1	203	0.8	778	7.2
2001	137	1.1	55	0.2	22	0.0	214	0.3	1,048	6.5
2002	148	0.6	42	0.2	20	0.0	210	0.8	1,386	10.4
2003	195	1.0	40	0.1	19	0.1	254	1.2	1,679	16.9
2004	224	2.0	56	0.2	22	0.1	302	2.3	2,142	23.1
2005	270	1.8	64	0.4	23	0.1	357	2.3	2,243	26.6
누계	1,951	11.0	814	2.8	335	3.1	3,100	15.9	13,616	1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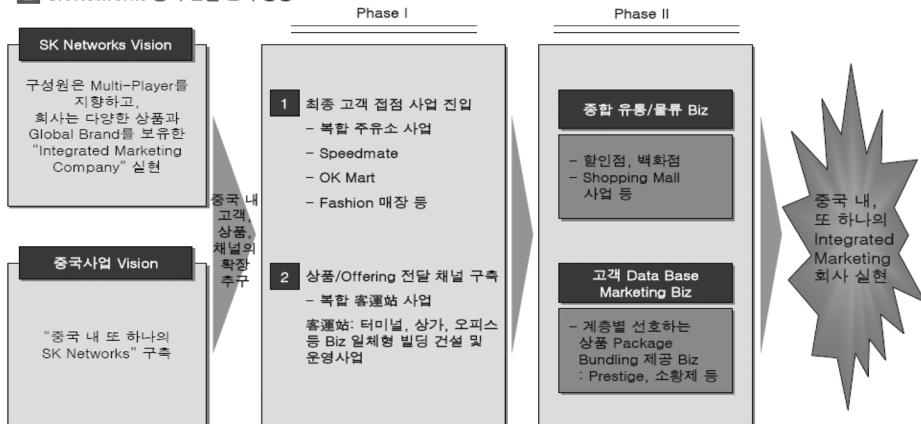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SK 네트워크 심양 시외버스터미널 복합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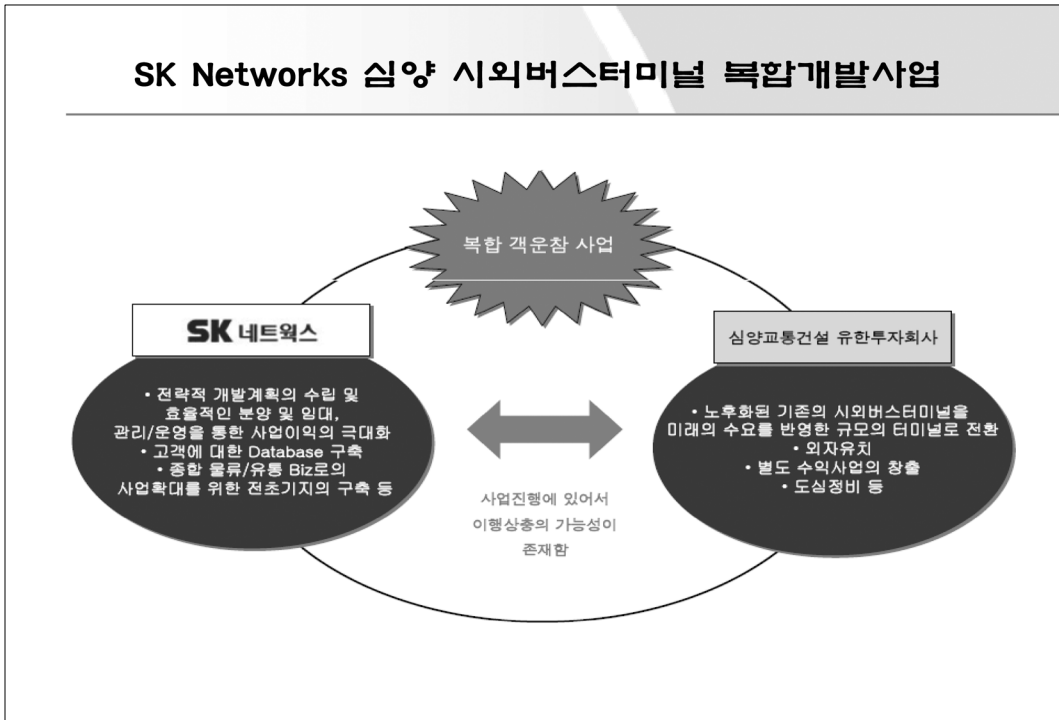
1 SK Networks 사업분야



2 SK Networks 중국 진출 전략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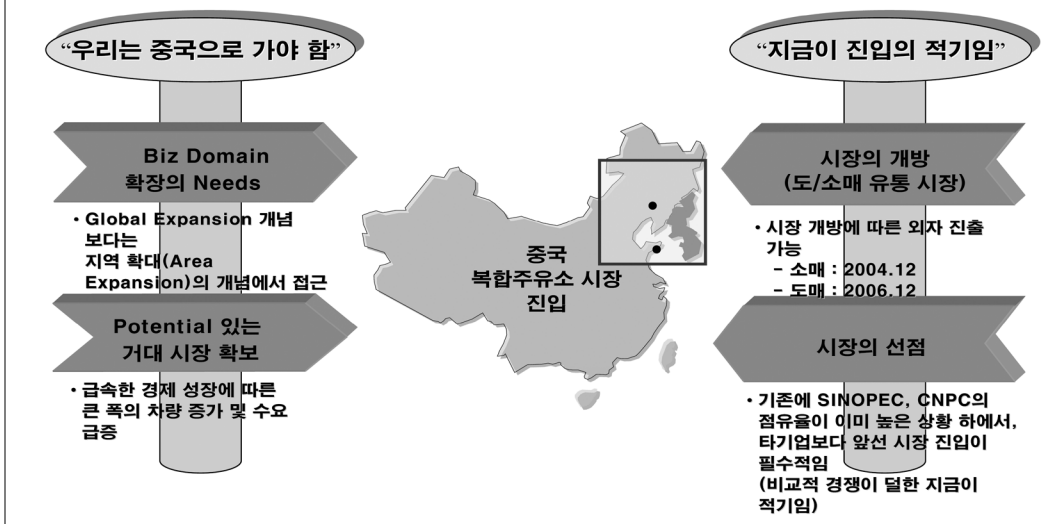








SK Networks 심양 시외버스터미널 복합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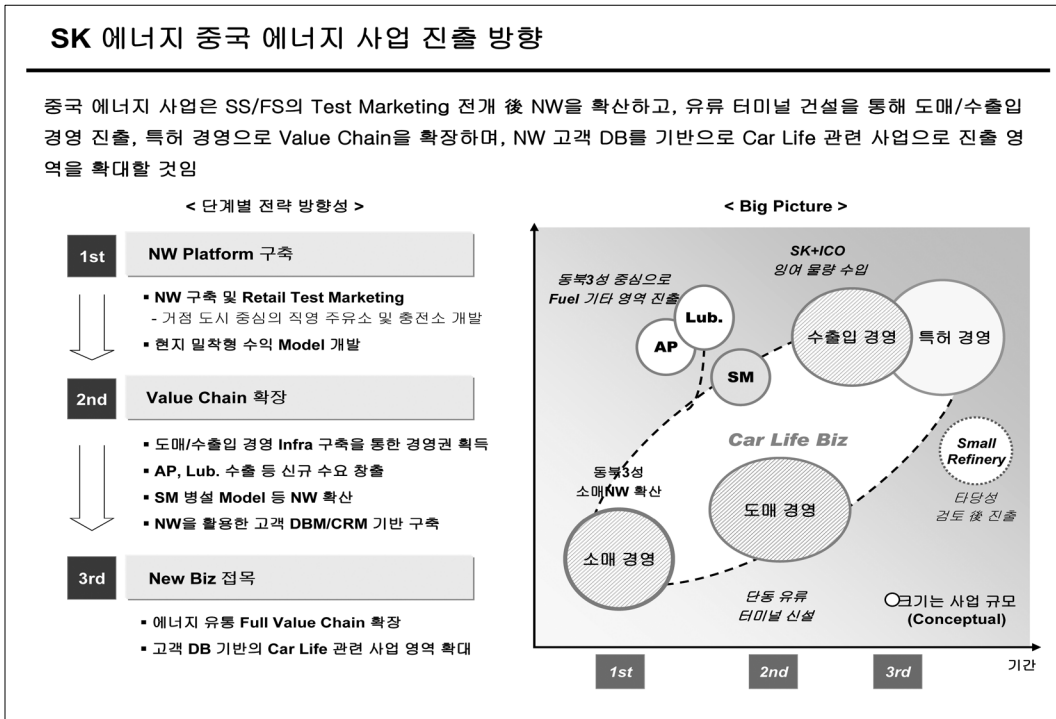


II. 중국시장 진입 의미

중국 시장의 급 부상으로 Global Major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으나, SKN은 당면하고 있는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창출 (Area Expansion)을 위해 중국 진출을 추진해야 함



I. 중국 진출 증장기 Milestone (심양/동북 3성 중심)			4. 진출 Milestone (계속)	
북합 주유소 및 북합 客運站을 중심으로 중국 內 Integrated Marketing Company를 지향해 나갈				
단 계	1 단계 ('06~'07)	2 단계 ('08~'09)	3 단계 ('10~)	
지역	심양시 + 청도시	심양 중심의 환 경제권 (심양 포함 반경 100km)	동북 3성 + 산동성	
주요 Biz	1 • 북합 주유소: 총 25개소 (심양:20개/청도:5개) • 북합 客運站: 1개소 	• 북합 주유소: 총 55개소 (요녕:40개/산동:15개) • 북합 客運站: 총 4개소 	• 북합 주유소 (100개소) • 북합 客運站 (10개소) 	규모의 Biz 경제 실현 ↓ 중국 내, 고객접점 사업을 통해 DB Marketing을 기반으로 중국 내 또 하나의 "SK Networks" 구현
	2 • S/M: 20개소 • OK Mart: 20개소 • Fashion: 10개소 	• S/M: 40개소 • OK Mart: 40개소 • Fashion: 20개소 	• SPEED MATE (80개소) • eigen • CASPI CONUS (40개소) • SK mart (80개소) 	
	3 유통/물류 석유 Middle Stream 진입 ▶ 보세 법인 운영 ▶ 석유타미널 사업 등	유통/물류 석유 Up-Stream 진입 ▶ 택배, 할인점/백화점 등 Pilot Test ▶ 석유 Up-stream 진출	종합 유통/물류 회사 에너지 Biz 확장/강화 ▶ 할인점/백화점 등 Shopping Mall 사업 ▶ 에너지 분야로 Biz 확대	
고객	100만 (심양/청도 인구의 10%)	1,000만 (요녕성 인구의 25%)	6,600만 (동북3성/산동성 인구의 30%)	



SK Telecom 중국사업 투자

통신사업 관련 중국내 교두보 확보 추구하고 병행하여, **Convergence** 사업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체계 구축

통신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사업	
1. 이동통신사업 ▪China Unicom (지분 3.8%, \$1,000M) -중국 2위 유무선 통신사업자 2. 통신 부가서비스 ▪UniSK (지분 49.0%, \$2.9M) -모바일 부가서비스 (VAS) ▪Viatech (지분 70.1%, \$14.1M) -유무선 Portal 및 모바일 부가 서비스	1. 중국 업체 인수 ▪E-eye 까오신 (지분 65.5%, \$15.6M) -중국 텔레매틱스 ▪TR Music (지분 42.2%, \$11.0M) -음반 제작 및 음원 판매 ▪Magicgrid (지분30.0%, \$7.8M) -온라인 게임 개발 및 배급	2. 국내사와의 공통 투자 ▪Cyworld China (지분 53.8%, \$10.5M) -Social Networking Service ▪Beijing Sidus HQ (지분 49%, \$1.1M) -Entertainment Agency ▪88 Piao (지분 35%, \$3.2M) -공연 티켓 예매/발권

참고 문헌

- 신호윤(2007), “동북 3성 진흥전략과 한·동북 3성 경제협력 방안”, 산은경제연구소
- 박태호(2004), “중국 동북 3성 투자환경과 향후 개발 전망”, 산은경제연구소
- 김명식(2007), “중국 동북진흥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09

하얼빈과 한국간의 경제협력

김 태 현(연세대 경영대 학장)

하얼빈과 한국간 경제협력

- 현황과 향후 전망

2008. 10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김태현 교수

목차

1. 하얼빈의 경제현황과 발전상
2. 하얼빈-한국간 경제협력 현황
3. 결론

1. 하얼빈의 경제현황과 발전상

2. 하얼빈-한국간 경제협력 현황

3. 결론

하얼빈은 흑룡강성의 성도(省都)로서 동북3성*의 주요 공업도시 중 하나임

하얼빈 개요(2007)



* 동북3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하얼빈 일반 현황

인구: 974만 명 기후: 중온대 대륙계절풍 기후
 면적: 5.4만 (km²) 행정구역: 8구, 7현, 4시

하얼빈 경제 현황(2007)

• GDP: 2,467억 위엔 • 공업생산: 690억 위엔
 • 1인당 GDP: 24,768 위엔 • 수출: 18.66억 달러
 • 소비자매출: 1,036억 위엔 • 수입: 14.23억 달러

주요산업

• 의약 • 전자정보제품 제조
 • 자동차 • 식품

부존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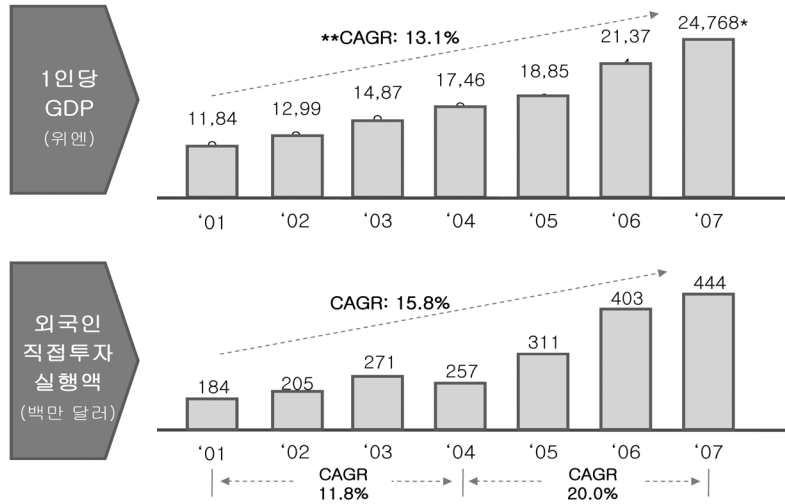
• 자원류
 : 목재, 석유, 석탄, 대리석, 천연가스
 • 농산품(이하 각 전국 1위 생산)
 : 대두, 감자, 아마, 사탕무우

외자유치

• 신규설립회사 114개
 • 규모: 계약 \$9.83억, 실행 \$4.44억

하얼빈의 경제발전

하얼빈의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 07년 1인당 GDP인 24,768위엔은 미화로 약 3,630 달러임
 ** CAGR(Compound Average Growth Rate): 연평균성장률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8

흑룡강성의 성장

... 하얼빈의 관할성인 흑룡강성의 투자 증대 및 GDP 증가는 하얼빈 경제전망에 긍정적 신호임

흑룡강성 거시경제지표 추이

항 목		단 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GDP	2차산업	억위안	1,999	2,169	2,532	3,155	2,971	3,365	3,780	CAGR: 12.1%
	공업	억위안	1,768	1,916	2,249	2,814	2,696	3,049	-	
	건설업	억위안	-	-	210	245	274	316	368	
	1인당 GDP	위안	9,349	10,184	11,615	13,897	14,430	16,195	18,510	
	3차산업	억위안	1,153	1,266	1,397	1,560	1,867	2,086	2,405	
	1차산업	억위안	409	447	501	588	672	738	892	
	전산업	억위안	3,561	3,882	4,433	5,303	5,510	6,189	7,077	
외국인 직접투자	계약건수	건	242	199	239	276	-	-	-	CAGR: 15.9%
	계약액	백만달러	898.0	1,123.0	1,394.8	833.3	-	-	-	
	투자액	백만달러	861.1	945.6	1,029.7	1,240.0	1,450.0	1,710.0	2,090.0	
소득수준	도시지역 1인당 가처분소득	위안	5,426	6,101	6,679	7,471	8,272	9,182	7,519	
	직공평균임금	위안	8,910	9,926	11,038	12,557	14,458	15,894	19,386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	위안	2,280	2,405	2,509	3,005	3,221	3,552	4,132	
국내투자	전사회고정자산투자	억위안	980	1,086	1,223	1,515	1,794	2,236	2,864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8

하얼빈의 관할성인 '흑룡강성'을 포함한 동북3성 모두 경제적 성장세에 있음

동북3성 경제동향('08, 상반기)

항목 (억 위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동북3성	중국전체	점유율(%)
국내총생산액	5,578.05	2,384.09	3414	11,376.14	130,619	8.71
1차산업	403.73	177.33	220.1	801.16	1,900	6.79
2차산업	3,386.44	1,321.24	1,971.1	6,678.78	67,419	9.91
3차산업	1,787.88	889.52	1,222.8	3,900.2	61,400	7.59
고정자산투자액	3,422.9	1,512.43	722.9	5,658.23	58,436	9.69
사회소비품 판매액	2,395.1	1,138.36	1,300.2	4,773.66	51,043	9.36
대외무역총액 (억 달러)	341.2	66.4	85.4	493	12,342	4
수출총액	190.3	21.61	56	267.91	6,666	4.02
수입총액	150.9	44.79	29.3	224.99	5,676	3.97
지방재정수입 지방재정지출	672.46 774.32	65.31 432.75	387.3 596.1	1,125.07 1,803.17		
도시주민 1인당가처분소득 (위엔)	7,096	6,292.37	5691	6,359.79	8,065	
농촌주민 1인당현금소득 (위엔)	4,489	3,996.42	4,157	4,214.14	2,528	

* 자료: 주간무역, 2008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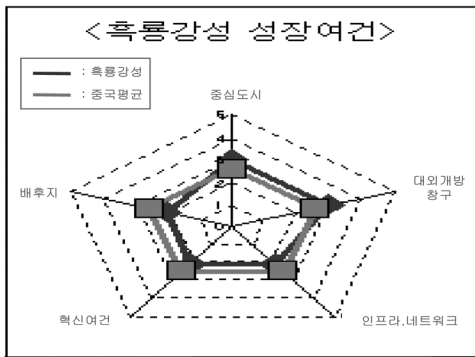
동북3성 경제의 성장

- 2008년 상반기 동북3성 GDP: 1조1376억 위엔
- 전년 동기대비 14.17% 성장
- 중국전체 성장률 11.5%에 비해 2.6%p 우위
- 점유율로는 중국국내총생산의 8.71%

흑룡강성 경제동향('08, 상반기)

- 전년 동기대비 11.8% 성장
 - 1차산업: 220.1억 위엔(5.5%↑)
 - 2차산업: 1971.1억 위엔(13.9%↑)]
 - 3차산업: 1222.8억 위엔(9.5%↑)
-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급속증가
 - 투자액: 722.9억 위엔(29.2% 증가)
 - 착공프로젝트: 411개
- 대외무역신장(85.4억 달러)
 - 동북3성중 유일하게 수출증가율(28.1%)이 수입증가율(15.5%) 대비 월등히 높음

그러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흑룡강성 전반적으로 성장여건의 개선이 필요함



- 중심도시: 중심도시의 존재 유무 및 규모, 역할, 도시권 밀집도
- 대외개방창구: 대외개방창구의 규모, 역할, 대상지역
- 배후지: 중심도시 배후의 농촌지역 규모, 경제수준
- 인프라, 네트워크: 연관산업 존재, 물류 및 통신인프라 수준
- 혁신여건: 지역의 지속적개선 추구여건, 문화적요인 등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6

흑룡강성 성장여건 상세

중심도시

- 아직 **하얼빈**이 흑룡강성의 경제적 거점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함
- '3차산업'보다는 '2차산업' 중심
- '도시주민가처분소득(중심역할평가의 기본지표)'도 타 경제발전 도시대비 낮음

배후지

- 농촌지역 1인당 국민소득은 낮은 편이므로 배후지역의 공업화 촉진자금 부족
- 농촌지역 인구밀도가 희박하여 농촌주민을 비농업으로 유인하기 어려움
- 풍부한 농산품 기반의 산업화는 잠재력 큼

대외개방창구

- 항구가 없어 육로 중심(대러시아 활발)
- 러시아와의 연계로 '아시아-유럽 창구' 및 '산업,금융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함

인프라 네트워크

- 원거리수송망인 철도,송유관, 전력망 우수
- 성내 단거리 네트워크(도로)는 미흡

혁신여건

- 중공업 분야의 대형국유기업이 많아 "경쟁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단점

단기적 여건 변화는 어려우나, 성 정부의 변화노력 등으로 보아 중,장기적 성장여건의 변화잠재력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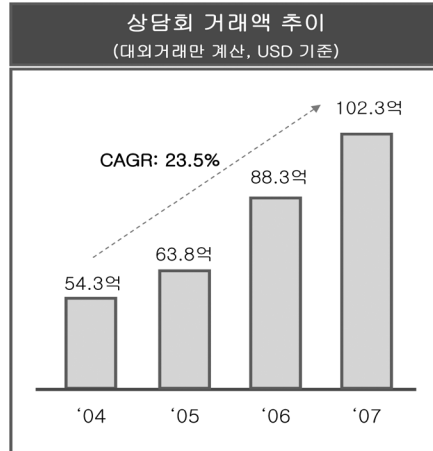
하얼빈은 국제투자유치를 통해 흑룡강성 및 동북 지역의 경제교류 허브로 거듭나고 있으며 ...

하얼빈의 투자유치노력 ①

하얼빈국제경제무역 상담회



- 정식명칭: 중국하얼빈국제경제무역상담회
- 시작년도: 1990년 제1회 개최
- 참가연인원: 18회까지 도합 140만 명(해외인원만)
- 주 상담내용:
 - 중외 경제무역과 과학기술교류
 - 동북아 경제무역협력촉진
 - 동북노후공업기지진흥 등 다양
- 주최단체: 중국상무부, 중국국제무역추진위원회, 흑룡강성인민정부, 절강성 인민정부, 하얼빈시 인민정부



... 해외투자를 하얼빈 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

하얼빈의 투자유치노력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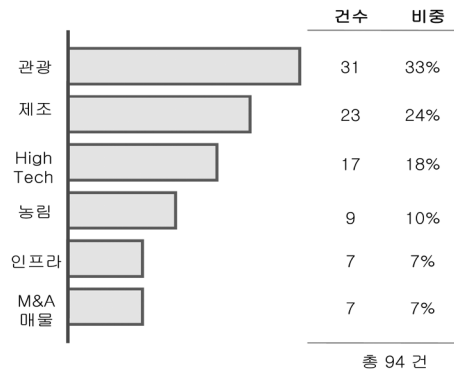
하얼빈의 투자유치 노력

하얼빈의 현재 해외투자요청 현황

CHINA HARBIN

Investment Projects

Project Name	Year
1. Harbin Aluminum & Magnesium Material Technology Industrialization	2008
2. Standardized Factory House of Harbin Pingfang Industry Zone	2008
3. Project on Nationalized Cotton Industry (Wendang) Development	2008
4. Development of the East Area of Nishi New District	2008
5. Lixin Pharmaceutical Industry Zone	2008
6. Harbin Green Food Industry Zone	2008
7. Processing of Recycled and Repair Electronic Information Pl.	2008
8. Services of Investment in Software Information Service Industry	2008
9. Infrastructure Construction of Harbin International Software Park	2008
10. Harbin International Airport Processing Zone	2008
11. Harbin International Airport Processing Zone	2008
12. Infrastructure Construction of Harbin International Airport Park	2008
13. Longhai Logistics Center in Pingfang Industrial Zone, Pingfang Pl.	2008
14.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in Pingfang Green Market	2008
15. Investment for Pingfang Printing and Graphic Industry	2008
16. Standard Industrial Factory House in Sushan	2008
17.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Service	2008
18. Industrial Reform of Harbin Printing Group Corporation	2008
19. R&D Production Base of Harbin Shiping CNC Machine and Paper Textile	2008
20. Auto Repair Station for Harbin Renault	2008



* 자료: 하얼빈시 홈페이지(2008)

하얼빈의 산업은 현재 2차 산업 중심이나 최근 관광 등의 3차 산업에 대한 투자 요구가 대두됨

1. 하얼빈의 경제현황과 발전상

2. 하얼빈-한국간 경제협력 현황

3. 결론

하얼빈을 포함한 흑룡강성과 한국간 경제협력이 증가
중이며, 아직까지 현지투자는 ‘제조업’이 큰 비중임

한국과의 경제협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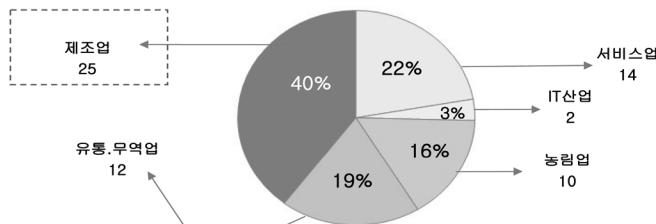
흑룡강성 - 한국 교역현황

항 목	단 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한국의 투자	투자건수	건	22	20	19	22	24	15	23
	투자액	백만달러	2.1	5.0	9.9	8.4	12.3	14.3	55.5
한국과의 교역	대한수입	백만달러	148.4	142.0	186.8	228.3	229.4	190.4	114.0
	대한수출	백만달러	224.0	230.2	325.5	244.6	372.4	389.2	536.0

'01~'07 CAGR 73%

흑룡강성 한국계기업 구성

(무역협회 공시자료 63개사 기준, 2008)





* 자료: 한국무역협회(2008)

최근 우리기업의 하얼빈에 대한 투자 및 교류분야는 다변화되고 있음

한국의 최근 경제협력동향 ①

농림자원

“베이다황CJ” 설립발표(2008.09)


- 사명: 베이다황CJ식품과기유한책임공사
- 형태: CJ와 베이다황과의 합자법인
- 업종: 곡물가공업
- 사업개요:
 - 중국 흑룡강성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원료로 미강 단백질, 현미유, 식이섬유 등을 생산
 - 연간 14,000톤 규모
 - 향후 콩, 옥수수 등 기타작물에 대한 제휴 강화
- 사업계획요약:
 - 흑룡강성 곡물재배지역을 기반으로 2009년까지 ‘하얼빈’ 인근지역 3곳에 쌀미강 처리 생산공장을 지어 제품생산예정
 - 현미유는 올해말부터, 미강 단백질은 내년 말부터 제품 본격생산 예정
- 기대효과:
 - “베이다황CJ” 설립으로 CJ제일제당은 20%안팎의 원자재가 부담을 줄이며, 고품질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도 가능하게 됨

* 자료: 파이낸셜뉴스, 2008년 9월 8일자

최근 우리기업의 하얼빈에 대한 투자 및 교류분야는 다변화되고 있음

한국의 최근 경제협력동향 ②

중소기업 수출지원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하얼빈경제무역상담회” 전략적 지원

- 단체: 부산테크노파크
- 활동내용:
 - ‘중국하얼빈국제경제무역상담회’에 지역 중소기업의 참가를 적극 지원
 - 하얼빈지역의 ‘경제기술개발구’와 별도의 협조관계를 구축해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참가기업 기술과 제품의 마케팅을 극대화
- 수출실적(2008):
 - 대영특수고무: 하얼빈소재기업과 연24만개의 특수고무 불소다이아후렘 구매의향서를 받음(6~10억 원 수출)
 - 에이치디알: 중국 척도공업과 휴대용알칼리수 발생장치의 복경,천진지역 총판계약(연 10억 원)
 - 하이코: 특수벌브 연 5000개 수출계약
 - 위드: 발수제, 난연제 제품 기술이전 및 수출계약

하얼빈경제기술개발구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06년	2007년	2008년 1-7월
GDP	억 위안	216.8 (21.6%)	257.3 (18.7%)	137.7 (8.4%)
공업총생산	억 위안	814 (21.4%)	951.0 (16.8)	548.0 (11.8%)
수출	억 달러	7.6 (60.4%)	5.5 (-27.1%)	4.0 (13.6%)
수입	억 달러	2.5 (-21.9%)	2.6 (4.0%)	9.3 (495.2%)
외자계약금액	억 달러	3.2 (4.5%)	3.3 (1.7%)	3.5 (76.0%)
실행금액	억 달러	1.7 (-10.7%)	2.0 (18.1%)	1.3 (50.2%)

* 자료: 하얼빈하이테크산업단지 관리위원회

- 1988년 설립, 1991년 국무원 허가를 받은 국가급하이테크산업개발구
- 하얼빈공대 등 대학기술단지와 민간자본이 결합된, 산, 관, 학 연동단지
- 러시아와의 협력이 특히 발달(현재 중-러 프로젝트 약 100여개)


* 자료: 전자신문, 2008년 9월 17일자

최근 우리기업의 하얼빈에 대한 투자 및 교류 분야는 다변화되고 있음

한국의 최근 경제협력동향 ③


금융 및 기술관련 진출

금융 투자영역의 확장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 2006년 11월에 하얼빈 신도시 부지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에 총 260억 원 투자



KB
(국민은행)


- 금년(2008년) 내, 하얼빈 지점 개설 예정



하나은행
(하나은행)


- 2012년까지 하얼빈에 점포증설

Technology 관련 투자 및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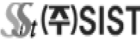
KSIC.net
(주)한국공간정보통신

- 2007년 하얼빈에 중국 과학기술청 산하 흑룡강성진산센터와 공동으로 '한·중 과학기술정보센터' 설립(GIS 기술협력)



RNL BIO
(알앤엘바이오)

- 중국 진출을 위해 하얼빈 수의 과학 연구소에 구제역 예방·방역 소독제품 시험의뢰(2006)
- 100% 살바이러스 효과를 확인



(주)SIST
(SIST쌍용교육센터)

- 중국과기청 산하 전산센터와 함께 '중국IT전문가교육센터 설립 발표(2007.12)
- 현지 IT사업 참여하려는 국내기업에 인력조달역할

목차

1. 하얼빈의 경제현황과 발전상
2. 하얼빈-한국간 경제협력 현황
3. 결론

결론

현황검토의 시사점

하얼빈-한국간 경제협력 현황검토의 시사점

1. 하얼빈의 경제는 2차 산업인 공업이 견인하여 왔으나, 최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하얼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3차 산업**(예: 여행, 금융) 투자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 기회를 주목할 만 함
2. 하얼빈 및 인근 흑룡강성의 강점인 '**자원산업(농림·임업)**'은 향후 식량자원의 증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검토 가치가 큼
3. 하얼빈의 기존강점인 공업은 철도의 발달 및 역사적 공업입지로서의 강점을 배경으로 대 러시아 무역 및 동북지역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크므로 우리나라의 **제조 및 부품·소재 기업**들의 하얼빈 수출을 통한 시장확대 기회가 있음
4. 하얼빈 및 흑룡강성은 지속 성장하나 아직 규모가 중국 내 타 경제성장 지역 대비 크지 않으므로, 내수소비를 기대하는 경제협력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

10

하얼빈시의 창조경영

조 동 성(서울대 경영대 교수)

하얼빈 시의 창조경영 메커니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지속경영학회 회장
조동성

Copyright reserved 2008 Dong-sung C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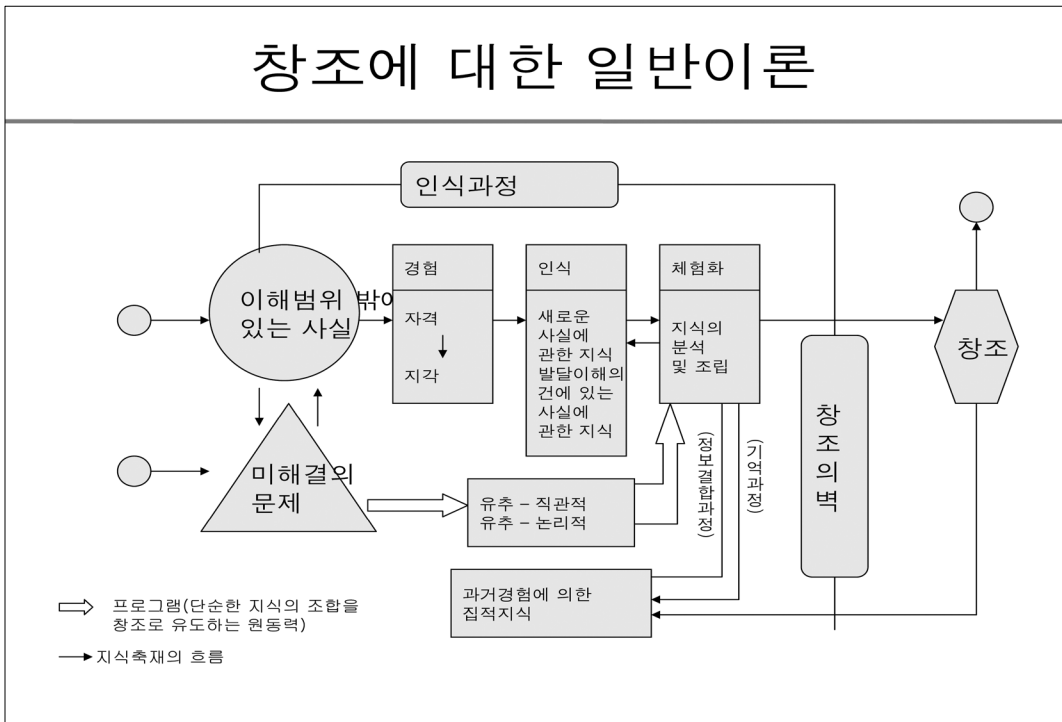
목차

1. 이론1: 창조경영
2. 이론2: 경영 메커니즘
3. 창조경영 메커니즘 사례: 하얼빈

Copyright reserved 2008 Dong-sung Cho



1. 이론1: 창조경영



창조경영의 선각자: 조셉 슈페터

조셉 슈페터 (경제학자, 전 하버드대 교수, 1883 ~ 1950)

- 기술의 발달에 경제가 얼마나 잘 적응해 나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란 개념을 제시함
-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창조적 파괴를 주창
-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 행위를 강조
- 1912년에 발표한 <경제발전론>에서 이윤이 기업가의 혁신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함
- 즉, 이윤은 혁신적인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행위'로 인한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에서 파생되며,
이윤이란 바로 창조적 파괴행위를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가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라는 것
- 이후 다른 기업인에 의해 이것이 모방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윤이 소멸되고, 새로운 혁신적 기업가의 출현으로 다시 사회적 이윤이 생성된다고 봄
- 다시 말해 '기술혁신'으로 낡은 것을 파괴, 도태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변혁을 일으키는 '창조적 파괴' 과정이 기업경제의 원동력이라는 것임

창조경영에 대한 최근 이론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

한국 기업은 이제 창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최고가 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독창성을 요구하는 경쟁의 본질을 파악하는 CEO의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2005)

짐 테이트 (하와이대 교수, 세계미래학회장)

최근 20여년간 이성적인 과학이 중요했지만 미래에는 감성적인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적 산물들이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상상력, 창조, 감성의 의미를 깨닫는 기업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2003)

리처드 포스트 (백킨지 전 CEO)

현재를 파괴하는 기업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 기업인은 기업의 선장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창조적 파괴에 능숙해져야 한다. (2004)

김위찬 (INSEAD 석좌교수, 블루오션 전략 주창자)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한국의 미래 번영을 위해선 경쟁 마인드를 벗어나 창조적인 마인드 프로세스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2005: Blue Ocean)

장대환 (매일경제신문/매일경제TV 회장)

창조적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 한국 기업들도 이제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으로 창조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2006: WKF)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생존하려면 환경적응을 하고, 1등이 되려면 환경창조를 하라. (1997: 기업의 환경창조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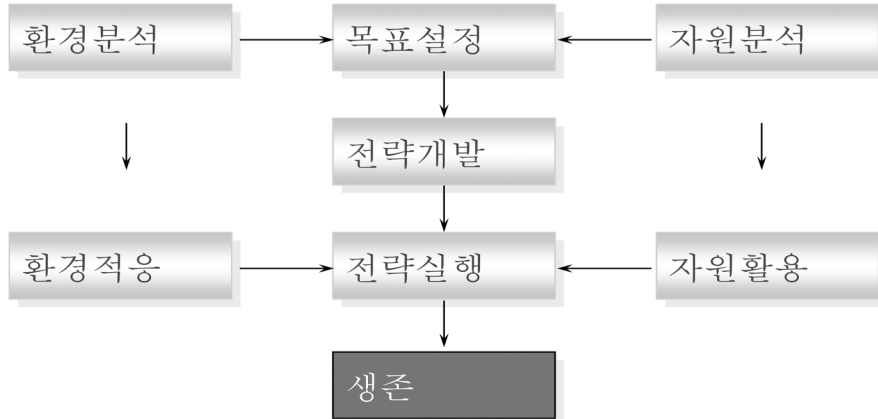
창조경영 개념과 사례

성명	창조경영의 개념	추천 사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상품과 기술로 시장을 창출하는 것	셰이크 모하메드
박주민 (옥션 사장)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경영	세종대왕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	미래사용자의 욕구창조. 세계를 경영하는 것은 세상에 없었던 제품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자극해 고부가 가치 산업을 일으키는 것.	이건희
김창호 (하나코비 사장)	내 몸에 맞는 경영. 현재의 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과 가능성에 근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순신
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사장)	창조란 필요하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개발하는 것. 창조경영이란 그런 제품을 무기로 끊임없이 성공하는 기업문화를 유지하는 것.	셰이크 모하메드
앙드레김 (디자이너)	세계를 분석하고 획기적인 신선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셰이크 모하메드
조동성 (서울대 교수)	창조는 분해(decomposition)와 재구성(recomposition) 창조경영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과 자원을 재구성하는 행위	이병철/이건희 이부카/모리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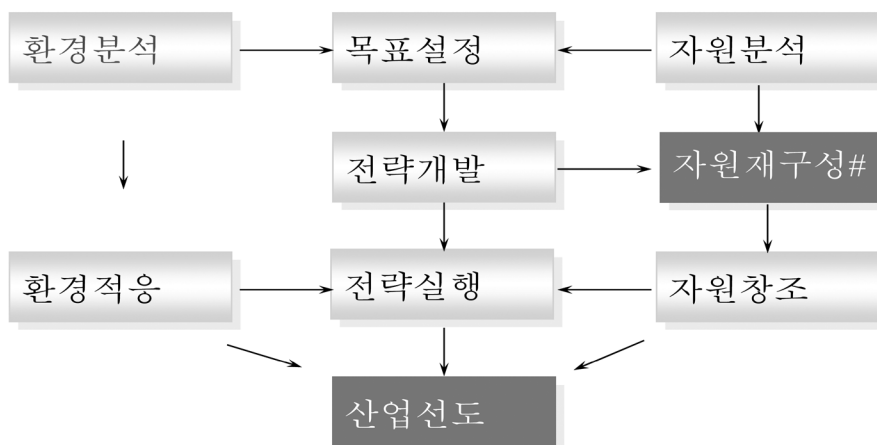
조동성의 창조경영 메커니즘 3단계

- 1) 생존하려면 → “환경적응” 메커니즘
- 2) 1등을 차지하려면 → “자원창조” 메커니즘
- 3) 1등을 유지하려면 → “환경창조” 메커니즘

창조경영의 1단계: 환경적응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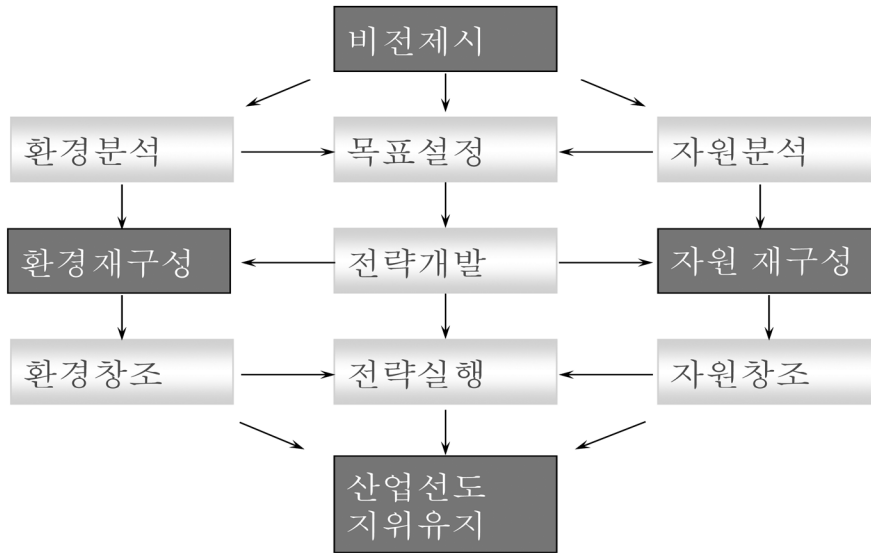
창조경영의 2단계: 자원창조 메커니즘



* '자원'은 정보, 기술, 노하우, 핵심역량, 지식 등 유형, 무형의 자산을 포함.

'재구성'은 축적, 개발, 재구성, 학습, 선택 등의 형태로 이루어짐.

창조경영의 3단계: 환경창조 메커니즘



환경창조의 구성 요소

1) 비전 → 영웅의 마음

2) 재구성과 실행 → 영웅의 자질

영웅의 마음: 청춘

새뮤얼 울먼 작, 조 동성 번역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미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를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이십의 청년보다 육십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 버리는 것이다.

육십 세이든 십육 세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킷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 되어 있다. 아름다움, 희망, 회열, 용기, 영원의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란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이십 세라 할 지라도 이미 늙은 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팔십 세일 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일 것이다.

Mind of a Hero: Youth

Youth is not a time of life: It is a state of mind;
it is not a matter of rosy cheeks, red lips and supple knees;
it is a matter of the will, a quality of the imagination,
a vigor of the emotions;
it is the freshness of the deep springs of life.

Youth means a temperamental predominance of courage over timidity
of the appetite, for adventure over the love of ease.

This often exists in a man of sixty more than a boy of twenty.

Nobody grows old merely by a number of years.

We grow old by deserting our ideals.

Years may wrinkle the skin, but to give up enthusiasm wrinkles the soul.

Worry, fear, self-distrust bows the heart and turns the spirit back to dust.

(Continu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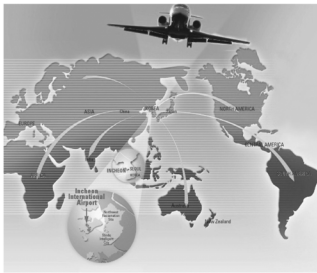
Mind of a Hero: Youth

(...Continued)

Whether sixty or sixteen, there is in every human being's heart
the lure of wonder, the unfailing child-like appetite of what's next,
and the joy of the game of living.

In the center of your heart and my heart there is a wireless station;
so long as it receives messages of beauty, hope, cheer, courage and power
from men and from the infinite, as long are you young.

When the aerials are down, and your spirit is covered
with snows of cynicism and the ice of pessimism,
then you are grown old, even at twenty,
but as long as your aerials are up, to catch the waves of optimism,
there is hope you may die young at eighty.



2. 이론2: 경영 메커니즘

우리 조직의 경영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이름: _____ 소속조직: _____ 직책: _____
 프로젝트: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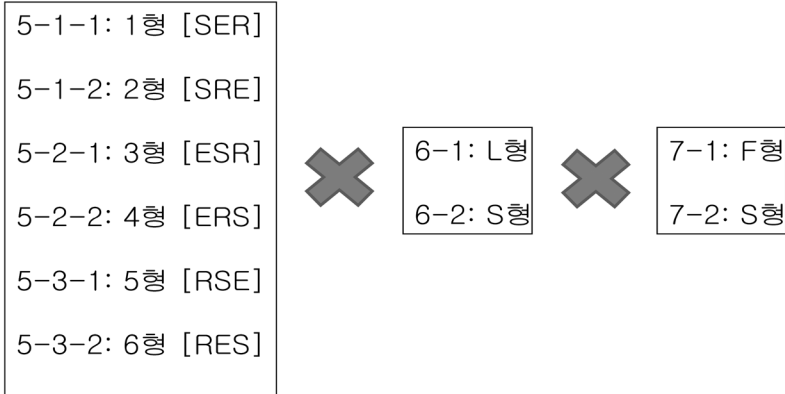
1. 이 프로젝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영자(주체)를 한 명만 고른다면 누구입니까?
 ① 최고 책임자 ② 실무 책임자 ③ 담당자 ④ 조언자 ⑤ 기타
2. 이 프로젝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기업 외부 요인(환경)을 하나만 고른다면 어느 것입니까?
 ① 정부 ② 사회 ③ 경쟁자 ④ 협력사 ⑤ 고객 ⑥ 공급자 ⑦ 기타
3. 이 프로젝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기업 내부 요인(자원)을 하나만 고른다면 어느 것입니까?
 ① 인력 ② 자본 ③ 기술 ④ 설비 ⑤ 시스템 ⑥ 조직문화 ⑦ 기타
4. 1, 2, 3번의 답변 중 이 프로젝트가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인을 하나만 고른다면 어느 것입니까?
 ① 경영자의 비전과 의지(주체) ② 기업 외부요인(환경) ③ 기업 내부요인(자원)
- 5-1. 문항 4에서 ① 경영자의 비전과 의지(주체)를 선택한 경우, 책임자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먼저 활용한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기업 외부요인(환경) [SER] ② 기업 내부요인(자원) [SRE]
- 5-2. 문항 4에서 ② 기업 외부요인을 선택한 경우, 외부 환경에 따라 먼저 변화한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경영자의 비전과 의지(주체) [ESR] ② 기업 내부요인(자원) [ERS]
- 5-3. 문항 4에서 ③ 기업 내부요인을 선택한 경우, 내부 요인이 먼저 변화를 준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경영자의 비전과 의지(주체) [RSE] ② 기업 외부요인(환경) [RES]

우리 조직의 경영메커니즘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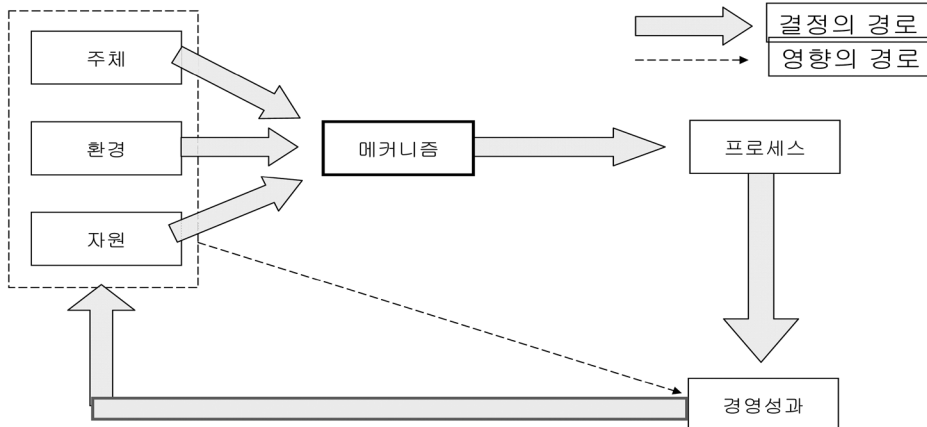
---계속

6. 해당 프로젝트는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었습니까?
 ① 장기적인 관점이었다 [L] ② 단기적, 즉각적 효과를 추구했다 [S]
7. 해당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까?
 ① 빠르게 진행되었다 [F] ②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S]

경영메커니즘의 24가지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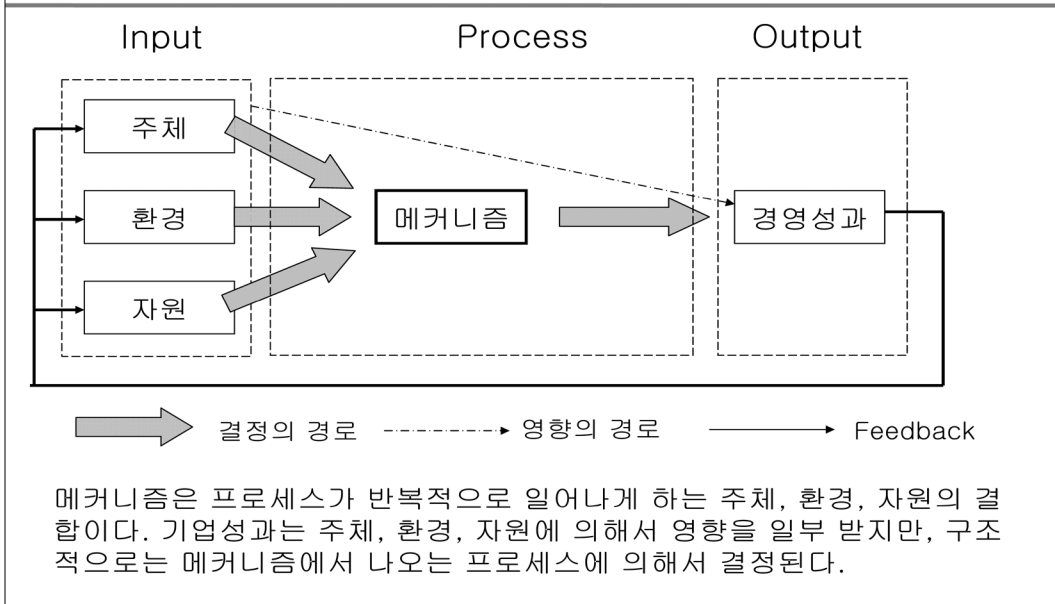


경영메커니즘 모델(2기2원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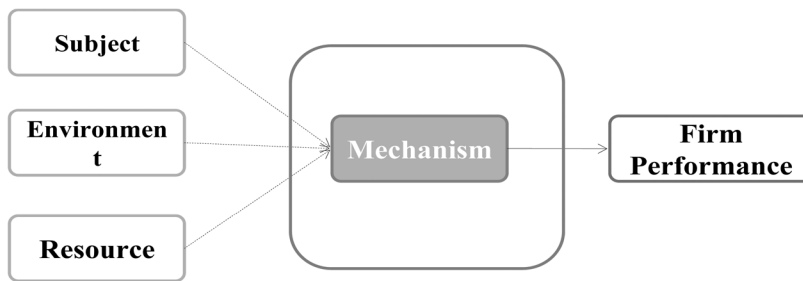
메커니즘은 프로세스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주체, 환경, 자원의 결합이다. 기업성과는 주체, 환경, 자원에 의해서 영향을 일부 받지만, 구조적으로는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결정된다.

경영메커니즘 모델(2기1원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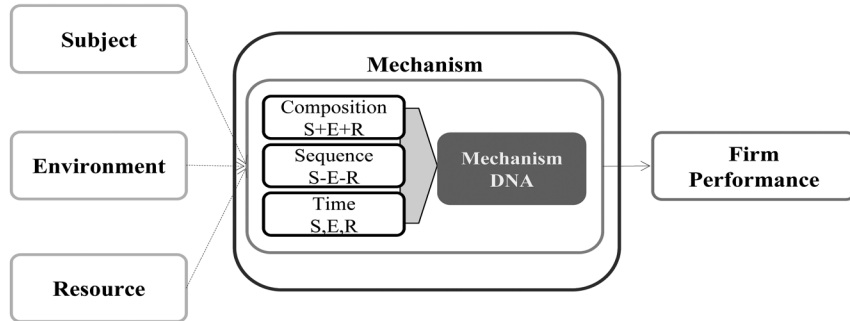


메커니즘 경영

메커니즘 경영이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경영자, 외부환경요인, 내부자원 요인과 같은 개별 요소가 아니라
 이들 요소가 결합된 메커니즘에 있다는 전제 하에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파악해서
 가장 바람직한 메커니즘을 만든 다음
 만들어진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경영이다.



메커니즘의 결정요소(DNA): C-S-T



주체, 환경, 자원의 내용 (구성),
구성요소의 활용 순서 (수순),
각 구성요소를 활용하는 시점 (시간)에
의해서 서로 다른 메커니즘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원하는 메커니즘을 만들려면
구성, 수순, 시간을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구성-순서-시간의 의미

<p>구성 Composition S+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S,E,R 각 요소의 내용 파악 (S,E,R간의 Composition이 메커니즘의 DNA 형성 출발점)
<p>순서 Sequence S-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R 중에서 무엇이 앞서고 무엇이 뒤따르는지 파악 (Sequence에 따라 메커니즘의 DNA가 결정됨)
<p>시간 Time S,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커니즘의 작동기간이 장기인지 단기인지 구분 • 메커니즘의 진행속도가 빠르지 늦은지 구분 (Time에 따라 메커니즘의 DNA가 작동해서 나오는 효과가 좌우됨)

구성(Composition)에 대한 질문

Composition

메커니즘의 각 구성요소인 주체, 환경, 자원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정의함

1. 이 프로젝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영자(주체)를 한 명만 고른다면 누구입니까?
①최고 책임자 ②실무 책임자 ③ 담당자 ④ 조연자 ⑤ 기타
2. 이 프로젝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기업 외부 요인(환경)을 하나만 고른다면 어느 것입니까?
①정부 ②사회 ③경쟁자 ④협력사 ⑤고객 ⑥공급자 ⑦기타
3. 이 프로젝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기업 내부 요인(자원)을 하나만 고른다면 어느 것입니까?
①인력 ②자본 ③기술 ④설비 ⑤시스템 ⑥조직문화 ⑦기타

메커니즘은 이러한 세가지 요소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전제로 형성됨

순서(Sequence)에 대한 질문

Sequence

주체, 환경, 자원의 결합순서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정의함

4. 주체-환경 (S-E): 영웅이 먼저인가, 시대가 먼저인가?
5. 환경-자원 (E-R): 기존 환경으로 새로운 자원을 창출하는가,
기존 자원으로 새로운 환경을 창출하는가?
6. 자원-주체 (R-S): 주체가 새로운 자원을 창출하는가,
기존 자원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주체를 선택하는가?

순서(Sequence)에 대한 구체적 질문

좀더 구체적으로,

4. 1, 2,3번의 답변 중 이 프로젝트가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인을 하나만 고른다면 어느 것입니까?

- ① 경영자의 비전과 의지(주체) ② 기업 외부요인(환경) ③ 기업 내부요인(자원)

5-1. 문항 4에서 ①경영자의 비전과 의지(주체)를 선택한 경우, 책임자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먼저 활용한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기업 외부요인(환경) [SER] ② 기업 내부요인(자원) [SRE]

5-2. 문항 4에서 ②기업 외부요인을 선택한 경우, 외부 환경에 따라 먼저 변화한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경영자의 비전과 의지(주체) [ESR] ② 기업 내부요인(자원) [ERS]

5-3. 문항 4에서 ③기업 내부요인을 선택한 경우, 내부 요인이 먼저 변화를 준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경영자의 비전과 의지(주체) [RSE] ② 기업 외부요인(환경) [RES]

순서(Sequence)에 따른 6가지 유형

주체, 환경, 자원의 결합순서에 따라 만들어 지는 6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음

1 2 3 1. 변화의 동인(Driving Force) 2. 변화의 수단(Means) 3. 변화의 결과(Result)

S E R • 환경창조1 [주체가 능동적으로 환경을 창조하고 이를 통해 자원을 확보]

S R E • 환경창조2 [주체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원하는 환경을 창조]

R S E • 환경창조3 [자원을 활용해서 주체가 능동적으로 환경을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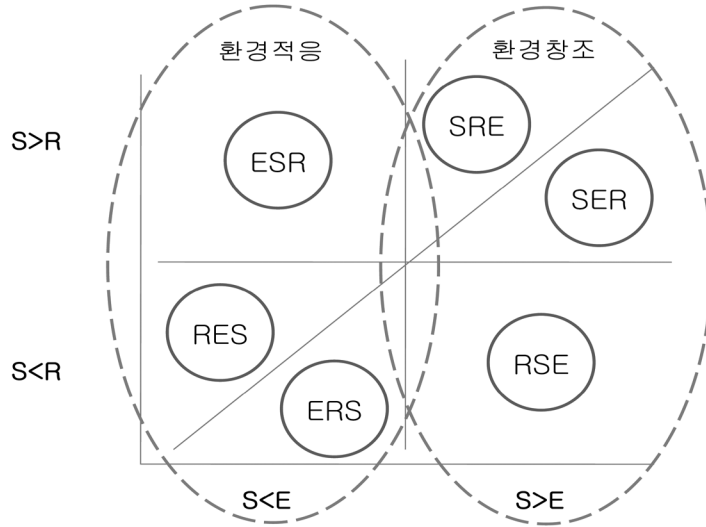
E S R • 자원창조 [환경 적응을 통해서 주체가 적극적으로 자원을 확보]

E R S • 환경적응 [환경 적응을 하는 가운데 주어진 자원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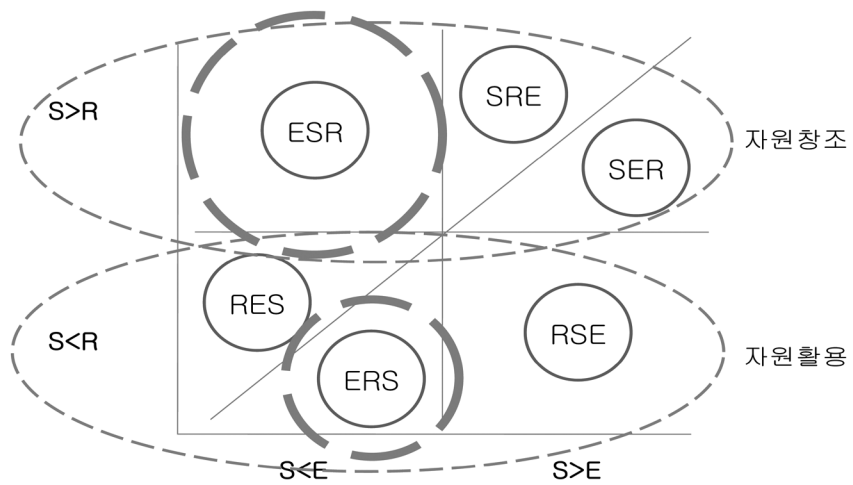
R E S • 자원활용 [주어진 자원에 기반한 환경적응]

기업 메커니즘의 DNA는 세가지 요소의 상호작용 순서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구분

순서(Sequence)에 따른 6가지 유형



순서(Sequence)에 따른 6가지 유형



시간(Time)에 대한 질문

시간 Time

7. SER의 sequence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장기인가, 단기인가?

●장단기 전망: “Time Perspective” of the mechanism in generating the processes and their lasting effects

8. 각각의 sequence는 얼마나 빨리 실행되는가?

●속도: “Speed” at which each and every element of the processes is executed¹

시간(Time)에 대한 구체적 질문

6. 해당 프로젝트는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었습니까?

- ① 장기적인 관점이었다 [L] ② 단기적, 즉각적 효과를 추구했다 [S]

7. 해당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까?

- ① 빠르게 진행되었다 [F] ②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S]

기업의 메커니즘 DNA는 시간 요소의 조합에 따라 4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

순서와 시간에 따른 24가지 유형

Sequence

	설명	유형
SER	주체에 의한 환경창조에 의한 자원창조	환경창조1
SRE	주체에 의한 자원활용에 의한 환경창조	환경창조2
RSE	주어진 자원 하에 주체의 환경창조	환경창조3
ESR	환경적응을 통한 주체의 자원창조	자원창조
ERS	환경적응을 통한 자원활용	환경적응
SRE	주어진 자원에 기반한 환경적응	자원활용

Time

	설명	유형
LF	장기적 관점, 빠른 실행	
LS	장기적 관점, 단계적 실행	
SF	단기적 관점, 빠른 실행	
SS	단기적 관점, 단계적 실행	

X



3. 창조경영 메커니즘 사례: 하얼빈

21세기 도시의 환경창조 메커니즘

- 정보, 지식, 문화의 21세기는 누구를 축복할 것인가?
 - 정보 생산자
 - 지식 창조자
 - 문화 선도자

- 오늘날 변화의 속도는 혁명적이고, 혁명은 기득권자의 피를 부른다.
 -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새 시대를 맞는 사람은 반드시 도태된다.
 - 20세기 산업시대의 기득권자는 확률적으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 변화의 물결은 도시발전 과정에도 예외일 수 없다.
 - 기존의 도시가 물러가고 새로운 도시가 물려온다.
 - 하얼빈으로부터 환경창조 메커니즘의 해답을 찾아본다.

하얼빈 소개

- 중국 동북부의 교통 중심지로 인구 9백만의 대도시로 성장
- 연 평균기온 3.6도, 겨울평균기온 영하 20도의 추위
- 송화강의 얼음을 이용하여 빙설제 개최
- 60일 동안 1,500여개의 다양한 불거리로 하루 5만 명, 총 3백만 명이 관람



하얼빈의 목표, 전략, 성공원인

■ 목표

- 하얼빈 시 두우신 당서기: 할빈을 중국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 전략

- 안중근 장군: 평화도시로 발전
- 빙설제: 낭만도시로 발전
- 중공업 클러스터: 경제도시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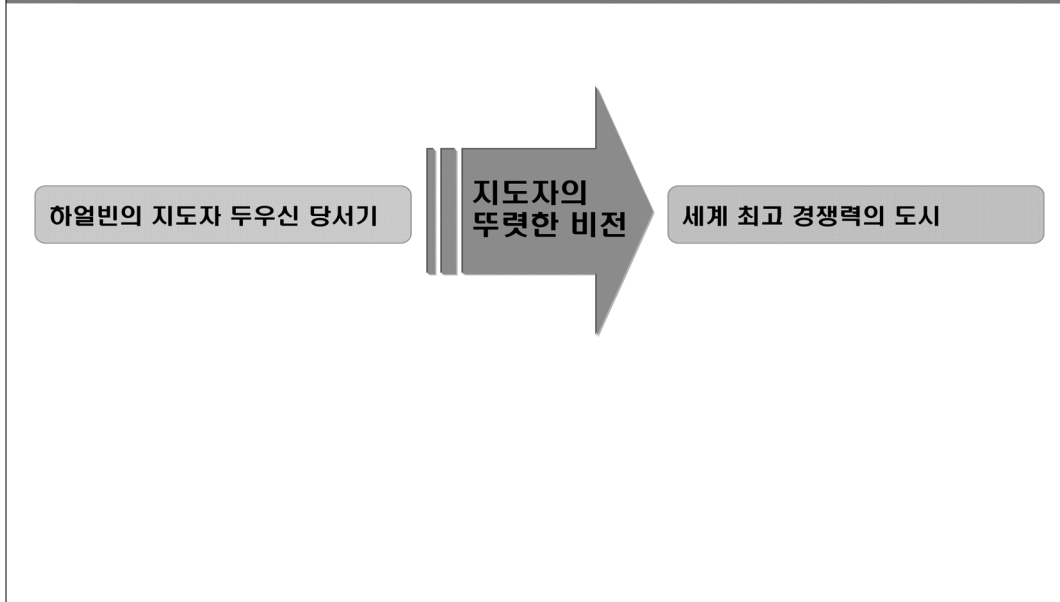
■ 핵심성공원인

- 두우신 서기장의 비전, 실천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 열악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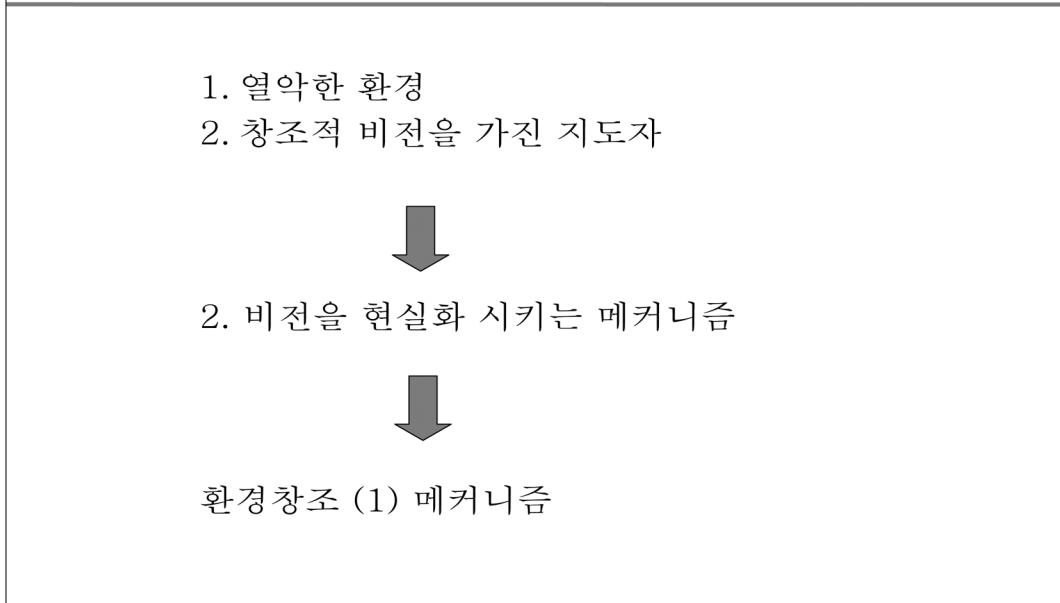
열악한 환경은 창조의 제1조건



지도자의 비전은 창조적 제2조건



경영 메커니즘은 창조적 제3조건



하얼빈의 교훈

지도자는 불리하다고 여겨진 문제점들을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극복하여
비전을 달성하는 사람이다.

“열악한 환경”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창조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그렇게 불렀을 뿐이다.

(열악한) 환경은 비전달성의 필요조건이고,
창조경영 메커니즘은 비전달성의 충분조건이다.

동북아 평화와 안중근 의거 재조명

- 발표자 : 이태진, 오영섭, 서영희, 박태균, 유병호, 김민규,
井村哲郎, 이호영, 강성민, 김태현, 조동성
- 발 행 : 2008년 10월
- 펴낸곳 : 안중근·하얼빈 학회, 동북아역사재단
- 인쇄처 : 연화디앤피
전화 02-2269-8620 / 팩스 02-2269-8621

비매품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25년

홈런의 숲...

“프로야구 팬이라면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요?”
프로야구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아세요?
첫해에 6경기만 우천으로 취소되었던 프로야구가 작년엔
66경기나 호우로 취소되었답니다. 지구온난화로
아열대기후처럼 비가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시원한
홈런이 즐거운 프로야구를 지키는 길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손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CO₂를 없애는 가장 푸른 방법 바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입니다

유한김벌리는 지난 25년간 공공유지 나무심기 및 생명의 숲 가꾸기, 학교숲
만들기, 도시숲 조성,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 동북아 사막화방지 숲 조성, 청소년
숲체험교육, 숲 보존 트러스트 운동 등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숲의 소중함을 국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